

완도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결정사안】

1948. 5. 9.부터 1950. 10. 4.까지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완도읍, 고금면, 약산면, 금당면, 금일읍, 소안면, 노화읍 등 8개 읍·면에서 진실규명대상자 67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26명 등 총 93명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당하였음을 참고인 진술과 문헌자료를 통해 확인 또는 추정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완도지역에서 발생한 희생사건은 1948. 5. 9.부터 1950. 10. 4.까지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완도읍, 고금면, 약산면, 금당면, 금일읍, 소안면, 노화읍 등 8개 읍·면에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진실규명대상자 67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26명 등 총 93명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당하였다.

2. 희생사건의 실재여부 및 진실규명대상자 및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의 희생사실여부의 확인은 문헌자료(제적등본, 각종 명부)와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진실규명대상자 66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25명은 희생 시기 및 장소가 확인되어 희생사실을 ‘확인’하였고, 진실규명대상자 1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1명은 희생 시기 및 장소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희생사실을 ‘추정’하였다.

3. 희생사건의 가해주체는 인민군, 지방좌익이다. 인민군에 의한 희생사건은 인민군이 완도지역 각 읍·면으로 진주하던 시기에 군외면, 고금면, 노화읍에서 발생하였고, 인민군이 완도지역을 퇴각하던 1950. 9. 30.에 완도읍에서 발생하였다. 지방좌익에 의한 희생사건은 한국전쟁 이전부터 1950. 10월 초까지 완도지역 대부분의 읍·면에서 발생하였다.

4. 희생자들은 주로 경찰, 공무원, 대한청년단원 등 우익이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 마을에서 부유한 편에 속한다는 이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희생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희생자들은 주로 20~40대의 남성이었으나 그 외에도 소수이기는 하나 여성을 포함하여 10~60대까지 전 연령대의 희생자가 존재하였다.

[전 문]

【사 건】 마-871 등 57건, 완도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사건

【신청인】 이승화 등 49명

【결정일】 2009. 12. 15.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이 유]

I. 조사개요

1. 사건개요

가. 사건접수 및 처리과정

신청인 이승화 등 49명은 2005. 12. 8.부터 2006. 11. 30.까지 진실화해위원회에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 전라남도 완도지역에서 발생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요청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제25차 민족독립규명위원회(2007. 2. 20.)에서 완도지역에서 발생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총 49건을 조사개시 결정하였다. 그 외 집단희생조사국에서 조사개시 결정된 완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중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사 결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으로 판단된 사건 8건이 민족독립조사국으로 이관되어 전체 사건은 총 57건이 되었다.¹⁾ 이상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된 완도지역에서 발생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57건 중, 한 사건 안에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시기 및 장소가 다른 사건 2건을 각 사건별로 나누어 총 59건의 사건으로 분류하였고, 이를 다시 희생시기 및 장소가 동일한 경우에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하여 총 24개의 사건으로 분류 및 정리하였다.

1) 집단희생조사국에서 이관된 사건은 ‘고금면 덕동리 덕동분주소 희생사건(마-4197)’, ‘소안면 횡간리 김복홍 등 5명 희생사건(마-3865, 3866, 3867, 3869)’, ‘소안면 횡간리 앞바다 희생사건(마-3872, 10737)’, ‘소안면 이월리 김석만 희생사건(마-3857)’ 등 총 8건이다.

사건명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일차적 기준으로 한 후, 진실규명대상자 개인만이 희생당한 사건은 진실규명대상자의 이름을 사건명에 기재하여 ‘○○면 ○○리 ○○○ 희생사건’으로 사건명을 표현하였고, 일가(一家)가 희생된 사건은 희생자 중 연장자(남자)의 이름만을 사건명에 기재하여 ‘○○면 ○○리 ○○○ 일가 희생사건’으로 사건명을 표현하였다.²⁾ 그리고 희생시기 및 장소가 동일하고 희생자가 2명인 사건은 ‘○○면 ○○리 ○○○, ○○○ 희생사건’으로 표현하였고,³⁾ 희생자가 3명 이상인 사건은 ‘○○면 ○○리 ○○○ 등 ○명 희생사건’으로 표현하였다.⁴⁾ 또한 희생시기 및 장소가 동일하고 희생자가 10명 이상인 사건은 희생장소만을 표기하여 ‘○○면 ○○리 ○○○ 희생사건’으로 표현하였고,⁵⁾ 희생자들이 내무서 혹은 분주소 등 일정 장소에 감금되어 있다가 집단으로 희생된 사건은 ‘○○면 ○○리 ○○내무서(○○분주소) 희생사건’으로 사건명을 표현하였다.⁶⁾ 그 외 진실규명대상자가 완도 이외 지역에서 희생당하여 정확한 희생장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실규명대상자가 희생당하기 전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장소나 감금됐던 장소를 사건명에 기재하였다.⁷⁾

〈표 1〉은 진실규명신청서 접수 현황 및 조사결과 사건명을 정리한 것으로, 완도지역 읍·면을 군외면, 완도읍,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금당면,⁸⁾ 금일읍,⁹⁾ 생일면, 소안면, 노화읍,¹⁰⁾ 보길면,¹¹⁾ 청산면 순으로 배열한 후,¹²⁾ 각 읍·면에서 발생한 사건을 시기 순으

2) 이에 해당하는 사건은 ‘약산면 관산리 최규승 일가 희생사건’이다.

3) 이에 해당하는 사건은 ‘약산면 관산리 송복신, 송정순 희생사건’, ‘약산면 관산리 김옥자, 김태정 희생사건’이다.

4) 이에 해당하는 사건은 ‘소안면 횡간리 김복홍 등 5명 희생사건’이다.

5) 이에 해당하는 사건은 ‘소안면 횡간리 앞바다 희생사건’이다.

6) 이에 해당하는 사건은 ‘완도읍 군내리 완도내무서 희생사건’, ‘고금면 덕동리 덕동분주소 희생사건’, ‘약산면 장용리 약산분주소 희생사건’, ‘금일읍 화목리 금일분주소 희생사건’이다.

7) 진실규명대상자 김경희(마-243), 손남석(마-348)은 노화읍 이포리 농협창고에 감금되었다가 해남군 송지면(現 현산면) 월송리로 끌려가 희생당하여 사건명을 ‘노화읍 이포리 농협창고 희생사건’으로, 진실규명대상자 김석만(마-3857)은 소안면 이월리 자택에서 해남군 북평면으로 끌려가 희생당하여 사건명을 ‘소안면 이월리 김석만 희생사건’으로 표현하였다.

8) 금당면은 장흥군에 속해 있다가 1896년 완도군이 신설됨에 따라 완도군에 편입되었으며 1916년 금당면, 평일면, 생일면과 함께 금일면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금당면은 1980년 금일면이 금일읍으로 승격되어 금일읍 금당출장소로 개칭되었다가 1986년 금당도와 비전도, 허우도, 화도 등 유인도와 부속 무인도를 그 구역으로 하여 금당면으로 분리·승격되었다. 따라서 1950년 당시 금당면은 금일면이었으나 본 결정서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행정지명을 따라 금당면으로 표기하였다. 금당면사무소 홈페이지(<http://www.wando.go.kr/vil02>) 참조.

9) 금일읍은 여수군에 속해 있다가 1896년 완도군이 신설됨에 따라 평일면, 생일면, 금당면과 함께 완도군에 편입되었으며 1916년 평일면, 생일면, 금당면과 함께 금일면으로 개칭되었다. 이후 금일면은 1980년 금일읍으로 승격되었고, 1986년에 금당면이, 1989년 생일면이 금일읍에서 분면되면서 현재의 행정구역을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1950년 당시 금일읍은 금일면이었으나 본 결정서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행정지명을 따라 금일읍으로 표기하였다. 금일읍사무소 홈페이지(<http://www.wando.go.kr/vil05>) 참조.

제 3 권

로 배열하였다. 신청인 49명이 사건을 신청하였고, 진실규명대상자는 67명이다.

〈표 1〉 진실규명신청서 접수 현황 및 조사결과 사건명

연번	사건번호	사건접수일	신청인 (당시 나이)	진실규명대상자			조사결과 사건명	비고
				성명	성별 (당시 나이)	신청인과의 관계		
군외면(진실규명신청사건 1건)								
1	마-871	2006. 1. 18.	이승화 (1951년 출생)	이원춘 (李垣春)	남 (38)	아버지	군외면 황진리 이원춘 희생사건 (1950. 9. 14.)	-
완도읍(진실규명신청사건 8건)								
2	마-935	2006. 1. 24.	최동주 (21)	최윤신 (崔允信)	남 (43)	아버지	완도읍 군내리 완도내무서 희생사건 (1950. 9. 30.)	병합
3	마-6120	2006. 10. 20.	김상록 (14)	김복길 (金福吉)	남 (29)	작은아버지		
4	마-7277	2006. 11. 22.	최영옥 (2)	최경춘 (崔慶春)	남 (26)	아버지		
5	마-7652	2006. 11. 24.	황종채 (10)	황래봉 (黃來鳳)	남 (43)	아버지		
6	마-6762	2006. 11. 13.	황종길 (11)	황세봉 (黃世鳳)	남 (40)	아버지		
7	마-7653	2006. 11. 24.	임진일 (10)	임남선 (林南先)	남 (34)	아버지		
8	마-7654	2006. 11. 24.	김용인 (12)	김길순 (金吉順)	남 (49)	아버지		

- 10) 노화읍은 영암군에 속해 있다가 1896년 완도군이 신설됨에 따라 완도군에 편입되었으며 1980년 노화읍으로 승격되었다. 따라서 1950년 당시 노화읍은 노화면이었으나 본 결정서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행정지명을 따라 노화읍으로 표기하였다. 노화읍사무소 홈페이지(<http://www.wando.go.kr/vil10>) 참조.
- 11) 보길면은 1914년부터 노화면에 속했고, 1980년 노화면이 노화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보길출장소가 설치되었다가 1986년 보길면으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1950년 당시 보길면은 노화면이었으나 본 결정서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행정지명을 따라 보길면으로 표기하였다. 보길면사무소 홈페이지(<http://www.wando.go.kr/vil11>) 참조.
- 12) 읍·면 배열은 완도읍을 중심으로 하여 인접한 읍·면순으로 하였다. 완도지역 전체 12개 읍·면 중, 신지면, 생일면, 보길면, 청산면에는 우리 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이 없어 본 결정서에서는 완도지역 전체 12개 읍·면 중 8개 읍·면에서 발생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만을 정리하였다.

제 1 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번	사건번호	사건접수일	신청인 (당시 나이)	진실규명대상자			조사결과 사건명	비고
				성명	성별 (당시 나이)	신청인과의 관계		
9	마-10714	2006. 11. 30.	김재옥 (10)	김경석 (金敬石)	남 (35)	아버지		
				김경안 (金敬安)	남 (31)	작은아버지		
				김국흠 (金局欽)	남 (19)	작은아버지		

고금면(진실규명신청사건 3건)

10	마-3079	2006. 4. 20.	박종술 (5)	박태규 (朴太圭)	남 (29)	아버지	고금면 청학리 박태규 희생사건 (1950. 9. 5.)	-
11	마-10727	2006. 11. 30.	황춘봉 (5)	황복윤 (黃福允)	남 (40)	아버지	고금면 가교리 황복윤 희생사건 (1950. 9. 15.)	-
12	마-4197	2006. 7. 6.	오광재 (11)	오병석 (吳炳錫)	남 (29)	삼촌	고금면 덕동리 덕동분주소 희생사건 (1950. 9. 17.~30.)	병합

약산면(진실규명신청사건 22건)

13	마-9300	2006. 11. 30.	최정순 (8)	최윤열 (崔允烈)	남 (63)	일가	약산면 득암리 최윤열 희생사건 (1948. 5. 9.)	-
14	마-9302	2006. 11. 30.	최대용 (1957년 출생)	최규린 (崔圭隣)	남 (38)	할아버지	약산면 장용리 약산분주소 희생사건 (1950. 9. 19.~30.)	병합
15	마-9312	2006. 11. 30.	송이섭 (13)	송복윤 (宋福潤)	남 (31)	작은아버지		
16	마-772	2006. 1. 13.	정영준 (9)	정평균 (鄭平均)	남 (34)	아버지		
17	마-9314	2006. 11. 30.	윤사현 (11)	윤세창 (尹世昌)	남 (27)	형		
18	마-8912	2006. 11. 30.	안향순 (2)	최응열 (崔應烈)	남 (59)	처조부		
19	마-9307	2006. 11. 30.	최재규 (12)	최병태 (崔炳台)	남 (24)	작은아버지		
20	마-9309	2006. 11. 30.	최현 (10)	최병호 (崔秉浩)	남 (73)	할아버지		

제 3 권

연 번	사건번호	사건접수일	신청인 (당시 나이)	진실규명대상자			조사결과 사건명	비고
				성명	성별 (당시 나이)	신청인과의 관계		
21	마-9308	2006. 11. 30.	차충본 (9)	차상근 (車相根)	남 (41)	아버지		
22	마-749	2006. 1. 19.	오영균 (4)	오병천 (吳炳千)	남 (26)	아버지		
23	마-9306	2006. 11. 30.	이주환 (10)	이옥룡 (李玉龍)	남 (34)	아버지		
24	마-6921	2006. 11. 17.	최영규 (7)	최병원 (崔炳元)	남 (35)	아버지		
25	마-9310	2006. 11. 30.	송이섭 (13)	송복신 (宋福信)	남 (35)	아버지	약산면 관산리 송복신, 송정순 희생사건 (1950. 10. 4.)	병합
26	마-9311	2006. 11. 30.	송이섭 (13)	송정순 (宋貞順)	여 (18)	사촌누나		
27	마-9305	2006. 11. 30.	김옥주 (28)	김옥자 (金玉子)	여 (23)	여동생	약산면 관산리 김옥자, 김태정 희생사건 (1950. 10. 4.)	병합
28	마-9315	2006. 11. 30.	김옥주 (28)	김태정 (金太正)	남 (19)	남동생		
29	마-8135	2006. 11. 29.	최명숙 (6)	최규승 (崔圭昇)	남 (34)	아버지	약산면 관산리 최규승 일가 희생사건 (1950. 10. 4.)	병합
30	마-9300 -1	2006. 11. 30.	최정순 (8)	최규칠 (崔圭七)	남 (28)	일가		
				최근호 (崔謹鎬)	남 (17)	일가		
31	마-9303	2006. 11. 30.	최대용 (1957년 출생)	최경호	남 (16)	삼촌		
32	마-9304	2006. 11. 30.	최대용 (1957년 출생)	최철호	남 (15)	삼촌		
33	마-9313	2006. 11. 30.	최규향 (13)	최규실 (崔圭實)	남 (18)	형		
34	마-6261	2006. 11. 30.	최정순 (8)	황연례 (黃研禮)	여 (43)	어머니		
				최원호 (崔元鎬)	남 (19)	첫째오빠		
				최인호	남 (14)	셋째오빠		

제 1 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 번	사건번호	사건접수일	신청인 (당시 나이)	진실규명대상자			조사결과 사건명	비고
				성명	성별 (당시 나이)	신청인과의 관계		
34	마-6261	2006. 11. 30.	최정순 (8)	최정숙 (崔貞淑)	여 (5)	여동생		
				차호기	남 (20세 가량)	집사아들		

금당면(진실규명신청사건 4건)

35	마-167	2005. 12. 8.	송동열 (12)	송태원 (宋太元)	남 (55)	아버지	금당면 차우리 송태원 희생사건 (1950. 9. 10)	-
36	마-5741	2006. 10. 17.	전종보 (1)	전순규 (全順圭)	남 (27)	아버지	금당면 차우리 전순규 희생사건 (1950. 9. 16.)	-
37	마-3704	2006. 5. 26.	김홍진 (1958년 출생)	김영배 (金永培)	남 (26)	작은아버지	금당면 가학리 김영배 희생사건 (1950. 9. 19.)	-
38	마-5746	2006. 10. 17.	송기정 (7)	송일섭 (宋日燮)	남 (29)	아버지	금당면 봉동리 송일섭 희생사건 (1950. 9. 27.)	-

금일읍(진실규명신청사건 9건)

39	마-944	2006. 1. 24.	방상현 (19)	방정순 (方貞淳)	남 (47)	아버지	금일읍 화목리 금일분주소 희생사건 (1950. 9. 17~24.)	병합
40	마-2413	2006. 3. 16.	이계성 (22)	김중준 (金鍾準)	남 (47)	장인		
41	마-2415	2006. 3. 16.	구종성 (1950년 출생)	구기표 (具奇表)	남 (46)	할아버지		
42	마-10716	2006. 11. 30.	천부기 (1954년 출생)	천병탁 (千炳卓)	남 (29)	큰아버지		
43	마-10741	2006. 11. 30.	김성배 (4)	김중식 (金重植)	남 (31)	아버지		
44	마-2412	2006. 1. 18.	이계성 (22)	한동섭 (韓東燮)	남 (46)	妻 친척		
45	마-7892	2006. 11. 27.	한초임 (9)	한동용 (韓東用)	남 (35)	아버지		

제 3 권

연 번	사건번호	사건접수일	신청인 (당시 나이)	진실규명대상자			조사결과 사건명	비고
				성명	성별 (당시 나이)	신청인과의 관계		
46	마-946	2006. 1. 27.	정안석 (5)	정현우 (鄭鉉佑)	남 (29)	아버지	금일읍 화목리 정현우 희생사건 (1950. 9. 20.)	-
47	마-2411	2006. 3. 16.	이계성 (22)	김종명 (金鍾鳴)	남 (39)	처삼촌	금일읍 일정리 김종명 희생사건 (1950. 9. 22.)	-

소안면(진실규명신청사건 7건)

48	마-3865	2006. 6. 8.	김상배 (9)	김복홍 (金福弘)	남 (36)	아버지	소안면 황간리 김복홍 등 5명 희생사건 (1949. 4. 15.)	병합
49	마-3866	2006. 6. 8.	김재봉 (9)	김민채 (金敏彩)	남 (33)	아버지		
50	마-3867	2006. 6. 8.	윤선희 (5)	김용관 (金龍官)	남 (20)	시아버지		
51	마-3869	2006. 6. 8.	이영애 (6)	장남동 (張南同)	남 (22)	시작은아버지		
52	마-3872	2006. 6. 8.	정복자 (13)	김철구 (金哲九)	남 (58)	시아버지	소안면 황간리 앞바다 희생사건 (1950. 8. 14.)	병합
				김용재 (金龍宰)	남 (22)	시아주버니		
53	마-10737	2006. 11. 30.	김광식 (11)	김석노 (金石老)	남 (49)	아버지		
54	마-3857	2006. 6. 8.	김현수 (11)	김석만 (金石萬)	남 (22)	형	소안면 이월리 김석만 희생사건 (1950. 9월 말)	-

노화읍(진실규명신청사건 5건)

55	마-7133	2006. 11. 17.	황종국 (1951년 출생)	황준봉 (黃俊鳳)	남 (28)	아버지	노화읍 이포리 황준봉 희생사건 (1950. 8. 10.)	-
56	마-4382	2006. 7. 20.	양율이 (15)	서창호 (敍昌昊)	남 (34)	장인	노화읍 이포리 서창호 희생사건 (1950. 8. 11.)	-

연 번	사건번호	사건접수일	신청인 (당시 나이)	진실규명대상자			조사결과 사건명	비고
				성명	성별 (당시 나이)	신청인과의 관계		
57	마-348 -1	2005. 12. 26.	손영운 (11)	고종엽 (高宗葉)	여 (41)	어머니	노화읍 동천리 고종엽 희생사건 (1950. 8. 11)	-
58	마-348	2005. 12. 26.	손영운 (11)	손남석 (孫南錫)	남 (40)	아버지	노화읍 이포리 농협창고 희생사건 (1950. 8. 19.)	병합
59	마-243	2005. 12. 21.	김춘태 (4)	김경희 (金京希)	남 (31)	아버지		

나. 신청내용

신청인 이승화 등 49명은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 전라남도 완도지역에서 발생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요청하였다. 이에 신청인이 제출한 진실규명신청서를 검토하고 신청인 진술조사를 진행하여 신청내용을 확인하였다.¹³⁾ 신청인 명단 및 주요 진술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신청인 명단 및 주요 진술내용

연 번	조사결과 사건명	사건번 호	신청인 (당시 나이)	사건인지 과정	주요 진술내용
군외면(진실규명신청사건 1건)					
1	군외면 황진리 이원춘 희생사건 (1950. 9. 14.)	마- 871	이승화 (1951년 출생)	전문 (가족에게 들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0. 9. 14.(음 8. 3.), 신청인의 아버지 이원춘(이명 이심천)은 군외면 황진리 중리마을 앞 갯벌 독에서 야경을 서다가 해남군에서 완도로 진주해오는 인민군이 쏜 총에 맞아 희생당했음. 이원춘의 시신은 수습됐음.
완도읍(진실규명신청사건 8건)					
2	완도읍 군내리 완도내무서 희생사건 (1950. 9. 30.)	마- 935	최동주 (21)	연행과정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 최동주의 아버지 최윤신은 신지면 동촌리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끌려간 후, 1950. 9. 30.(음 8. 19.), 완도읍 군내리 주도 앞바다에서 손발이 줄로 묶인 채 총에 맞고 바다에

13) 신청인 총 49명 중 3명에 대해서는 진술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신청인 최동주(마-935)는 사망하여 그의 부인 조남금이 대신 진술조사에 참여하였고, 신청인 차충분(마-9308)은 건강이 좋지 않아 그의 부인 김경자가 대신 진술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신청인 김홍진(마-3704)은 진실규명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외에 더 이상 아는 것이 없다는 이유로 진술조사를 거부하였다.

제 3 권

연 번	조사결과 사건명	사건번 호	신청인 (당시 나이)	사건인지 과정	주요 진술내용
2	완도읍 군내리 완도내무서 희생사건 (1950. 9. 30.)		조남금 (20)	시신목격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최윤신의 시신은 수습됐음.
		마- 6120	김상록 (14)	전문 (가족에게 들음)	• 신청인의 작은아버지 김복길은 신지면 신상리에서 지방좌 익에 의해 끌려갔고, 이후 1950. 9. 30.(음 8. 19.), 완도읍 군내리 주도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김복길의 시신은 수습됐음.
		마- 7277	최영옥 (2)	전문 (가족에게 들음)	• 신청인의 아버지 최경춘은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고금 분주소로 끌려갔고 다시 완도내무서로 끌려가 감금되었다가 1950. 9. 30.(음 8. 19.), 완도읍 군내리 주도 앞바다에 수장되 어 희생당했음. 최경춘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했음.
		마- 7652	황중채 (10)	전문 (가족에게 들음)	• 신청인의 아버지 황래봉은 노화읍 도청리에서 완도읍으로 피난갔다가 완도읍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완도내무서로 끌려가 감금되었고, 1950. 9. 30.(음 8. 19.), 완도읍 군내리 주도 앞바 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황래봉의 시신은 수습됐음.
		마- 6762	황중길 (11)	연행과정 목격	• 신청인의 아버지 황세봉은 노화읍 도청리에서 완도읍으로 피난갔다가 완도읍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완도내무서로 끌려가 감금되었고, 1950. 9. 30.(음 8. 19.), 완도읍 군내리 주도 앞바 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황세봉의 시신은 수습됐음.
		마- 7653	임진일 (10)	전문 (가족에게 들음)	• 신청인의 아버지 임남선(이명 임흥태)은 노화읍 도청리에 거주하다가 동생들과 함께 완도읍으로 피신했으나 완도읍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완도내무서로 끌려가 감금되었다가 1950. 9. 30.(음 8. 19.), 완도읍 군내리 주도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 했음. 임남선의 시신은 수습됐음.
		마- 7654	김용인 (12)	연행과정 목격	• 신청인의 아버지 김길순은 노화읍 도청리에 거주하다가 완 도읍 중도리로 피신했으나 완도읍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완도내 무서로 끌려가 감금되었다가 1950. 9. 30.(음 8. 19.), 완도읍 군내리 주도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김길순의 시신은 수습됐음.
		마- 10714	김재옥 (10)	전문 (가족에게 들음)	• 신청인의 아버지 김경석, 작은 아버지 김경안·김국흠은 소안면 황간리를 떠나 청산도로 피신했다가 다시 완도읍으로 피신했으나 완도읍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완도내무서로 끌려가 감금되었다가 1950. 9. 30.(음 8. 19.), 완도읍 군내리 주도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김경석, 김경안, 김국흠의 시신 은 수습됐음.

고금면(진실규명신청사건 3건)

3	고금면 청학리 박태규 희생사건 (1950. 9. 5.)	마- 3079	박종술 (5)	전문 (가족에게 들음)	• 1950. 9. 5.(음 7. 23.), 신청인의 아버지 박태규는 고금면 청학리 부둣가에서 야경을 서다가 강진군 마량면에서 고금면으 로 진주하려던 인민군이 쏜 총에 맞아 희생당했음. 박태규의 시신은 수습됐음.
---	---	------------	------------	--------------------	---

제 1 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 번	조사결과 사건명	사건번 호	신청인 (당시 나이)	사건인지 과정	주요 진술내용
4	고금면 가교리 황복윤 희생사건 (1950. 9. 15.)	마- 10727	황춘봉 (5)	전문 (가족에게 들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0. 9. 15.(음 8. 4.) 새벽, 신청인의 아버지 황복윤(이명 황의연)은 고금면 가교리 부둣가에서 야경을 서다가 강진군 마량면에서 고금면으로 진주해오는 인민군이 쏜 총에 맞아 희생당했음. 황복윤의 시신은 수습됐음.
5	고금면 덕동리 덕동분주소 희생사건 (1950. 9. 17.~30.)	마- 4197	오광재 (11)	연행과정 목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의 작은아버지 오병석은 고금면 화성리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덕동분주소로 끌려갔고, 1950. 9. 17.(음 8. 6.), 손발이 묶이고 돌에 매달린 채 대창에 찢려 고금면 덕동리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오병석의 시신은 수습됐음.

약산면(진실규명신청사건 22건)

6	약산면 득암리 최윤열 희생사건 (1948. 5. 9.)	마- 9300	최정순 (8)	전문 (가족에게 들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48. 5. 9.(음 4. 1.), 신청인의 친척 최윤열은 약산면 득암리에서 자택에 침입한 지방좌익이 쏜 총에 맞아 희생당했음. 최윤열의 시신은 수습됐음.
7	약산면 장용리 약산분주소 희생사건 (1950. 9. 19.~30.)	마- 9302	최대용 (1957년 출생)	전문 (가족에게 들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의 할아버지 최규린은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약산분주소로 끌려갔고, 1950. 9. 19.(음 8. 8.), 약산면 장용리 대죽도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최규린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했음.
		마- 9312	송이섭 (13)	연행과정 목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의 작은아버지 송복윤은 지방좌익에 의해 약산분주소로 끌려가 그곳에 감금되었고, 1950. 9. 19.(음 8. 8.), 손발이 묶인 채 약산면 장용리 대죽도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송복윤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했음.
		마- 772	정영준 (9)	전문 (가족에게 들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의 아버지 정평균은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약산분주소로 끌려가 그곳에 감금당하였고, 1950. 9. 21.(음 8. 10.), 약산면 장용리 대죽도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정평균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했음.
		마- 9314	윤사현 (11)	연행과정 목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의 형 윤세창(이명 윤방현)은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약산분주소로 끌려가 감금되었고, 1950. 9. 21.(음 8. 10.) 장용리 대죽도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윤세창의 시신은 수습됐음.
		마- 8912	안향순 (2)	전문 (가족에게 들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의 처조부(妻祖父) 최응열은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끌려가던 중 탈출하여 마을 아산에 며칠간 숨어 있다가 자수하여 약산분주소에 감금되어 있다가 1950. 9. 27.(음 8. 16.), 장용리 대죽도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최응열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했음.
		마- 9307	최재규 (12)	연행과정 목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의 작은아버지 최병태는 자수하면 살려준다는 말에 따라 약산분주소로 가 자수하였고 그곳에 감금되었다가 1950. 9. 27.(음 8. 16.), 장용리 대죽도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최병태의 시신은 수습됐음.

제 3 권

연 번	조사결과 사건명	사건번 호	신청인 (당시 나이)	사건인지 과정	주요 진술내용
7	약산면 장용리 약산분주소 희생사건 (1950. 9. 19.~30.)	마- 9309	최현 (10)	전문 (가족에게 들음)	• 신청인의 할아버지 최병호는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약산분주소로 끌려갔고, 1950. 9. 27.(음 8. 16.), 장용리 대죽도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최병호의 시신은 수습됐음.
		마- 9308	차충본 (9)	전문 (가족에게 들음)	• 신청인 차충본의 아버지 차상근은 지방좌익에 의해 약산분주소로 끌려가 감금되었고, 1950. 9. 27.(음 8. 16.), 장용리 대죽도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차상근의 시신은 수습됐음.
			김경자 (-)		
		마- 749	오영균 (4)	전문 (가족에게 들음)	• 신청인의 아버지 오병천은 마을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약산분주소로 끌려가 감금되었고, 1950. 9. 29.(음 8. 18.), 장용리 대죽도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오병천의 시신은 수습됐음.
		마- 9306	이주환 (10)	전문 (가족에게 들음)	• 신청인의 아버지 이옥룡은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약산분주소로 끌려가 감금되었고, 1950. 9. 29.(음 8. 18.), 장용리 대죽도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이옥룡의 시신은 수습됐음.
		마- 6921	최영규 (7)	시신처리 목격	• 신청인의 아버지 최병원은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약산분주소로 끌려갔고, 1950. 9. 30.(음 8. 19.), 장용리 대죽도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최병원의 시신은 수습됐음.
8	약산면 관산리 송복신, 송정순 희생사건 (1950. 10. 4.)	마- 9310	송이섭 (13)	장흥으로 떠나는 모습 목격	• 신청인의 아버지 송복신, 신청인의 사촌누나 송정순은 약산면이 경찰에 의해 수복되면 모두 희생당할 것이라는 지방좌익의 말에 따라 배를 타고 장흥군 대덕읍 웅암리로 나갔다가 그곳에서 며칠을 보낸 후 1950. 10. 4.(음 8. 23.), 지방좌익에 의해 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송복신의 시신은 수습됐고, 송정순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했음.
		마- 9311	송이섭 (13)	장흥으로 떠나는 모습 목격	
9	약산면 관산리 김옥자, 김태정 희생사건 (1950. 10. 4.)	마- 9305	김옥주 (28)	전문 (가족에게 들음)	• 신청인의 여동생 김옥자, 신청인의 남동생 김태정은 약산면이 경찰에 의해 수복되면 모두 희생당할 것이라는 지방좌익의 말에 따라 배를 타고 장흥군 대덕읍으로 나갔다가 그곳에서 며칠을 보낸 후, 1950. 10. 4.(음 8. 23.), 지방좌익에 의해 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김옥자의 시신은 수습됐고, 김태정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했음.
		마- 9315	김옥주 (28)	전문 (가족에게 들음)	
10	약산면 관산리 최규승 일가 희생사건 (1950. 10. 4.)	마- 8135	최명숙 (6)	전문 (가족에게 들음)	• 신청인의 아버지 최규승은 약산면이 경찰에 의해 수복되면 모두 희생당할 것이라는 지방좌익의 말에 따라 배를 타고 장흥군 대덕읍으로 나갔다가 그곳에서 며칠을 보낸 후 1950. 10. 4.(음 8. 23.), 지방좌익에 의해 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최규승의 시신은 수습됐음.

연 번	조사결과 사건명	사건번 호	신청인 (당시 나이)	사건인지 과정	주요 진술내용
10	약산면 관산리 최규승 일가 희생사건 (1950. 10. 4.)	마- 9300 -1	최정순 (8)	전문 (가족에게 들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의 친척 최규칠, 최근호는 약산면이 경찰에 의해 수복되면 모두 희생당할 것이라는 지방좌익의 말에 따라 배를 타고 장흥군 대덕읍으로 나갔다가 그곳에서 며칠을 보낸 후 1950. 10. 4.(음 8. 23.), 지방좌익에 의해 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최규칠, 최근호의 시신은 수습됐음.
		마- 9303	최대용 (1957년 출생)	전문 (가족에게 들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의 삼촌 최경호는 약산면이 경찰에 의해 수복되면 모두 희생당할 것이라는 지방좌익의 말에 따라 배를 타고 장흥군 대덕읍으로 나갔다가 그곳에서 며칠을 보낸 후 1950. 10. 4.(음 8. 23.), 지방좌익에 의해 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최경호의 시신은 수습됐음.
		마- 9304	최대용 (1957년 출생)	전문 (가족에게 들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의 삼촌 최철호는 약산면이 경찰에 의해 수복되면 모두 희생당할 것이라는 지방좌익의 말에 따라 배를 타고 장흥군 대덕읍으로 나갔다가 그곳에서 며칠을 보낸 후 1950. 10. 4.(음 8. 23.), 지방좌익에 의해 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최철호의 시신은 수습됐음.
		마- 9313	최규향 (13)	장흥으로 떠나는 모습 목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의 형 최규실은 약산면이 경찰에 의해 수복되면 모두 희생당할 것이라는 지방좌익의 말에 따라 배를 타고 장흥군 대덕읍으로 나갔다가 그곳에서 며칠을 보낸 후 1950. 10. 4.(음 8. 23.), 지방좌익에 의해 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최규실의 시신은 수습됐음.
		마- 6261	최정순 (8)	전문 (가족에게 들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의 어머니 황연례, 첫째오빠 최원호, 셋째오빠 최인호, 여동생 최정숙, 집사이들 차호기는 약산면이 경찰에 의해 수복되면 모두 희생당할 것이라는 지방좌익의 말에 따라 배를 타고 장흥군 대덕읍으로 나갔다가 그곳에서 며칠을 보낸 후 1950. 10. 4.(음 8. 23.), 지방좌익에 의해 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최원호, 최인호, 차호기의 시신은 수습됐고, 황연례, 최정순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했음.

금당면(진실규명신청사건 4건)

11	금당면 차우리 송태원 수장사건 (1950. 9. 10.)	마- 167	송동열 (12)	연행과정 목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의 아버지 송태원(이명 송계원)은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금당분주소로 끌려갔다가 1950. 9. 10.(음 7. 28.), 배에 태워져 차우리 목섬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송태원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했음.
12	금당면 차우리 전순규 희생사건 (1950. 9. 16.)	마- 5741	전중보 (1)	전문 (가족에게 들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0. 9. 16.(음 8. 5.), 신청인의 아버지 전순규는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끌려 나가 자택 부근 길거리에서 칼에 찔려 희생당했음. 전순규의 시신은 수습됐음.

제 3 권

연 번	조사결과 사건명	사건번 호	신청인 (당시 나이)	사건인지 과정	주요 진술내용
13	금당면 가학리 김영배 희생사건 (1950. 9. 19.)	마- 3704	김홍진 (1958년 출생)	전문 (가족에게 들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0. 9. 19.(음 8. 8.), 신청인의 작은아버지 김영배(이명 김천두)는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끌려 나가 마을우물 부근에서 구타당하여 희생당했음. 김영배의 시신은 수습됐음.
14	금당면 봉동리 송일섭 희생사건 (1950. 9. 27.)	마- 5746	송기정 (7)	전문 (가족에게 들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0. 9. 26.(음 8. 15.), 신청인의 아버지 송일섭은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금당면분주소로 끌려갔다가 풀려났으나, 이튿날인 1950. 9. 27.(음 8. 16.) 저녁, 다시 지방좌익에 의해 봉동리 바닷가로 끌려가 몽둥이로 구타당하여 희생당했음. 송일섭의 시신은 수습됐음.

금일읍(진실규명신청사건 9건)

15	금일읍 화목리 금일분주소 희생사건 (1950. 9. 17~24.)	마- 944	방상현 (19)	연행과정 목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의 아버지 방정순은 1950. 9. 15.(음 8. 4.)경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금일분주소로 끌려갔다가 풀려났으나, 다시 1950. 9. 17.(음 8. 6.), 지방좌익에 의해 끌려가 화목리 치끝 앞바다에서 총에 맞고 칼에 찔린 후 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방정순의 시신은 수습됐음.
		마- 2413	이계성 (22)	전문 (가족에게 들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의 장인 김종준은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금일분주소로 끌려갔고, 1950. 9. 17.(음 8. 6.), 화목리 치끝 앞바다에서 손이 줄로 묶인 채 총살당한 후 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김종준의 시신은 수습됐음.
		마- 2415	구종성 (1)	전문 (가족에게 들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의 할아버지 구기표(이명 구판동)는 지방좌익에 의해 금일분주소로 끌려가 감금되었고, 1950. 9. 17.(음 8. 6.), 화목리 치끝 앞바다에서 총에 맞은 후 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구기표의 시신은 수습됐음.
		마- 10716	천부기 (1954년 출생)	전문 (가족에게 들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의 큰아버지 천병택은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금일분주소로 끌려가 감금되었고, 1950. 9. 17.(음 8. 6.), 화목리 치끝 앞바다에서 총에 맞은 후 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천병택의 시신은 수습됐음.
		마- 10741	김성배 (4)	전문 (가족에게 들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의 아버지 김중식은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금일분주소로 끌려갔다가 1950. 9. 17.(음 8. 6.), 화목리 치끝 앞바다에서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김중식의 시신은 수습됐음.
		마- 2412	이계성 (22)	전문 (가족에게 들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의 처의 친척 한동섭은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금일분주소로 끌려갔다가 풀려났다가 며칠이 지난 후 다시 지방좌익에 의해 끌려나갔고, 1950. 9. 18.(음 8. 7.), 화목리 치끝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한동섭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했음.

제 1 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 번	조사결과 사건명	사건번 호	신청인 (당시 나이)	사건인지 과정	주요 진술내용
15	금일읍 화목리 금일분주소 희생사건 (1950. 9. 17~24.)	마- 7892	한초임 (9)	연행과정 목격, 시신목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의 아버지 한동용은 지방좌익에 의해 금일분주소로 끌려갔다가 풀려났으나 다시 지방좌익에 의해 끌려가던 도중 도망쳤음. 이후 한동용은 월송리 등에 숨어 있다가 지방좌익에게 소재가 발각되어 금일분주소로 끌려갔고 약 1주일 후인 1950. 9. 24.(음 8. 13.), 화목리 치골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한동용의 시신은 수습됐음.
16	금일읍 화목리 정현우 희생사건 (1950. 9. 20.)	마- 946	정안석 (5)	전문 (가족에게 들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0. 9. 20.(음 8. 9.), 신청인의 아버지 정현우는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금일읍사무소 앞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인민재판을 받은 후 칼로 목이 베이고 총에 맞아 희생당했음. 정현우의 시신은 수습됐음.
17	금일읍 일정리 김종명 희생사건 (1950. 9. 22.)	마- 2411	이계성 (22)	전문 (가족에게 들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0. 9. 22.(음 8. 11.), 신청인의 처삼촌 김종명은 친척 김중훈(이명 김종관)과 함께 지방좌익에 의해 금일읍 일정리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김종명, 김중훈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했음.

소안면(진실규명신청사건 7건)

18	소안면 황간리 김복흥 등 5명 희생사건 (1949. 4. 15.)	마- 3865	김상배 (9)	전문 (가족 및 마을주민 에게 들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49. 4. 15.(음 3. 17.), 신청인 김상배의 아버지 김복흥, 신청인 김재봉의 아버지 김민채, 신청인 윤선희의 시아버지 김용관, 신청인의 시작은아버지 장남동,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박일섭은 황간도에 수장한 사람이 나타나 이를 소안면 지서에 신고하러 배를 타고 나갔음. 며칠이 지난 후, 노획음 동고리 앞바다에서 이들이 타고 나갔던 배, 신발, 옷만 발견되고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음. 김복흥, 김민채, 김용관, 장남동, 박일섭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했음.
		마- 3866	김재봉 (9)		
		마- 3867	윤선희 (5)		
		마- 3869	이영애 (6)		
19	소안면 황간리 앞바다 희생사건 (1950. 8. 14.)	마- 3872	정복자 (13)	전문 (가족에게 들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의 시아버지 김철구는 1950. 8. 14.(음 7. 1.) 밤, 지방좌익에 의해 소안면 황간리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음. 김철구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했음. 신청인의 시아주버니 김용재는 1950. 8. 14.(음 7. 1.)에 지방좌익에 의해 구타당한 후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1951. 4. 22.(음 3. 17.) 사망하였음.
		마- 10737	김광식 (11)	전문 (가족에게 들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의 아버지 김석노는 1950. 8. 11.(음 6. 28.)경, 지방좌익에 의해 황간초등학교로 끌려가 그곳에 감금되었다가 1950. 8. 14.(음 7. 1.) 밤, 황간리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김석노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했음.
20	소안면 이월리 김석만 희생사건 (1950. 9월 말)	마- 3857	김현수 (11)	연행과정 목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0. 9월 말, 신청인의 형 김석만은 선주(船主) 김용연과 함께 지방좌익의 지시에 따라 소안면 월항리에서 배를 타고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로 갔고, 그곳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김석만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했음.

제 3 권

연 번	조사결과 사건명	사건번 호	신청인 (당시 나이)	사건인지 과정	주요 진술내용
노화읍(진실규명신청사건 5건)					
21	노화읍 이포리 황준봉 희생사건 (1950. 8. 10.)	마- 7133	황종국 (1951년 출생)	전문 (가족에게 들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0. 8. 10.(음 6. 27.), 신청인의 아버지 황준봉은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끌려 나갔고, 노화읍 이포리에서 희생당했음. 황준봉의 시신은 수습됐음.
22	노화읍 이포리 서창호 희생사건 (1950. 8. 11.)	마- 4382	양율이 (15)	전문 (가족에게 들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0. 8. 11.(음 6. 28.) 오후, 신청인의 장인 서창호는 자택에서 인민군 2명에 의해 노화읍 이포리 부둣가로 끌려가 그곳에서 총살당했음. 서창호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했음.
23	노화읍 동천리 고종엽 희생사건 (1950. 8. 11.)	마- 348-1	손영운 (11)	전문 (가족에게 들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0. 8. 11.(음 6. 28.), 신청인의 어머니 고종엽은 남편 손남석을 풀어준다는 지방좌익의 말에 따라 돈을 준비해 지방좌익과 함께 배를 타고 노화분주소로 가던 중 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고종엽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했음.
24	노화읍 이포리 농협창고 희생사건 (1950. 8. 19.)	마- 348	손영운 (11)	전문 (가족에게 들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의 아버지 손남석(이명 손종석)은 지방좌익에 의해 노화읍 이포리 농협창고로 끌려가 그곳에 감금되었다가 1950. 8. 19.(음 7. 6.), 해남군 송지면(現 현산면) 월송리로 끌려가 그곳 야산에서 희생당했음. 손남석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했음.
		마- 243	김춘태 (4)	전문 (가족에게 들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의 아버지 김경희(이명 김덕이)는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노화읍 이포리 농협창고로 끌려가 그곳에 감금되었다가 이후 1950. 8. 19.(음 7. 6.), 노화읍에서 해남군 송지면(現 현산면) 월송리로 끌려가 그곳 야산에서 희생당했음. 김경희의 시신은 수습됐음.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5호는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전라남도 완도지역에서 발생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을 조사하여 희생사건의 발생 시기와 장소, 희생자 수,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사실 여부, 가해 주체 및 이유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과거와의 화해와 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하였다.

3. 규명과제

첫째, 사건 발생 시기·장소 및 희생자 수를 규명한다.

둘째,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사실을 규명한다.

셋째, 사건의 가해주체 및 가해이유를 규명한다.

4. 조사방법

본 사건의 조사를 위해 관련 문헌자료를 검토하였고, 관련기관 자료를 검색 및 수집하였다. 그리고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였다.

가. 문헌자료 조사

문헌자료 조사는 사건 관련 선행연구와 각종 명부, 신문기사,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등을 수집 및 검토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가보훈처 및 완도지역 읍·면사무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후 그 결과를 확인하였다.

문헌자료 조사는 먼저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¹⁴⁾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좌익활동에 대한 연구,¹⁵⁾ 전라남도 및 완도군에 대한 연구¹⁶⁾ 등을 검토하여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 완도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였다.

둘째, 한국전쟁 관련 희생자 명부인 『6·25사변 피살자명부』¹⁷⁾,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¹⁸⁾, 『6·25사변 피납치자명부』¹⁹⁾, 『거제도 포로 수용자 DB』²⁰⁾ 등에 진실규명

1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1, 2001;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 연구(하)』, 역사비평사, 1999; 전남지방경찰청, 『전남경찰사』, 1992;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2, 실천문화사, 1991.

15) 정관호, 『전남유격투쟁사』, 선인, 2008; 안종철, 『전남지역 인민위원회의의 성격에 관하여』, 『역사비평』19호, 역사비평사, 1991; 이태, 『남부군』, 두레, 1988.

16) 완도군항일운동기념사업회, 『완도군 항일운동사』, 2000;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전라남도지』, 1993; 완도군지편찬위원회, 『완도군지(莞島郡誌)』, 1992; 김석학, 임종명, 『얼룩진 다도해 ⑧』, 『광복30년』4, 전남일보, 1975.

17) 공보처통계국, 『6·25사변 피살자명부(6·25事變 被殺者名簿)』, 1952. 이 명부는 한국전쟁 중 인민군과 좌익에게 학살된 민간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로, 희생자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피살연월일, 피살장소, 본적, 주소 등 8개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18) 청우회,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全國殉國反共靑年運動者名簿)』(전라남도), 1964.

19) 공보처통계국, 『6·25사변 피납치자명부(6·25事變 被拉致者名簿)』, 1952·1954. 이 명부는 휴전회담 당시 북한 측에 제출할 문서로 작성되었으며, 피해자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소속, 직위, 납치연월일, 납치장소, 주소 등 8개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2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http://www.imhc.mil.kr>)에서 거제도포로수용자DB 검색.

대상자 및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의 희생사실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다.

셋째, 동아일보에서 1950년을 전후한 시기의 완도지역 관련 기사를 검색·수집하여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 완도군의 상황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넷째, 국가기록원에서 완도군에서 활동했던 지방좌익의 판결문, 수형인명부 등을 검색·수집하여 1950년을 전후한 시기 완도지역 좌익세력의 활동상황을 파악하였다.

다섯째, 국가보훈처 등 관공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였다. 국가보훈처에는 진실규명대상자의 국가유공자 등록여부 결과를 요청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진실규명대상자가 없음을 확인하였다.²¹⁾ 전남지방경찰청에는 경찰재직 경력이 있는 진실규명대상자의 재직경력증명서 등을 요청하였으나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²²⁾ 그리고 완도군청에 『6·25사변 피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완도지역 희생자의 제적사항 및 유가족 확인을 요청하여 명부에 등재된 희생자 중 2명의 제적사항을 확인하였다.²³⁾ 그 외 완도군 각 읍·면사무소에 진실규명대상자 및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제적등본을 요청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²⁴⁾

그리고 현재까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발표한 타 지역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및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 진실규명 및 진실규명불능결정서도 참고하였다. 특히 「나주경찰부대 사건」 진실규명결정서(2007. 10. 23.),²⁵⁾ 「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서(2009. 2. 16.),²⁶⁾ 「전남 서남부지역(장흥·강진·해남·완도·진도) 민간인 희생사건」 진

2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여부 확인 의뢰」, 진실화해위원회, 2009. 7. 13.; 「국가유공자 등록사항 확인 통보」, 국가보훈처장, 2009. 7. 21.

22) 「인사기록 협조요청」, 진실화해위원회, 2009. 9. 25.; 「요구자료 통보」,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2009. 10. 1.

23) 「전남지역 피살자 명부 사실유무 대조 확인 및 제적부 발급 요청」, 진실화해위원회, 2009. 10. 14.; 「전남지역 피살자명부 사실유무 대조 확인 결과 통보」, 완도군수, 2009. 11. 9. 제적사항이 확인된 희생자 2명은 정역천, 박사은이다. 이들은 모두 참고인 진술조사와 제적등본을 통해 인적사항 및 희생사실이 확인되어 본 결정서에서 희생자로 확인되었다.

24) 2009. 9. 3.~10. 27.에 완도군 군외면사무소, 완도읍사무소, 고금면사무소, 약산면사무소, 금일읍사무소, 소안면사무소, 노화읍사무소에 제적등본 발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에 대한 회신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적등본 송부」, 소안면사무소, 2009. 9. 4.; 「제적등본 발급 통보」, 약산면사무소, 2009. 9. 4.; 「제적등본 발급 협조 회신」, 군외면사무소, 2009. 9. 28.; 「제적등본 및 재직경력증명서 확인 사항 통보」, 노화읍사무소, 2009. 9. 28.

25) 「나주경찰부대 사건」,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07, 123~282쪽. 이 사건은 해남 및 완도지역 주민 96명이 1950. 7월 하순, 전남 해남군 해남읍, 마산면 상동리·화내리, 현산면 일평리, 완도군 완도읍, 소안면 비자리, 노화읍 이포리 등지에서 후퇴 중이던 나주경찰부대 및 완도 경찰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살해되었음을 진실규명한 사건이다.

26) 「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541~680쪽. 이 사건은 완도지역 주민 251명이 1947. 5. 1. 메이데이 집회 후부터 한국전쟁 발발 후 인민군 진입 전까지 그리고 1950. 10월 초순 완도지역 수복 후에 경찰과 의용경찰 등에게 좌익 혹은 부역자라는

실규명 및 진실규명불능결정서(2009. 4. 6.)²⁷⁾는 1950년을 전후한 시기 완도지역에서 발생했던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조사결과로,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 완도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고, 완도지역에서 발생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을 조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었다.

나. 참고인 진술조사

신청인 진술조사를 진행한 후, 참고인 진술조사를 진행하여 신청인 진술 및 문헌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시기, 장소 등을 파악하였다.²⁸⁾

참고인 진술조사는 사건의 실재여부 확인 및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사실여부 확인, 한국전쟁 당시 완도지역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참고인 선정은 신청인이 추천한 참고인, 현재 완도군에 거주하는 1920~1940년대 출생자 중 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완도지역에 거주하는 참고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참고인 진술조사 과정에서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이 되지 않은 희생자를 인지하기도 하였는데, 희생자의 유가족이 사건조사 진행을 동의하였거나 제적등본을 통해 희생자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그 결과를 본 결정서에 포함하였다.²⁹⁾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사를 통해 확보된 진술 중, 희생자의 연행 및 희생과정, 희생자의 시신수습 및 시신처리과정을 경험하였거나 목격한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조사 결과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였다. 그러나 진술내용이 전문(傳聞)일지라도 희생자의 연행

이유로 집단희생되었음을 진실규명한 사건이다.

27) 『전남 서남부지역(장흥·강진·해남·완도·진도) 민간인 희생사건』,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459~564쪽. 이 사건은 전남 서남부지역 주민 70명이 1945. 8. 15.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까지 경찰 및 우익단원, 그리고 토벌대에게 좌익 및 부역혐의로 집단희생되었음을 진실규명한 사건이다. 그리고, 전남 서남부지역 주민 72명이 1945. 8. 15.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까지 경찰을 피해 도망 다니던 중 행방불명 또는 희생되거나 수복 후 피난 간 후 토벌대에게 피살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그들이 불법적인 공권력행사로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밝히지 못하여 진실규명 불능한 사건이다.

28)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사 형태는 진술조서, 전화면담으로 구분하였다. 진술조서는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7호, 제18호의 서식(조사대상자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에 따라 작성된 문서이다. 전화면담은 조사관이 진술인의 녹음·녹화 동의서 작성 없이 전화통화를 한 후 그 내용을 정리하여 진실화해위원회 전결규정에 따라 보고한 문서이다.

29) 참고인 진술조사 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는 ‘완도읍 군내리 완도내무서 희생사건’, ‘고금면 덕동리 덕동분주소 희생사건’, ‘약산면 장용리 약산분주소 희생사건’, ‘금일읍 화목리 금일분주소 희생사건’, ‘금일읍 일정리 김종명 희생사건’, ‘소안면 횡간리 김복홍 등 5명 희생사건’, ‘노화읍 이포리 농협창고 희생사건’의 희생자이다. 그 외 참고인 진술조사 과정에서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사건을 인지하기도 하였는데, ‘노화읍 등산리 천중남 희생사건’이 그것이다.

제 3 권

및 희생과정, 희생자의 시신수습 및 시신처리과정을 경험하였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직접 관련 내용을 전해들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사결과에 반영하였다.

다음의 <표 3>은 참고인 명단과 주요 진술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³⁰⁾

〈표 3〉 참고인 명단 및 주요 진술내용

연 번	사건명 (진실규명 대상자, 사건번호)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性,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형태 (진술일자)	
군외면							
1	군외면 황진리 이원춘 희생사건 (이원춘, 마-871)	○○○ (女, 26)	군외면 황진리 중리마을	전문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9.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사항: 이명 이심천, 농업• 희생시기: 1950. 9월 중순• 희생장소: 중리마을 앞 갯벌 독• 희생과정: 이원춘은 마을 앞 갯벌을 둘러싸고 있는 독에서 야경을 서다가 해남군에서 완도군으로 진주하는 인민군이 쏜 총에 맞아 희생당했음.• 시신수습: 이원춘의 부인, 마을주민들이 수습했음.
		○○○ (男, 22)	- (한국전쟁 참전)	전문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9. 13.)	
완도읍							
2	완도읍 군내리 완도내무서 희생사건 (최윤신, 마-935)	○○○ (男, 26)	신지면 동촌리	전문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사항: 농업, 이장 경력• 희생장소: 완도읍 군내리 주도 앞바다• 희생과정: 최윤신은 지방좌익에 의해 신지분주소로 끌려갔다가 다시 완도읍내무서로 끌려가 그곳에 감금되었고, 이후 완도읍 주도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시신수습: 유가족이 완도읍 앞바다에서 수습했음. 수습당시 몸이 전깃줄로 묶여 있었다고 함.• 제사일: 음 8. 18.• 그 외 희생자: 조성삼
		○○○ (男, 13)	신지면 동촌리	전문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30.)	

30) 참고인의 사건인지과정은 진술내용에 따라 참고인이 희생자가 끌려가는 과정을 인지한 경우에는 ‘연행과정 목격’으로, 희생자의 감금상황을 목격한 경우에는 ‘감금목격’으로, 희생과정을 목격한 경우에는 ‘희생과정 목격’으로, 참고인이 희생과정을 직접 겪은 경우에는 ‘희생과정 경험’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참고인이 희생자의 시신을 수습한 경우에는 ‘시신수습’으로, 시신을 목격한 경우에는 ‘시신목격’으로 표현하였다. 그 외에 참고인의 진술내용에 따라 ‘감금인지’, ‘희생과정 인지’, ‘시신처리’, ‘시신처리 목격’, ‘장흥으로 떠나는 모습 목격’ 등으로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사항에 대해 참고인 본인이 직접 경험 또는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희생자의 유가족이나 마을주민들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해 들었거나 또는 훗날 관련 내용을 전해 들어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문(傳聞)’으로 표현하였다.

연 번	사건명 (진실규명 대상자, 사건번호)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性,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형태 (진술일자)	
2	완도읍 군내리 완도내무서 희생사건 (최윤신, 마-935)	○○○ (男, 15)	신지면 동촌리	전문	일가	진술조서 (2009. 7.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사항: 농부 희생장소: 완도읍 주도 앞바다 희생과정: 최윤신은 지방작업에 의해 신지분주소로 끌려갔다가 다시 완도내무서로 끌려갔고, 이후 완도읍 주도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시신수습: 유가족이 완도읍 앞바다(현 완도항)에서 수습했음.
	완도읍 군내리 완도내무서 희생사건 (김복길, 마-6120)	○○○ (女, 22)	신지면 신상리	전문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9.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사항: 농업, 부유한 편 희생시기: 1950. 9월 말경 희생과정: 김복길은 완도읍 주도 부근 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시신수습: 유가족이 수습했음.
		○○○ (男, 23)	신지면 신상리	전문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9. 13.)	
	완도읍 군내리 완도내무서 희생사건 (최경춘, 마-7277)	○○○ (女, 26)	고금면 가교리	연행과정 목격	부인	진술조서 (2009. 8.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사항: 의경 희생과정: 최경춘은 자택에서 지방작업에 의해 끌려갔고, 이후 완도내무서로 끌려가 그곳에 갇혀 있다가 완도읍 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시신수습: 수습 못했음. 제사일: 음 8. 18.
		○○○ (女, 17)	고금면 가교리	전문	친척	진술조서 (2009. 8.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경춘의 인적사항: 의경 희생과정: 최경춘은 추석 이전, 자택에서 지방작업에 의해 끌려갔고, 이후 완도내무서로 끌려가 갇혀 있다가 완도읍 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시신수습: 수습 못했음. 제사일: 음 8. 18.
		○○○ (男, 26)	완도읍 군내리	감금목격	고금면 주민	진술조서 (2009. 9.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금상황: 최경춘이 완도내무서에 감금당해 있는 모습을 목격했음.
	완도읍 군내리 완도내무서 희생사건 (황세봉, 마-6762, 황래봉, 마-7652, 임남선, 마-7653, 김길순, 마-7654)	○○○ (男, 21)	노화읍 도청리	희생과정 경험 生還	임남선- 동생, 황세봉, 황래봉, 김길순-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8.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남선의 인적사항: 농업, 대한청년단원 황세봉, 황래봉의 인적사항: 농부 김길순의 인적사항: 노화면사무소 부면장 희생시기: 1950. 9. 30.(음 8. 19.) 희생장소: 완도읍 주도 앞바다 희생과정: 1950. 9. 30. 저녁 6시경, 완도내무서 유치장에 갇혀있던 43명은 인민군, 지방작업들에 의해 한명씩 호명되어 차례대로 두 손이 전깃줄로 묶였음. 이후 완도읍 항(現 여객선

제 3 권

연 번	사건명 (진실규명 대상자, 사건번호)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형태 (진술일자)	
2	완도읍 군내리 완도내무서 희생사건 (황세봉, 마-6762, 황래봉, 마-7652, 임남선, 마-7653, 김길순, 마-7654)						터미널)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배에 태워져 주도 앞바다로 갔음. 인민군, 지방좌익들은 배에서 사람 4명당 돌 3개씩을 매달아 사람들을 바다로 밀었는데, 물 위로 머리가 보이는 사람에게 는 총을 쏘음. 나는 바다에 빠졌으나 손에 묶인 줄이 풀려 해엄을 쳐서 육지에 도착해 생존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신수습: 임남선, 황세봉, 황래봉, 김길순의 시신이 모두 수습됐음. • 제사일: 음 8. 18. • 가해주체: 인민군, 지방좌익
		○○○ (남, 20)	완도읍 중도리	전문	완도읍 주민	진술조서 (2009. 9.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과정: 희생자들은 완도내무서에 갇혀 있다가 끌려나와 완도읍 군내리에서 배에 태워져 주도 앞바다로 끌려가 그곳에서 두 손이 전깃줄로 묶이고 돌이 매달려진 채 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 희생자: 김길순은 완도내무서로 자수하러 갔다가 그곳에 감금되었고, 이후 희생당했음. • 생존자: 최상수, 박창제, 문관식 등 약 7명으로, 이들은 생활계를 조직하여 자주 만나곤 했었음. 현재는 모두 사망하였음. ※ 現 완도지역 향토사학자, 국사편찬위원회 사료편찬위원, 前 완도문화원장
		○○○ (男, 18)	노화읍 도청리	전문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9.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과정: 완도읍 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 희생자: 임남선, 황세봉, 황래봉, 김길순 ▶임남선 관련 진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남선의 인적사항: 이명 임홍태, 농업, 부유한 편 • 시신수습: 임남선의 동생이 수습했음. ▶황세봉, 황래봉 형제 관련 진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세봉, 황래봉의 인적사항: 농업, 부유한 편 • 시신수습: 유가족이 수습했음. ▶김길순 관련 진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길순의 인적사항: 노화면사무소 근무 • 시신수습: 유가족이 수습했음.

연 번	사건명 (진실규명 대상자, 사건번호)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형태 (진술일자)	
2	완도읍 군내리 완도내무서 희생사건 (김경석, 김경안, 김국흠, 마-10714)	○○○ (남, 23)	소안면 황간리	전문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8. 8.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사항: 김경석, 김경안, 김국흠은 형제 희생과정: 김경석, 김경안, 김국흠은 인민군 후퇴 당시 완도읍 추섬에서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 (남, 15)	소안면 황간리	전문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8. 8.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생과정: 김경석, 김경안, 김국흠은 완도읍에서 지방좌익에게 붙잡혀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고금면

3	고금면 청학리 박태규 희생사건 (박태규, 마-3079)	○○○ (男, 28)	완도군 고금면	전문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8. 6.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사항: 고금초등학교 교사 희생시기: 1950. 9. 5.(음 7. 23.) 희생장소: 고금면 청학리 선착장 희생과정: 박태규는 고금면 지서의 지시에 따라 2인조로 야경을 서던 중, 강진군 마량면에 주둔해 있던 인민군이 고금면을 점령하기 위해 총공격을 하면서 쏜 총에 맞아 희생당했음. 시신수습: 유가족이 수습했음.
		○○○ (男, 21)	고금면 청룡리	전문	친척	진술조서 (2009. 7.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사항: 고금면 청룡리 거주, 교사 희생과정: 박태규는 1950년에 인민군에 의해 희생당했음.
4	고금면 가교리 황복윤 희생사건 (황복윤, 마-10727)	○○○ (女, 17)	고금면 가교리	시신목격	친척	진술조서 (2009. 8.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사항: 이명 황의연, 농업 희생과정: 황복윤은 고금면 가교리 선착장 부근 방공호에서 야경을 서던 중, 고금면에 인민군이 진주해 오자 도망가다가 인민군이 쏜 총에 맞아 희생당했음. 시신수습: 유가족이 수습했음.
		○○○ (男, 27)	고금면 가교리	전문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사항: 이명 황의연, 농업 희생시기: 1950. 9월 희생장소: 고금면 가교리 선창가 부근 희생과정: 황복윤은 어느 날 밤 가교리 선창가 부근에서 야경을 서다가 인민군이 쏜 총에 맞아 희생당했음. 시신수습: 유가족이 수습했음.
		○○○ (男, 20)	강진군 마량면	전문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사항: 이명 황의연, 농업 희생장소: 고금면 가교리 선창가 부근 희생과정: 황복윤은 가교리 선창가 부근에서 야경을 서다가 인민군이 쏜 총에 맞아 희생당했음. 시신수습: 유가족이 수습했음.

제 3 권

연 번	사건명 (진실규명 대상자, 사건번호)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性,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형태 (진술일자)	
4	고금면 가교리 황복윤 희생사건 (황복윤, 마-10727)	○○○ (男, 24)	고금면 가교리	전문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사항: 이명 황의연, 농업 희생시기: 1950. 9. 15.(음 8. 4.) 희생장소: 고금면 가교리 선창가 부근 희생과정: 황복윤은 9. 15. 새벽, 가교리 선창가 부근 밭(현 고금휴게소)에서 야경을 서다가 고금면에 배를 타고 진주해 온 인민군이 쏜 총에 맞아 희생당했음. 시신수습: 유가족이 수습했음.
5	고금면 덕동리 덕동분주소 희생사건 (오병석, 마-4197, 이찬언, 최몽심- 미신청)	○○○ (女, 26)	고금면 화성리	연행과정 목적, 시신처리	부인	진술조서 (2009. 7.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병석의 인적사항: 경찰 근무 경력 희생시기: 1950. 9. 17.(음 8. 6.) 희생장소: 고금면 덕동리 앞바다 희생과정: 오병석은 자택에서 지방 좌익에 의해 분주소(현 덕동교회 부근)로 끌려갔고 그날 희생당했음. 시신수습: 오병석의 유가족이 덕동리 윤동마을 해남섬 부근 바다에서 시신을 수습했음. 제사일: 음 8. 5. 그 외 희생자: 이찬언
		○○○ (男, 19)	고금면 화성리	전문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병석의 인적사항: 경찰 근무 경력 희생과정: 오병석은 자위대원에 의해 분주소(현 덕동교회 부근)로 끌려가 그곳에서 구타당했고 이후 분주소 부근 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시신수습: 유가족이 고금면 덕동리 총무사 앞에 있는 해남섬에서 수습했음. 그 외 희생자: 이찬언(덕동리 이장)
		○○○ (男, 29)	고금면 덕동리	전문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29.)	<p>▶오병석 관련 진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병석의 인적사항: 경찰 시신수습: 유가족이 수습했음.
		○○○ (女, 20)	신지면 금곡리	전문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29.)	<p>▶이찬언, 최몽심 관련 진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찬언의 인적사항: 농업, 이장 경력 희생과정: 이찬언 부부는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분주소로 끌려갔음. 이찬언은 바로 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고, 최몽심은 좌익들이 후퇴할 때 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시신수습: 이찬언의 시신은 덕동리

연 번	사건명 (진실규명 대상자, 사건번호)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형태 (진술일자)	
5	고금면 덕동리 덕동분주소 희생사건 (오병석, 마-4197, 이찬언, 최몽심- 미신청)						바닷가에서 수습됐음. 최몽심의 시신 은 수습되지 못했음. • 제사일: 이찬언-음 8. 5., 최몽심- 음 8. 18.
		○○○ (남, 17)	고금면 덕동리	전문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4. 11.)	▶오병석 관련 진술내용 • 희생시기: 1950. 9. 17.(음 8. 5.) • 희생과정: 오병석은 지방좌익에게 끌려갔고 이후 고금면 덕동리 마을 앞 해변가에서 시신이 발견됐음.
		○○○ (여, 5)	고금면 덕동리	전문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4. 11.)	▶이찬언, 최몽심 관련 진술내용 • 이찬언의 인적사항: 고금면 지서 후 원회장, 소방대장, 고금면 유지 • 희생시기: 이찬언-1950. 9. 17.(음 8. 6.), 최몽심-1950. 9. 30.(음 8. 19.) • 희생과정: 1950. 9. 17. 이찬언은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끌려갔고, 이후 희생당했음. 최몽심은 9. 30. 지 방좌익에게 끌려간 이후 현재까지 행 방불명임. 수장됐다는 소문을 들었음. • 시신수습: 이찬언의 시신은 수습됐 으나 최몽심의 시신은 못 찾았음. • 제사일: 이찬언-음 8. 5., 최몽심- 음 8. 18. • 가해주체: 지방좌익

약산면

6	약산면 득암리 최윤열 희생사건 (최윤열, 마-9300)	○○○ (男, 14)	약산면 관산리	전문	일가	진술조서 (2009. 7. 28.)	• 인적사항: 지주 • 희생과정: 최윤열은 득암리 지방좌 익에 의해 희생당했음.
		○○○ (男, 18)	약산면 득암리	전문	마을 주민	진술조서 (2009. 7. 28.)	• 인적사항: 마을유지 • 희생과정: 최윤열은 득암리 자택에 서 득암리 지방좌익에 의해 총살당함. • 희생이유: 마을유지, 부유하다는 이유 • 시신수습: 유가족이 수습했음.
		○○○ (男, 22)	약산면 우두리 여동마을	전문	약산면 주민	진술조서 (2009. 9. 17.)	• 인적사항: 지주, 약산면 지주 • 희생시기: 1948년 봄 • 희생장소: 약산면 득암리 자택 • 희생과정: 최윤열은 자택에 침입한 지방좌익에 의해 희생당했음.
		○○○ (男, 28)	전남 보성군	전문	마을 주민	진술조서 (2009. 9. 17.)	• 희생과정: 최윤열은 자택에 침입한 지방좌익에 의해 총살당했음.

제 3 권

연 번	사건명 (진실규명 대상자, 사건번호)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性,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형태 (진술일자)	
7	약산면 장용리 약산분주소	○○○ (여, 11)	약산면 관산리	전문	조카	진술조서 (2009. 9.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과정: 최규린은 최규승 등 일가 족이 희생당하기 전 희생당했음. • 시신수습: 수습 못했음.
	희생사건 (최규린, 마-9302)	○○○ (남, 11)	약산면 관산리	연행과정 목적, 감금인지	마을 주민	전화면담 (2009.1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과정: 최규린은 송복윤과 함께 약산면 관산리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분주소로 끌려갔고, 이후 장용리 대죽 도 앞바다에서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약산면 장용리 약산분주소	○○○ (男, 28)	전남 보성군	전문	마을 주민	진술조서 (2009. 9.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보성경찰 • 희생과정: 송복윤은 경찰이었다는 이유로 지방좌익에 의해 희생당했음.
	약산면 장용리 약산분주소 희생사건 (정평균, 마-772)	○○○ (男, 26)	약산면 장용리 구성마을	전문	일가	진술조서 (2009. 7.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농업 • 희생시기: 1950년 추석 무렵 • 시신수습: 수습 못했음
		○○○ (女, 12)	약산면 장용리 구성마을	전문	일가	진술조서 (2009. 7.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농업 • 희생시기: 1950년 추석 이전 • 희생장소: 장용리 앞바다 • 시신수습: 수습 못했음
		○○○ (男, 11)	약산면 장용리 구성마을	전문	일가	진술조서 (2009. 7.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시기: 1950. 9. 21.(음 8. 10.) • 희생과정: 정평균은 9. 15.이후 약 산분주소로 끌려갔고 장용리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 시신수습: 수습 못했음 • 제사일: 음 8. 9. • 가해주체: 지방좌익
	약산면 장용리 약산분주소	○○○ (男, 13)	약산면 관산리	연행목적	마을 주민	전화면담 (2009. 10.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시기: 1950. 9. 21.(음 8. 10.) • 희생장소: 약산면 장용리 앞바다 • 희생과정: 윤세창은 약산분주소에 끌려갔다가 희생당했음.
	최응열 희생사건 (윤세창, 마-9314)	○○○ (男, 13)	약산면 관산리	연행목적	마을 주민	전화면담 (2009. 10.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시기: 1950. 9. 21.(음 8. 10.) • 희생장소: 약산면 장용리 앞바다 • 희생과정: 윤세창은 약산분주소에 끌려갔다가 희생당했음.
	약산면 장용리 약산분주소	○○○ (女, 19)	약산면 관산리 구암마을	감금인지	며느리	진술조서 (2009. 7.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이장 • 희생시기: 1950. 9. 27.(음 8. 16.) • 희생장소: 약산면 장용리 앞바다 • 희생과정: 최응열과 그의 아들 2명 은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끌려갔 고, 아들 2명은 구타당한 채 집으로 돌
	최응열 희생사건 (최응열, 마-8912)	○○○ (女, 19)	약산면 관산리 구암마을	감금인지	며느리	진술조서 (2009. 7.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이장 • 희생시기: 1950. 9. 27.(음 8. 16.) • 희생장소: 약산면 장용리 앞바다 • 희생과정: 최응열과 그의 아들 2명 은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끌려갔 고, 아들 2명은 구타당한 채 집으로 돌

연 번	사건명 (진실규명 대상자, 사건번호)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性,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형태 (진술일자)	
7							<p>아왔으나, 최응열은 구타당한 후 마을 아산에 피신했다가 분주소로 가서 자수했음. 최응열은 분주소에 약 6일간 감금되었다가 희생당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신수습: 수습 못했음. • 제사일: 음 8. 16.
	<p>약산면 장용리 약산분주소 희생사건 (최병호, 마-9309)</p>	<p>○○○ (男, 14)</p>	약산면 관산리	전문	일가	진술조서 (2009 .7.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관산교회 장로, 농부, 유지 • 희생시기: 1950. 9. 14. 이후 • 희생장소: 장용리 앞바다 • 희생과정: 최병호는 자택에서 지방 좌익에 의해 약산분주소로 끌려갔고, 이후 장용리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 시신수습: 유가족이 수습했음. • 제사일: 음 8. 15. • 가해주체: 지방좌익
	<p>약산면 장용리 약산분주소 희생사건 (오병천, 마-749,</p>	<p>○○○ (여, 26)</p>	약산면 우두리	시신수습	오병천의 부인	진술조서 (2009 .7.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병천의 인적사항: 농업, 대한청년 단장 • 희생시기: 1950. 9. 29.(음 8. 18.) • 희생장소: 약산면 장용리 앞바다 • 희생과정: 오병천은 마을에서 지방 좌익에 의해 끌려가 약산면 장용리 앞 바다에서 이옥룡과 함께 수장당함. • 시신수습: 유가족이 어두리 앞 섬에서 수습했음. • 제사일: 음 8. 17. • 가해주체: 지방좌익
	<p>이옥룡, 마-9306, 차상근, 마-9308)</p>	<p>○○○ (男, 27)</p>	약산면 우두리 천동마을	연행과정 목격, 시신목격	차상근- 일가, 이옥룡, 오병천-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근의 인적사항: 농업, 약산면 지서 후원회장 • 오병천의 인적사항: 농업, 대한청년 단 우두리 단장 • 이옥룡의 인적사항: 농업, 이장 • 희생장소: 약산면 장용리 앞바다 • 희생과정: 차상근, 오병천, 이옥룡은 각자의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약산분주소로 끌려갔고, 이후 장용리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 가해주체: 지방좌익 • 시신수습: 세 명 모두 유가족이 수습했음.

제 3 권

연 번	사건명 (진실규명 대상자, 사건번호)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性,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형태 (진술일자)	
7	약산면 장용리 약산분주소 희생사건 (최병원, 마-6921)	○○○ (女, 22)	약산면 득암리 사동마을	전문	사촌 동생	진술조서 (2009. 7.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이명 최병선, 김양식업, 경찰업무 보조 • 희생시기: 1950. 9. 30.(음 8. 19.) • 희생과정: 최병원은 자택에서 지방 좌익에 의해 약산분주소로 끌려가 감금되었다가 이튿날 희생당했음. • 시신수습: 최병원의 부인과 마을사람들이 어두리 바닷가에서 수습했음 • 제사일: 음 8. 18.
	약산면 장용리 약산분주소 희생사건 (정평균 등, 마-772 등)	○○○ (男, 22)	약산면 우두리 여동마을	희생과정 부분목격 · 시신수습 부분목격	약산면 주민	진술조서 (2009. 9.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과정: 약산면 각 마을에서 지방 좌익에 의해 약산분주소로 끌려온 사람들은 분주소 유치장에 갇혔다가 이후 두 손이 줄로 묶인 채 배에 태워져 장용리 대죽도 앞바다로 끌려가 돌에 매달린 채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 희생자: 정평균, 김인옥, 정억천, 차상근, 오병천, 이옥룡, 최응열, 최병태, 송복윤 <p>▶ 정평균 관련 진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좌익과 갈등관계 • 시신수습: 수습 못했음. <p>▶ 김인옥 관련 진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한국전쟁 이전 경찰재직 • 시신수습: 유가족이 수습했음. <p>▶ 정억천 관련 진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우익성향 • 시신수습: 수습 못했음. <p>▶ 차상근 관련 진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상업(숙박업, 주류업) • 시신수습: 유가족이 수습했음. <p>▶ 오병천 관련 진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대한청년단원 • 시신수습: 유가족이 수습했음. <p>▶ 이옥룡 관련 진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부유한 편 • 시신수습: 유가족이 수습했음.

연 번	사건명 (진실규명 대상자, 사건번호)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형태 (진술일자)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응열 관련 진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구암리 거주, 이장 ▶ 최병태 관련 진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관산리 거주 • 시신수습: 유가족이 수습했음. ▶ 송복윤 관련 진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관산리 거주, 경찰
		○○○ (女, 12)	약산면 장용리 구성마을	전문	동생	진술조서 (2009. 7.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한용의 인적사항: 약산면사무소 서기 • 희생과정: 정한용은 약산분주소로 끌려갔다가 장용리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 시신수습: 유가족이 금일읍에서 수습했음. 수습당시 손발이 줄로 묶여 있었고 턱 아래쪽이 칼에 찔려 있었음. • 제사일: 음 8. 17.
	약산면 장용리 약산분주소 희생사건 (정억천, 정한용, 김인옥, 김영두- 미신청)	○○○ (男, 11)	약산면 장용리 구성마을	전문	정억천- 아버지, 정남균, 정한용- 일가, 김인옥, 김영두-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들의 거주지: 장용리 구성마을 • 정억천의 인적사항: 농어업, 이장 • 정남균의 인적사항: 번영회장 • 정한용의 인적사항: 약산면사무소 근무 • 김인옥의 인적사항: 대한청년단원 • 김영두의 인적사항: 선주(船主) • 희생시기: 정억천, 정남균, 김영두-9. 26, 정한용, 김인옥-9. 29. • 희생장소: 장용리 앞바다 • 희생과정: 1950. 9. 15.부터 정남균 이 지방좌익에 의해 끌려가고 이후 김영두가 약산분주소로 끌려갔음. 이에 정억천이 분주소로 항의하러 갔다가 감금되었음. 감금된 사람들은 모두 장용리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 제사일: 정억천, 정남균, 김영두-음 8. 14., 정한용, 김인옥-음 8. 17. • 시신수습: 정억천-미수습, 정남균, 김영두, 정한용, 김인옥-수습 • 가해주체: 지방 좌익

제 3 권

연 번	사건명 (진실규명 대상자, 사건번호)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性,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형태 (진술일자)	
8	약산면 관산리 송복신, 송정순 희생사건 (송복신, 마-9310, 송정순, 마-9311)	○○○ (男, 14)	약산면 관산리	전문	마을 주민	진술조서 (2009. 7.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시기: 1950. 9월 이후 • 희생과정: 송복신 가족, 김옥주 가 족, 최규실 가족은 장흥군 대덕읍으로 피난가지는 지방좌익의 말에 따라 함께 갔다가 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9	약산면 관산리 김옥자, 김태정 희생사건 (김옥자, 마-9305, 김태정, 마-9315)	○○○ (男, 22)	약산면 우두리 여동마을	전문	약산면 주민	진술조서 (2009. 9.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시기: 1950. 10월 • 희생장소: 장흥군 대덕읍 웅암리 앞 바다 • 희생시기: 김옥자, 김태정 남매는 관산리에서 배를 타고 장흥군 대덕읍 웅암리 내재마을로 나갔다가 그곳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바다에 수장되어 희 생당했음. • 시신수습: 유가족이 수습했음.
10	약산면 관산리 최규승 일가 희생사건 (최규승, 마-8135 최규실, 마-9313, 최경호, 마-9303, 최철호, 마-9304, 최규철, 최근호, 마-9300 -1, 황연례, 최원호, 최인호, 최정숙, 차호기, 마-6261)	○○○ (女, 23)	약산면 관산리	희생과정 목격, 生還	가족 및 일가	진술조서 (2009. 11.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행과정: 나(참고인)를 포함하여 최규승 가족 및 일가, 집사아들 최호기 등 총 13명은 관산리에서 배를 타고 장 흥군 대덕읍 웅암리로 떠났음. 배에는 지방좌익 약 4명도 함께 뒀었는데, 이 들이 웅암리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있던 지방좌익과 함께 배에 탔던 사람 들을 웅암리 소재 어느 집으로 끌고 갔 고, 남자와 여자를 따로 분리하여 각각 다른 방에 감금했음. • 희생과정: 장흥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날 저녁, 지방좌익들이 사람들을 한명씩 호명하여 마당에 세워놓고, 두 눈을 천으로 가리고 손을 줄로 묶은 채 배에 태웠음. • 생존과정: 나 역시 배에 태워졌으나 지방좌익에 의해 끌려나와 다시 집 안 에 감금되어 그날 밤을 지냈음. 이튿날 아침, 경찰이 마을에 진주하여 지방좌 익이 후퇴해버려 생존할 수 있었음.
		○○○ (여, 11)	약산면 관산리	장흥으로 떠나는 모습 목격, 시신수습	조카	진술조서 (2009. 9.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시기: 1950. 10. 4.(음 8. 23.) • 희생과정: 최규승 가족 및 일가, 집 사아들 최호기 등 총 11명은 관산리 에서 배를 타고 장흥군 대덕읍 웅암리 내 재마을로 떠났고, 그곳에서 며칠을 보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번	사건명 (진실규명 대상자, 사건번호)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형태 (진술일자)	
10	약산면 관산리 최규승 일가 희생사건 (최규승, 마-8135 최규실, 마-9313, 최경호, 마-9303, 최철호, 마-9304, 최규철, 최근호, 마-9300 -1, 황연례, 최원호, 최인호, 최정숙, 차호기, 마-6261)						넌 후 지방좌익에 의해 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 시신수습: 약산면 냇고리 바닷가로 떠밀려온 최규실, 최근호, 최경호, 최철호, 차호기, 최규승, 최경호 등을 수습했음. 황연례, 최정숙의 시신만 찾지 못했음.
		○○○ (男, 14)	약산면 관산리	전문	마을 주민	진술조서 (2009. 7. 28)	• 희생시기: 1950. 9월 이후 • 희생과정: 송복신 가족, 김옥주 가족, 최규실 가족은 장흥군 대덕읍으로 피난가자는 지방좌익의 말에 따라 함께 갔다가 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 시신수습: 수습된 사람(최경호, 최철호)도 있고, 수습 안 된 사람도 있음. • 가해주체: 지방좌익
		○○○ (男, 22)	약산면 우두리 여동마을	전문	약산면 주민	진술조서 (2009. 9. 17.)	• 희생시기: 1950. 10월 • 희생장소: 장흥군 대덕읍 웅암리 앞 바다 • 희생과정: 최규철, 최근호, 최원호, 최인호 등 최씨 일가는 관산리에서 배를 타고 장흥군 대덕읍 웅암리 내재마을로 나갔다가 그곳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 시신수습: 약산면으로 떠밀려온 최규실, 최철호, 최경호의 시신을 유가족이 수습했음.
금당면							
11	금당면 차우리 송태원 희생사건 (송태원, 마-167)	○○○ (男, 23)	금당면 차우리 봉동마을	연행과정 목적	조카	진술조서 (2009. 8. 11.)	• 인적사항: 금당면 지서 후원회장, 금융조합 근무 • 희생시기: 1950. 9. 10.(음 7. 28.) • 희생장소: 금당면 차우리 목섬 부근 바다 • 희생과정: 송태원은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분주소로 끌려가 3일 이상 감금되었다가 이후 가마니에 싸여져 배에 태워져 목섬 부근 바다에 수장되었음.
		○○○ (女, 16)	금당면 차우리 봉동마을	연행과정 목적	딸	진술조서 (2009. 8. 11.)	• 시신수습: 수습 못했음. • 제시일: 음 7. 27. • 가해주체: 금당면 지방좌익

제 3 권

연 번	사건명 (진실규명 대상자, 사건번호)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性,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형태 (진술일자)	
11	금당면 차우리 송태원 희생사건 (송태원, 마-167)	○○○ (男, 17)	금당면 차우리	전문	마을 주민	진술조서 (2009. 8.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사항: 마을유지 희생시기: 1950. 9월 희생과정: 송태원은 자택에서 지방 좌익에 의해 끌려 나가 바다에 수장되 었음. 시신수습: 수습 못했음. 가해주체: 금당면 지방좌익
12	금당면 차우리 전순규 희생사건 (전순규, 마-5741)	○○○ (女, 26)	금당면 차우리	연행과정 목적, 시신수습	부인	진술조서 (2009. 8.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사항: 어업, 차우리 반장 희생시기: 1950. 9. 16.(음 8. 5.) 희생장소: 차우리에서 울포리로 넘 어가는 길거리 희생과정: 전순규는 자택에서 지방 좌익에 의해 끌려 나갔고 자택 부근 울 포리로 넘어가는 길거리에서 가슴 아 래 부분이 칼에 찔려 희생당했음. 시신수습: 유가족이 수습했음. 제사일: 음 8. 4. 가해주체: 금당면 지방좌익
		○○○ (男, 17)	금당면 차우리	전문	사촌 동생	진술조서 (2009. 8.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사항: 어업, 대한청년단 희생시기: 1950. 9. 16.(음 8. 5.) 희생장소: 전순규의 자택 부근 희생과정: 전순규는 지방좌익에 의해 자택 부근에서 칼에 찔려 희생당했음. 시신수습: 수습했음. 제사일: 음 8. 4. 가해주체: 금당면 지방좌익
		○○○ (男, 23)	금당면 차우리 봉동마을	전문	마을 주민	진술조서 (2009. 8.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사항: 대동청년단원 희생시기: 1950. 9. 27. 이전
13	금당면 가학리 김영배 희생사건 (김영배, 마-3704)	○○○ (女, 18)	금당면 가학리	전문	마을 주민	진술조서 (2009. 8.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사항: 이명 김천두 희생시기: 1950. 9월 희생과정: 김영배는 지방좌익에 의 해 칼에 찔려 희생당했음. 시신수습: 수습했음.
		○○○ (男, 23)	금당면 차우리 봉동마을	전문	금당면 주민	진술조서 (2009. 8.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생이유: 김영배는 금당면 내 우익 인사와 경찰에게 좌익관련 정보를 알 려줬다는 이유로 지방좌익에 의해 희 생당했음.
		○○○ (男, 7)	금당면 가학리	전문	마을 주민	진술조서 (2009. 8.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생시기: 1950. 9. 19.(음 8. 8.) 희생과정: 자택 부근 길거리 희생과정: 김영배는 자택에서 지방

연 번	사건명 (진실규명 대상자, 사건번호)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性,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형태 (진술일자)	
13		○○○ (男, 15)	금당면 가학리	전문	마을 주민	진술조서 (2009. 8. 11.)	좌익에 의해 자택 부근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돌에 찌혀 희생당했음. • 시신수습: 수습했음. • 희생이유: 김영배의 아버지가 마을에서 우익이라는 이유
14	금당면 차우리 송일섭 희생사건 (송일섭, 마-5746)	○○○ (男, 23)	금당면 차우리 봉동마을	시신수습	동생	진술조서 (2009. 8. 11.)	• 인적사항: 농업, 대한청년단원, 의경 • 희생시기: 1950. 9. 27.(음 8. 16.) • 희생장소: 금당면 차우리 봉동마을 바닷가 • 희생과정: 송일섭은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봉동리 바닷가로 끌려가 그곳에서 몽둥이로 구타당해 희생당했음. • 시신수습: 수습했음. • 제사일: 음 8. 15. • 가해주체: 금당면 지방좌익
		○○○ (女, 16)	금당면 차우리 봉동마을	전문	사촌 동생	진술조서 (2009. 8. 11.)	• 인적사항: 대한청년단 조직부장 • 희생시기: 1950. 9. 27.(음 8. 16.) • 희생장소: 금당면 차우리 봉동마을 바닷가 • 희생과정: 송일섭은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봉동리 바닷가로 끌려가 그곳에서 몽둥이로 구타당해 희생당했음. • 시신수습: 수습했음. • 제사일: 음 8. 15. • 가해주체: 금당면 지방좌익
		○○○ (男, 17)	금당면 차우리	전문	외사촌	진술조서 (2009. 8. 11.)	• 인적사항: 이장 • 희생시기: 1950. 9월 • 희생과정: 송일섭은 차우리 봉동마을에서 희생당했음.
금일읍							
15	금일읍 화목리 금일분주소 희생사건 (전반적인 사항)	○○○ (男, 20)	금일읍 화목리	희생과정 인지, 전문	금일읍 주민	진술조서 (2009. 8. 12.)	• 희생과정: 1950. 9. 17~18.(음 8. 6~7.), 희생자들은 각자의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금일분주소로 끌려갔고, 이후 두 손이 줄로 묶인 채 배에 태워져 금일읍 화목리 치골 앞바다로 끌려가 그곳에서 총에 맞고 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그날 밤 화목리에 총소리가 들렸음. • 희생자: 조현철, 조복래, 김중준, 김종국, 김중식, 이태우

제 3 권

연 번	사건명 (진실규명 대상자, 사건번호)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性,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형태 (진술일자)	
15	금일읍 화목리 금일분주소 희생사건 (전반적인 사항)	○○○ (男, 23)	금일읍 월송리	전문	금일읍 주민	진술조서 (2009. 8.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김종준(화목리), 김종국(화목리), 방정순(구동리), 구기표·한동섭(월송리), 천병탁(용항리), 김종식(궁항리)
		○○○ (남, 22)	금일읍 신평리	금일 분주소 감금경험	금일읍 주민	진술조서 (2009. 1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시기: 1950. 9. 17~18.(음 8. 6~7.) • 희생장소: 금일읍 화목리 치끝 앞바다 • 감금상황: 금일분주소에 갇혀있을 때 이준옥, 오귀환 등이 있었음. • 희생과정: 희생자들은 금일분주소에 갇혀 있다가 화목리 치끝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음. • 희생자: 조복래, 방정순, 한동섭, 한동용, 이준옥, 김광호, 서연환, 서응환, 박사은, 신수일, 김종식, 이태우, 천병탁, 오귀환
	금일읍 화목리 금일분주소 희생사건 (방정순, 마-944)	○○○ (男, 21)	금일읍 구동리	전문	금일읍 주민	진술조서 (2009. 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금일면 지서 후원회장, 어업 • 희생시기: 1950. 9월 • 희생장소: 금일읍 화목리 치끝 앞바다 • 희생과정: 방정순은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끌려 나갔고, 그날 밤 배에 태워져 화목리에 있는 치끝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 시신수습: 방정순의 가족들이 수습했음. • 가해주체: 금일읍 지방좌익 • 그 외 희생자: 천병탁, 김종준, 한동섭, 조문웅의 아버지, 김광호
		○○○ (女, 21)	금일읍 월송리	시신목격	금일읍 주민	진술조서 (2009. 8.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금일읍 유지 • 시신수습: 아버지 김종준의 시신을 수습할 당시 치끝 바닷가로 떠밀려 온 방정순의 시신도 함께 목격했음. 방정순의 시신은 유가족이 수습했음.
	금일읍 화목리 금일분주소 희생사건 (김중식, 마-10741)	○○○ (男, 12)	금일읍 화목리	전문	금일읍 주민	진술조서 (2009. 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시기: 1950. 9. 17.(음 8. 6.) • 희생장소: 금일읍 화목리 치끝 앞바다 • 희생과정: 김중식은 지방좌익에 의해 두 손이 줄로 묶인 채 배에 태워져 화목리 앞바다에 있는 치끝 부근으로 끌려갔고, 총에 맞고 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연 번	사건명 (진실규명 대상자, 사건번호)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형태 (진술일자)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신수습: 수습했음. • 제사일: 음 8. 5. • 가해주체: 금일을 지방좌익
	금일을 화목리 금일분주소 희생사건 (구기표, 마-2415, 한동섭, 마-2412, 한동용, 마-7892)	○○○ (男, 29)	금일을 월송리	전문, 한동섭의 시신처리	마을 주민 및 친척	진술조서 (2009. 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기표의 인적사항: 이명 구판동, 농업 • 한동섭, 한동용(한동섭의 동생)의 인적사항: 농업 • 희생과정: 구기표, 한동섭, 한동용은 각자의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금일분주소로 끌려갔고, 이후 화목리 앞바다에 있는 치곶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 시신수습: 구기표, 한동용-수습했음/ 한동섭-수습 못했음. • 제사일: 구기표, 한동용-음 8. 5. • 가해주체: 금일을 지방좌익 • 그 외 희생자: 김종준, 방정순
		○○○ (女, 21)	금일을 월송리	구기표의 시신목격, 전문	금일을 주민	진술조서 (2009. 8.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과정: 희생자들은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금일분주소로 끌려갔고, 이후 화목리 치곶 앞바다로 끌려가 그곳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 구기표 관련 진술내용 • 구기표의 인적사항: 이명 구판동, 농업 • 희생시기: 1950. 9. 17.(음 8. 6.) • 시신수습: 구기표의 동생이 수습했음. ▶ 한동섭 관련 진술내용 • 희생시기: 1950. 9. 18.(음 8. 7.)
		○○○ (女, 9)	금일을 월송리	한동섭의 연행과정 목격	조카	진술조서 (2009. 9.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동섭의 인적사항: 농업, 어업 • 희생시기: 1950. 9월 • 희생장소: 금일을 바다 • 희생과정: 한동섭은 금일분주소로 끌려가 구타를 당한 후 자택으로 돌아왔다가 2~3일 후 다시 지방좌익에 의해 지계에 실려 끌려간 후 희생당했음. • 시신수습: 수습 못했음.
		○○○ (女, 21)	금일을 월송리	시신수습	딸	진술조서 (2009. 8.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종준 관련 진술내용 • 인적사항: 화목리 유지 • 희생시기: 1950. 9. 17.(음 8. 6.) • 희생과정: 김종준은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금일분주소로 끌려갔고,

제 3 권

연 번	사건명 (진실규명 대상자, 사건번호)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性,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형태 (진술일자)	
15	(김종준, 마-2413, 김종국, 미신청)						<p>이후 화목리 치끝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신수습: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김종준의 시신을 수습했음. • 제사일: 음 8. 5. • 가해주체: 금일을 지방좌익 • 그 외 희생자: 김종국, 방정순, 구기표, 한동섭, 한동용 <p>▶ 김종국 관련 진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김종준의 동생 • 희생시기: 1950. 9. 18.(음 8. 7.) • 시신수습: 유가족이 수습했음.
	금일을 화목리 금일분주소 희생사건 (천병탁, 마-10716)	○○○ (男, 23)	완도군 금일을 충동리 용항마을	연행과정 목격	동생	진술조서 (2009. 4.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농업, 쌀장사, 이장 • 희생시기: 1950. 9월 • 희생과정: 천병탁은 지방좌익에게 의해 금일분주소로 끌려가 감금되었다가 화목리 큰굴섬 앞바다에 수장되었음. • 시신수습: 유가족이 수습했음. • 제사일: 음 8. 5. • 가해주체: 금일을 지방좌익 • 그 외 희생자: 김광호
		○○○ (男, 21)	금일을 구동리	전문	금일을 주민	진술조서 (2009. 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금일을 충동리 거주 • 희생이유: 우익이라는 이유
	금일을 화목리 금일분주소 희생사건 (조현봉- 미신청)	○○○ (男, 12)	금일을 화목리	전문	아들	진술조서 (2009. 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이명 조현철, 어업, 부유한 편 • 희생시기: 1950. 9. 17.(음 8. 6.) • 희생장소: 금일을 화목리 치끝 앞바다 • 희생과정: 조현철은 지방좌익에 의해 금일분주소로 끌려갔고, 이후 화목리 치끝 앞바다로 끌려가 총에 맞고 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 시신수습: 멸치어장 그물에 걸려있는 조현철의 시신을 유가족이 수습했음. • 제사일: 음 8. 5.
	금일을 화목리 금일분주소 희생사건 (이준옥- 미신청)	○○○ (남, 15)	금일을 충동리 충도마을	연행과정 목격, 감금인지 , 시신수습	아들	진술조서 (2009. 1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부유한 편 • 희생시기: 1950. 9. 17.(음 8. 6.) • 희생과정: 이준옥은 금일분주소로 끌려갔다가 풀려나 자택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지방좌익에 의해 금일분주소로 끌려가 감금되었고, 이후 화목리 치끝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음.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 번	사건명 (진실규명 대상자, 사건번호)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性,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형태 (진술일자)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신수습: 조복래의 형이 치끝 부근에 있던 조복래, 이준옥, 천병택의 시신을 화목리 앞바다로 옮겼고, 이후 시신을 수습했음. 이준옥의 머리에 총상 흔적이 있었음. • 제사일: 음 8. 5. • 그 외 희생자: 김광호, 김중식, 한동섭, 한동용, 박시은, 서연환, 오귀환, 이태우, 천병택, 조현철, 신수일, 김필선, 김서호, 김경호, 김양호, 방정순, 조복래
	금일읍 화목리 금일분주소 희생사건 (서연환, 서응환- 미신청)	○○○ (남, 12)	금일읍 신평리 신평마을	서응환의 시신수습	아들	전화면담 (2009. 10.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연환의 인적사항: 농업, 이장 • 서응환의 인적사항: 서연환의 동생, 대한청년단원 • 희생시기: 1950. 9. 17.(음 8. 6.) • 희생과정: 서연환, 서응환은 지방좌익에 의해 금일분주소로 끌려갔고, 이후 화목리 치끝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음. • 시신수습: 서연환의 시신은 수습 못했음. 서응환의 시신은 치끝 부근에서 수습했는데, 옆구리에 총맞은 자국이 있었음. • 제사일: 음 8. 5. • 그 외 희생자: 방정순, 조현철
	금일읍 화목리 금일분주소 희생사건 (신수일- 미신청)	○○○ (남, 1952년 출생)	-	전문	손자	전화면담 (2009. 10.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어업, 사동리 이장 • 희생시기: 1950. 9. 17.(음 8. 6.) • 희생장소: 금일읍 화목리 치끝 앞바다 • 희생과정: 신수일은 사동리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금일분주소로 끌려갔고, 이후 화목리 치끝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 시신수습: 수습 못했음. • 제사일: 음 8. 5. • 그 외 희생자: 이준옥
	금일읍 화목리 금일분주소 희생사건 (김서호, 김경호, 김양호- 미신청)	○○○ (남, 8)	금일읍 충동리 동송마을	시신수습	아들 및 조카	진술조서 (2009. 1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서호의 인적사항: 농어업, 이장 • 김경호, 김양호의 인적사항: 농어업 • 희생시기: 김서호-1950. 9. 17.(음 8. 6.), 김경호-1950. 9. 18.(음 8. 7.), 김양호-1950. 9. 19.(음 8. 8.), • 희생장소: 금일읍 화목리 치끝 앞바다 • 희생과정: 김서호, 김경호, 김양호는 충동리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금일분주소로 끌려갔고, 이후 화목리 치끝

제 3 권

연 번	사건명 (진실규명 대상자, 사건번호)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性,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형태 (진술일자)	
15							<p>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신수습: 김서호, 김양호의 시신은 유가족이 수습했고, 김경호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했음. • 제사일: 김서호(음 8. 5.), 김경호(음 8. 6.), 김양호(음 8. 7.)
	금일읍 화목리 금일분주소 희생사건 (박사은-미신청)	○○○ (남, 1962년 출생)	-	전문	손자	진술조서 (2009. 1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은의 인적사항: 금일동초등학교 교장 • 학생시기: 1950. 9. 17.(음 8. 6.) • 희생장소: 금일읍 화목리 치끝 앞바다 • 희생과정: 박사은은 월송리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금일분주소로 끌려갔고, 이후 화목리 치끝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 시신수습: 수습되지 못했음. • 제사일: 음 8. 5.
	금일읍 화목리 금일분주소 희생사건 (김정환-미신청)	○○○ (남, 2)	금일읍 충동리 동송마을	전문	이들	전화면담 (2009. 11.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이명 김광호, 어업, 부유한 편 • 학생시기: 1950. 9. 19.(음 8. 8.) • 희생장소: 금일읍 화목리 치끝 앞바다 • 희생과정: 김정환은 지방좌익에 의해 금일분주소로 끌려갔다가 치끝으로 끌려가던 순간 도망쳐 신평리 누나 집에 피신했음. 이후 다시 인근 섬으로 피신했으나 그곳 주민의 신고로 인해 지방좌익에게 소재가 발각되어 다시 금일분주소로 끌려갔다가 이후 화목리 치끝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 시신수습: 유가족이 수습했음. • 제사일: 음 8. 7.
16	금일읍 화목리 정현우 희생사건 (정현우, 마-946)	○○○ (남, 15)	금일읍 충동리 충도마을	희생과정 목격	금일읍 주민	진술조서 (2009. 1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어업 • 희생과정: 금일읍사무소 앞 광장에서 지방좌익 10여명에 둘러싸인 채 칼로 목이 베이고 총에 맞아 희생당했음. • 희생이유: 정현우가 해녀들과 함께 어업활동을 하던 중, 금일읍 주변 전황을 살펴하던 경찰이 타고 있는 배와 접선했다는 이유 • 시신수습: 유가족이 수습했음.
		○○○ (남, 12)	금일읍 신평리 신평마을	희생과정 목격	금일읍 주민	전화면담 (2009. 10.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과정: 정현우는 금일읍사무소 앞에서 인민재판을 받은 후 희생당했음.

연 번	사건명 (진실규명 대상자, 사건번호)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性,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형태 (진술일자)	
16	금일읍 화목리 정현우 희생사건 (정현우, 마-946)	○○○ (男, 12)	금일읍 화목리	희생과정 인지	금일읍 주민	진술조서 (2009. 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어업 • 희생시기: 1950. 9. 17. 이후 • 희생장소: 금일읍사무소 앞 • 희생과정: 정현우는 배를 타고 나가 아군의 배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금일읍사무소 앞에서 인민재판을 받고 칼로 목이 베이고 총에 맞아 희생당했음. • 시신수습: 유가족이 수습했음. • 제사일: 음 8. 5.
		○○○ (男, 20)	금일읍 화목리	희생과정 인지	금일읍 주민	진술조서 (2009. 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시기: 1950. 9월 • 희생장소: 금일읍사무소 앞 • 희생과정: 정현우는 배를 타고 나가 경찰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금일읍사무소 앞에서 인민재판을 받고 칼로 목이 베여 희생당했음.
		○○○ (男, 21)	금일읍 구동리	전문	금일읍 주민	진술조서 (2009. 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어업 • 희생과정: 정현우는 금일읍사무소 앞에서 인민재판을 받은 후 희생당했음.
		○○○ (男, 29)	금일읍 월송리	전문	금일읍 주민	진술조서 (2009. 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어업 • 희생과정: 정현우는 금일읍사무소 앞에서 인민재판을 받은 후 희생당했음.
		○○○ (男, 23)	금일읍 월송리	전문	금일읍 주민	진술조서 (2009. 8.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어업 • 희생시기: 1950. 9. 17. 이후 • 희생과정: 정현우는 금일읍사무소 앞에서 인민재판이 열렸을 때 그 자리에서 칼로 목이 베여 희생당했음. • 희생이유: 정현우가 어업활동을 하던 중 금일읍 주위를 시찰하던 아군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
17	금일읍 일정리 김종명 희생사건 (김종명, 마-2411, 김종관, 미신청)	○○○ (男, 21)	금일읍 구동리	전문	금일읍 주민	진술조서 (2009. 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과정: 김종명, 김종관(김종명의 사촌형)이 한국전쟁 당시 지방좌익에 의해 희생당했음.
		○○○ (男, 20)	금일읍 화목리	전문	김종명- 일가, 김종관- 조카	진술조서 (2009. 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시기: 1950. 9. 17. 이후 • 희생과정: 김종명, 김종관(김종명의 사촌형)이 일정리 앞바다에서 희생당했음. 9• 시신수습: 수습 못했음.
		○○○ (女, 21)	금일읍 월송리	전문	김종명- 조카, 김종관- 일가	진술조서 (2009. 8.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과정: 김종명, 김종관(김종명의 사촌형)은 지방좌익에 의해 일정리에서 배에 태워져 악산면 방향으로 가던 중 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 시신수습: 수습 못했음. • 제사일: 음 8. 11.

제 3 권

연 번	사건명 (진실규명 대상자, 사건번호)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性,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형태 (진술일자)	
17		○○○ (남, 15)	금일을 충동리 충도마을	전문	금일을 주인	진술조서 (2009. 1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종명의 인적사항: 어업, 어업조합 근무 • 김종관의 인적사항: 농업 • 희생과정: 김종명, 김종관은 일정리에서 희생당했음.

소안면

18	소안면 황간리 김복홍 등 5명 희생사건 (김복홍, 마-3865, 김민채, 마-3866, 김용관, 마-3867, 장남동, 마-3869, 박일섭, 미신청)	○○○ (남, 11)	소안면 황간리	전문	마을 주인	진술조서 (2008. 8.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과정: 김복홍, 김민채, 김용관, 장남동은 소안면 황간리 산에 있던 좌익들의 은신처를 발견하고 이를 신고하러 배를 타고 소안면 지사로 가던 중 좌익에게 발각되어 황간리 인근 해상에서 희생당함.
		○○○ (남, 23)	소안면 황간리	전문	마을 주인	진술조서 (2008. 8.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과정: 김복홍, 김민채, 김용관, 장남동, 박일섭은 김경운의 지시에 따라 황간리에 숨어있던 좌익들을 소안면 지서에 신고하러 갔다가 지방좌익에 의해 바다에 수장당했음. • 시신수습: 이들은 3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고 이후 노화읍 동천항에서 이들이 탔던 배만 발견했음.
		○○○ (남, 15)	소안면 황간리	전문	마을 주인	진술조서 (2008. 8.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시기: 한국전쟁 이전 • 희생장소: 황간리 부근 바다 • 희생과정: 김복홍, 김민채, 김용관, 장남동은 독청대의 지시에 따라 황간리 산에 숨어있던 좌익들을 소안면 지서에 신고하러 가던 중 지방좌익에게 발각되어 황간리 바다에 수장당했음.
		○○○ (女, 21)	노화읍 동고리	전문	김복홍- 시아버지 , 그 외 희생자-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8. 9.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복홍의 인적사항: 이명 김채홍, 농업 • 희생시기: 1949. 4. 15.(음 3. 17.) • 희생장소: 소안면 황간리와 노화읍 동고리 사이 바다 • 희생과정: 김복홍, 김민채, 김용관, 장남동, 박일섭과 함께 배를 타고 나가 소안면 지사로 향하던 중, 지방좌익에게 발각되어 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 시신수습: 수습 못했음. • 제사일: 음 3. 16.

연번	사건명 (진실규명 대상자, 사건번호)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性,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형태 (진술일자)	
19	소안면 황간리 앞바다 희생사건 (김철구, 김용재, 마-3872, 김석노, 마-10737)	○○○ (남, 11)	소안면 황간리	전문	마을 주민	진술조서 (2008. 8.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생시기: 한국전쟁 중• 희생과정: 김철구, 김석노는 지방좌익에 의해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김용재는 지방좌익에게 고통을 받아 이듬해 병에 걸려 사망했음.
		○○○ (남, 23)	소안면 황간리	전문	마을 주민	진술조서 (2008. 8.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철구의 인적사항: 황간리 이장• 희생과정: 김철구, 김석노는 마을주민 수십 명과 함께 지방좌익에 의해 수장되어 희생됐음. 김용재는 지방좌익에게 구타당하여 나중에 후유증으로 사망했음.
		○○○ (남, 15)	소안면 황간리	전문	마을 주민	진술조서 (2008. 8.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철구의 인적사항: 황간리 이장• 희생이유: 김철구는 아들 김용관이 좌익활동을 하자 자수시켰고 김용관은 이후 우익활동을 했음. 이것이 원인이 되어 김철구가 희생당했음.• 희생과정: 김철구, 김석노 등 32명은 지방좌익에 의해 황간학교 창고에 감금되었다가 인민재판을 받은 후 황간리 앞바다에 수장당했음.
20	소안면 이목리 김석만희 생사건 (김석만, 마-3857)	○○○ (남, 17)	완도군 소안면 이월리	전문	마을 주민	진술조서 (2008. 8.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사항: 선원(배 기관장)• 희생시기: 1950. 9월 말• 희생장소: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희생과정: 1950. 9월 말, 인민군과 지방좌익이 선주 김용연과 함께 김석만의 집으로 찾아왔고, 김석만은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항구로 갔음. 인민군, 지방좌익은 배에서 내린 후 김석만이 타고 있던 배를 침몰시켰음.
		○○○ (男, 16)	소안면 이월리 이목마을	전문	마을 주민	진술조서 (2009. 9.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사항: 배 기관장• 희생시기: 1950. 9월 말• 희생장소: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희생과정: 김석만은 배를 타고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로 일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바다에 수장당했음.• 시신수습: 수습 못했음.
노화읍							
21	노화읍 이포리 황준봉 희생사건	○○○ (男, 21)	노화읍 도청리	전문	마을 주민	진술조서 (2009. 8.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생과정: 황준봉은 노화읍사무소 내려가는 길인 이포리 고개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목에 줄이 묶여졌고, 지방좌익 2명이 그 줄을 잡아당겨 목이 졸

제 3 권

연 번	사건명 (진실규명 대상자, 사건번호)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性,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형태 (진술일자)	
	(황준봉, 마-7133)						려 희생당했음. • 시신수습: 유가족이 수습했음.
		○○○ (男, 18)	노화읍 도청리	전문	마을 주민	진술조서 (2009. 9. 15.)	• 인적사항: 대한청년단원 • 희생시기: 1950년 여름 • 희생장소: 노화읍 어느 산 • 시신수습: 유가족이 수습했음. • 가해주체: 노화읍 지방좌익
22	노화읍 이포리 서창호 희생사건 (서창호, 마-4382)	○○○ (남, 35)	노화읍 도청리	희생과정 목격	마을 주민	진술녹취 (2009. 3. 20.)	• 인적사항: 대한청년단 • 희생과정: 서창호는 인민군에 의해 노화읍 이포리 부둣가에서 배에 탄 채 총살당했음. 이후 서창호의 시신은 바 다에 버려졌음. • 시신수습: 수습 못했음.
		○○○ (男, 21)	노화읍 도청리	전문	마을 주민	진술조서 (2009. 8. 10.)	• 인적사항: 대한청년단장, 농부 • 희생시기: 인민군이 노화읍에 진주 한 날 • 희생과정: 서창호는 노화읍 이포리 부둣가에서 총에 맞아 희생당했고 이 후 바다에 수장당했음. • 시신수습: 수습 못했음.
		○○○ (男, 18)	노화읍 도청리	전문	마을 주민	진술조서 (2009. 9. 15.)	• 인적사항: 대한청년단원 • 희생시기: 인민군이 노화읍에 진주 한 날 • 희생과정: 서창호는 이포리 부둣가 에서 배에 태워져 부둣가 바로 앞에서 인민군이 쏜 총에 맞고 바다에 빠져 희 생당했음. • 시신수습: 수습 못했음.
		○○○ (男, 17)	노화읍 등산리 당산마을	전문	친척	진술조서 (2009. 9. 15.)	• 인적사항: 대한청년단장 • 희생장소: 노화읍 이포리 이목항 부 둣가 • 희생과정: 서창호는 이포리 이목항 부둣가에서 배에 태워져 배 위에서 인 민군이 쏜 총에 맞고 바다에 빠져 희생 당했음.
		○○○ (男, 27)	노화읍 동천리 천구마을	전문	일가	진술조서 (2009. 9. 16.)	• 희생과정: 서창호는 노화읍 이포리에 서 인민군이 쏜 총에 맞아 희생당했음.

연 번	사건명 (진실규명 대상자, 사건번호)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性,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형태 (진술일자)	
23	노화읍 동천리 고종엽 희생사건 (고종엽, 마-348-1)	○○○ (男, 27)	노화읍 동천리 천구마을	전문	일가	진술조서 (2009. 9.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시기: 1950년 여름 • 희생장소: 노화읍과 소안면 사이 바다 • 희생과정: 손남석의 부인은 지방좌익에 의해 끌려가 노화도와 소안도 사이 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했음. • 시신수습: 수습 못했음.
		○○○ (女, 23)	해남군 송지면 월송리	전문	일가	진술조서 (2009. 9. 16.)	
24	노화읍 이포리 농협창고 희생사건 (손남석, 마-348)	○○○ (男, 27)	노화읍 동천리 천구마을	전문	일가	진술조서 (2009. 9.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이명 손종석, 농어업, 이장 • 희생시기: 1950년 여름 • 희생장소: 해남군 • 희생과정: 손남석은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노화읍 이포리 농협창고로 끌려가 그곳에 갇혀 있다가 이후 해남군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희생당했음. • 시신수습: 수습 못했음. • 가해주체: 노화읍 지방좌익
		○○○ (女, 23)	해남군 송지면 월송리	전문	일가	진술조서 (2009. 9. 16.)	
	노화읍 이포리 농협창고 희생사건 (김경희, 마-243)	○○○ (男, 28)	보길면 예송리	연행과정 목격	마을 주민	진술조서 (2009. 9.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이명 김덕이, 보성경찰 • 희생시기: 1950. 9. 26. 이전 • 희생장소: 해남군 송지면 월송리 • 희생과정: 김경희는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노화읍 이포리 농협창고로 끌려갔고, 이후 해남으로 이송되어 희생당했음. • 시신수습: 김경희의 아들이 수습했음. • 가해주체: 지방좌익
		○○○ (男, 31)	보길면 예송리	연행과정 목격	마을 주민	진술조서 (2009. 9. 14.)	
		○○○ (男, 17)	노화읍 등산리 당산마을	전문	노화읍 주민	진술조서 (2009. 9. 15.)	
	노화읍 이포리 농협창고 희생사건 (천기옥, 미신청)	○○○ (男, 17)	노화읍 등산리 당산마을	전문	노화읍 주민	진술조서 (2009. 9.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농업, 노화읍 유지 • 희생과정: 천기옥은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노화읍 이포리 농협창고로 끌려가 약 10일 동안 갇혀 있었고, 이후 해남군 송지면 월송리로 끌려가

제 3 권

연 번	사건명 (진실규명 대상자, 사건번호)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性,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형태 (진술일자)	
24	노화읍 이포리 농협창고 희생사건 (천기옥, 미신청)	○○○ (女, 19)	소안면 명선리	전문	천기옥의 며느리	진술조서 (2009. 9. 15.)	그곳에서 희생당했음. ● 시신수습: 천기옥의 유가족, 마을사 람들이 2달 정도 지난 후 수습했음. ● 제사일: 음 7. 5. ● 가해주체: 노화읍 지방좌익 ● 그 외 희생자: 손남석, 김덕이
		○○○ (男, 1960년 출생)	—	전문	손자	진술조서 (2009. 10. 7.)	
미신청희생사건							
25	노화읍 등산리 천종남 희생사건 (천종남)	○○○ (男, 17)	노화읍 등산리 당산마을	전문	친척	진술조서 (2009. 9. 15.)	● 인적사항: 금융조합 이사 ● 희생시기: 1950. 8. 14.(음 7. 1.) ● 희생장소: 보길면 정자리 앞바다 ● 희생과정: 천종남은 처갓집인 노화 읍 넓도에 숨어 있다가 지방좌익에게 발각되어 보길면 부학리로 끌려갔다가 이후 보길면 정자리와 노화읍 등산리 당산마을 사이 바다에 수장되어 희생 당했음. ● 시신수습: 유가족이 수습했음. ● 제사일: 음 6. 30. ● 가해주체: 노화읍 지방좌익
		○○○ (女, 19)	소안면 명선리	전문	시아주버 니	진술조서 (2009. 9. 15.)	

다. 현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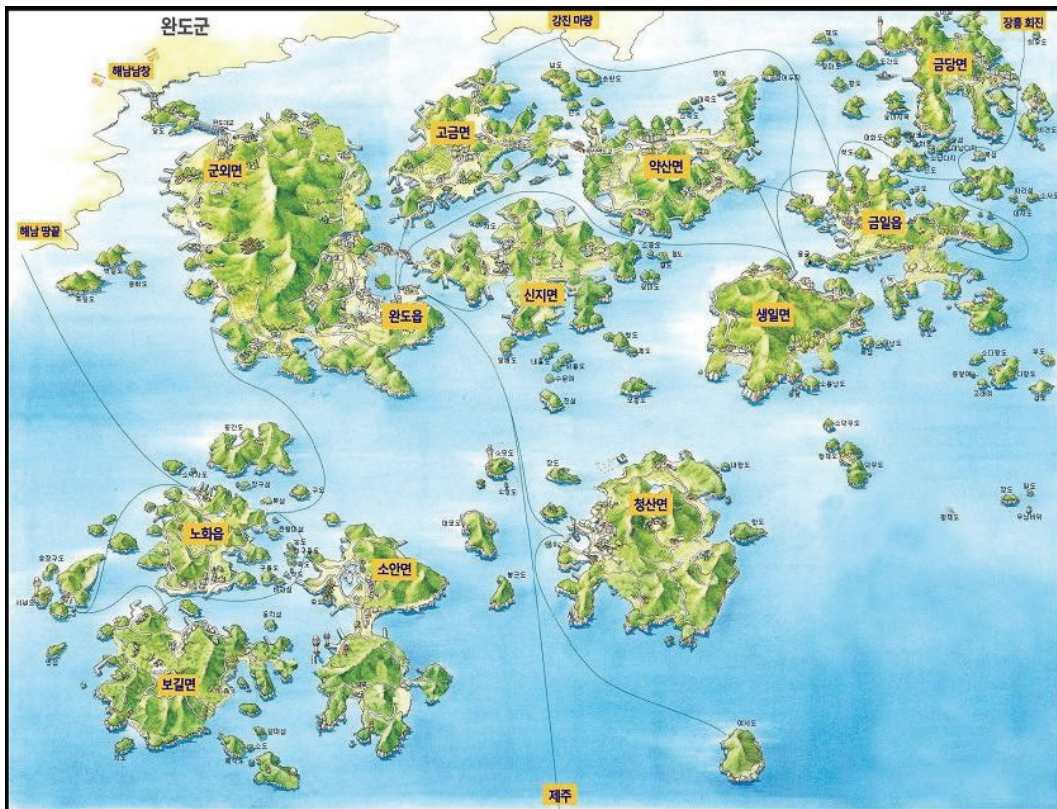
현지조사는 총 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제1차 현지 조사는 2008. 4. 28.~5. 9.에 실시하여 완도군청에서 신청인 진술조사를 진행하였다. 제2차 현지 조사는 2009. 7. 27~31.에 실시하여, 완도군 약산면, 고금면, 신지면에서 참고인 진술조사를 진행하였고, 사건 발생 장소인 약산면 장용리 앞바다, 고금면 가교리 구(舊) 부둣가 등을 확인하였다. 제3차 현지 조사는 2009. 8. 10~14.에 실시하여, 완도군 금일읍, 금당면, 광주광역시 등에서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사를 진행하였고, 사건 발생 장소인 금일읍 화목리 치끝 앞바다, 금일읍 사무소 앞 등을 확인하였다. 제4차 현지조사는 2009. 9. 13~18.에 실시하여, 완도군 군외면, 신지면, 노화읍, 보길면, 소안면, 약산면 등에서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사를 진행하였고, 사건 발생 장소인 완도읍 군내리 주도 앞바다, 군외면 황진리 중리마을, 노화읍 이포리 부둣가 등을 확인하였다.

II. 조사결과

1. 사건배경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완도군은 201개의 크고 작은 섬(유인도 54개, 무인도 147개)들이 모여서 형성된 도서군으로 우리나라 6대섬 중의 하나이다. 위치상 동북쪽으로 고흥군, 여수시에, 북서쪽으로 해남군, 강진군에 인접하고 남쪽으로는 바다를 경계로 제주도 북제주군과 인접해 있다. 완도군은 1896년 영암, 해남, 강진, 장흥에 속한 유인도 75개와 무인도 135개가 통합되어 19면이 되었고, 이후 4번의 행정구역 변화를 거쳐 1989년 군외면, 완도읍,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금당면, 금일읍, 생일면, 소안면, 노화읍, 보길면, 청산면, 모도출장소, 넓도출장소 등 총 3읍 9면 2출장소의 행정구역을 갖춘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³¹⁾ 다음의 [그림 1]은 완도군 지도이다.

[그림 1] 완도군 지도



31) 완도군청 홈페이지(<http://wando.go.kr>) 참조.

1945. 8. 15. 해방이 되자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완도지역에서도 좌우익 단체가 조직되어 그 활동을 시작하였다. 먼저 좌익단체로는 1945. 8. 21.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어 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공안대(公安隊)를 창설하는 등 완도지역의 행정을 장악하였고, 이후 1945. 9. 22.에는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그러나 1945. 12. 10. 미군정관 휘트니 소령이 완도군수로 취임하면서 인민위원회의 활동은 제약을 받게 되었고, 좌익세력은 체포되거나 잠복하여 활동이 일단락되었다.³²⁾

우익단체로는 대한청년단 완도군단부가 조직되어 완도읍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서 대한청년단이 조직되어 활동하였다.³³⁾

한국전쟁 발발 후, 1950. 7. 23.에 인민군이 전남 광주에 진주하였다.³⁴⁾ 인민군은 광주를 거쳐 나주, 화순, 영암, 강진지역으로 진주를 계속했고, 전남경찰은 인민군의 남하를 저지하고자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1950. 8. 1. 완도군으로 후퇴하여 완도읍에 집결하였다.³⁵⁾ 전남 지역 경찰은 완도군 본도 및 부속 도서에 주둔하면서 완도군으로 진입하는 해로인 해남군 북평면 남창항, 강진군 마량면 마량항, 장흥군 회진면 회진항에 주둔해 있는 인민군과 일진일퇴를 거듭하였으나, 결국 1950. 9. 14.에 완도군 청산도 및 여수시 거문도로 후퇴하였다.³⁶⁾

1950. 9. 14. 새벽, 해남군에 주둔해 있던 인민군 및 정치보위부원 등은 해남군 북평면 남창항에서 배를 타고 완도로 건너와 군외면을 지나 완도읍에 진주하였고,³⁷⁾ 이후 완도군청, 완도경찰서, 완도중학교에 사무실을 차리고 활동을 시작하였다.³⁸⁾ 또한 같은 날인 9. 14., 장흥군에 주둔해 있던 인민군이 약산면에 진주하였고,³⁹⁾ 이튿날인 9. 15. 새벽에는

32) 완도군지편찬위원회, 『완도군지』, 1992, 358~359쪽.

33) 동아일보, 1949. 12. 15. '훈련수료식'; 동아일보, 1950. 3. 16. '한청완도군단부 여성옹변대회 성황'

34) 전남지방경찰청, 『전남경찰사』, 1992, 570~572쪽;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 2, 실천문화사, 1991, 213쪽, 259쪽.

35) 완도군지편찬위원회, 『완도군지』, 1992, 129쪽.

36) 완도군지편찬위원회, 『완도군지』, 1992, 361쪽.

3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4.); 「신청인 황종길 진술조서」(2008. 4. 14.);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7.); 완도군지편찬위원회, 『완도군지』, 1992, 362쪽.

38)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7.) 참고인 ○○○은 당시 검찰부 부부장을 역임하였는데, 그가 완도읍에 도착했을 때는 경찰이 모두 후퇴한 뒤였다고 한다. 인민군 및 정치보위부원 등은 경찰서, 군청, 완도중학교를 접수하고 그날 아침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검찰부는 중학교에 사무실을 차리고 적산물수를 주요업무로 하였다고 한다. 내무서는 경찰서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우익인사를 잡아들이고 조사하는 일을 하였고, 당은 군청 건물을 사용하며 모든 업무를 총지휘하였다고 한다. 내무서, 당, 검찰부의 업무는 각각 비밀리에 추진됐었다고 한다.

3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8.);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8.); 「신청인 최재규 진술조서」(2009. 7. 28.);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8.); 「신청인 최재규 진술조서」(2008. 4. 30.)

강진군에 주둔해 있던 인민군이 고금면에 진주하였으며,⁴⁰⁾ 신지면에는 9. 20.경 고금면 상정항에서 배를 타고 인민군이 진주하였다.⁴¹⁾ 그 외 금일읍과 금당도에는 이들 지역보다 이른 시기인 9. 5.에 인민군이 진주하였는데, 인민군은 금당도에 진주하였다가 이후 금일읍으로 진주하였다.⁴²⁾ 그리고 노화읍의 경우에는 이보다 약 한 달 정도 이전인 1950. 8. 11.에 인민군이 진주하여 노화읍을 비롯하여 인근 지역인 보길면, 소안면 등지를 점령하였다.⁴³⁾ 청산면은 완도지역 및 전남 각 지역 경찰이 후퇴하여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민군이 진주하지 못하였다.

완도지역에 인민군이 진주한 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지배구조가 형성되었다. 우선 치안조직으로 정치보위부를 중심으로 군 내무서(內務署), 면 분주소(分駐所), 리 자위대(自衛隊)가 설치되었고, 정치·사회단체로는 인민위원회, 청년동맹(靑年同盟), 농민동맹(農民同盟), 여성동맹(女性同盟) 등이 조직되었다. 이렇게 조직된 단체들은 북한의 남한 점령정책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반혁명세력의 숙청을 진행하였다. ‘반동분자’ 색출은 정치보위국 산하 치안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사회단체들이 이에 가세하였다. 주요 대상자는 지주, 경찰, 공무원 등이었고, 이들에 대한 숙청은 북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면 단위 ‘인민재판’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졌으나, ‘즉결처분’된 경우도 많았다.⁴⁴⁾

그러나 완도지역이 인민군의 점령하에 있었던 것은 2주일 정도에 불과했다. 1950. 9. 14. 완도읍에 진주한 인민군 및 정치보위부 산하 조직들은 1950. 9. 30. 새벽부터 후퇴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완도읍사무소, 초등학교, 천양병원(당시 읍사무소 옆 소재)에 불을 지르고, 완도내무서에 감금되어 있던 우익인사 40여 명을 사살한 후 후퇴하였다.⁴⁵⁾ 완도읍을 비롯하여 각 읍·면에서 활동하던 지방좌익 역시 이 시기에 후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은 완도지역 각 읍·면의 위치에 따라 인접지역인 강진군, 장흥군, 해남군 등 육지로 나왔고 이후 장흥군 유치면 등으로 입산하였다.⁴⁶⁾

인민군 및 지방좌익이 후퇴할 당시 완도지역 각 읍·면에서는 ‘주민들은 해안에서 50리

40)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30.)

4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30.);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30.)

4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0. 22.); 『신청인 이계성 진술조서』(2009. 8. 1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신청인 권병주 진술조서(다-3047)』(2007. 4. 11.)

43) 『신청인 양율이 진술조서』(2008. 4. 2.); 『신청인 손영운 진술조서』(2008. 4. 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0.)

44)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 연구(하)』, 역사비평사, 1999, 562쪽.

45) 완도군지편찬위원회, 『완도군지』, 1992, 363쪽;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4.)

46)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7.); 『단기 4284년 형공 제215호』,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951. 6. 16.; 『단기4285년 형공비 제248호』, 대구지방법원, 1951. 6. 13.

밖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UN군이 상륙하여 모두 죽인다’, ‘경찰이 들어오면 모두 죽인다’는 지방좌익의 선전이 있었고, 그에 따라 좌익 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강진군 마량면, 장흥군 대덕읍·회진면 등 인접한 육지로 떠나는 주민들이 많았다.⁴⁷⁾ 그러나 육지로 나갔던 완도지역 주민들은 3~4일이 지난 후 다시 자신들의 원래 거주지로 돌아오거나 일부는 원래 거주지로 돌아가려다가 지방좌익에 의해 희생당하였고,⁴⁸⁾ 일부는 장흥군 등지로 입산하였다.

전남지역 경찰들은 1950. 9. 20.경 여수경찰서로 모두 집결하라는 명령을 받고 여수로 집결하였는데, 완도지역 경찰의 경우 간부급 이상은 여수로 집결하였고 그 이하 경찰들은 피신해있던 청산도에서 완도읍으로 바로 진주하여⁴⁹⁾ 1950. 10. 3. 완도읍을 수복하였다.⁵⁰⁾

2. 사건 발생 시기·장소 및 희생규모

가. 『6.25사변 피살자명부』등의 자료 검토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 완도지역에서 발생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의 발생 시기 및 장소, 희생규모를 확인하고자 한국전쟁 관련 희생자 명부인 『6·25사변 피살자명부』,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 『6·25사변 피납치자명부』를 검토하였다.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6·25사변 피살자명부』에 등재된 완도지역 희생자 수는 총 209명이다. 이 명부에는 희생자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피살연월일, 피살장소, 본적,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완도지역 희생자 209명 중, 진실규명대상자는 37명이,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는 20명이 등재되어 있다.

『6·25사변 피살자명부』에 등재된 희생자 수를 각 읍·면별로 나누어 보면, 약산면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금일읍, 고금면이 그 뒤를 잇는다. 희생자 수를 사건 발생 시기별로 살펴보면, 1950. 7월에는 6명, 8월에는 46명, 9월에는 118명, 10월에는 39명이 희생당하여 9월에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전쟁 당시 완도지역이 육지와 떨어져 있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9월이 되어서야 인민군

47) 완도군지편찬위원회, 『완도군지』, 1992, 363쪽; 『참고인 ○○○ 진술조서』(2008. 6. 26.);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30.);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7.)

48) 원래 거주지로 돌아오려다가 희생당한 경우는 진실규명대상자 송복신, 송정순, 김옥자, 김태정, 최규승 일가 등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본 결정서의 ‘약산면 관산리 송복신, 송정순 희생사건’, ‘약산면 관산리 김옥자, 김태정 희생사건’, ‘약산면 관산리 최규승 일가 희생사건’ 참조.

4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3.); 『신청인 김옥주 진술조서』(2009. 9. 17.)

50) 완도군지편찬위원회, 『완도군지』, 1992, 363쪽.

에 의해 점령되었기 때문에 희생사건이 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의 <표 4>는 『6·25사변 피살자명부』에 등재된 완도지역 희생자 수를 사건발생 시기 및 각 읍·면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4> 『6·25사변 피살자명부』상 완도지역 희생자 수

	군외 면	완도 읍	신지 면	고금 면	약산 면	금당 면	금일 읍	소안 면	노화 읍	보길 면	기타	미상	계
1950. 7월	-	-	-	-	1	-	1	-	-	-	-	4	6
1950. 8월	-	2	8	3	-	-	-	23	2	2	6	-	46
1950. 9월	5	4	-	20	18	3	21	2	1	1	38	5	118
1950. 10월	1	-	-	5	13	-	7	-	-	-	12	1	39
계	6	6	8	28	32	3	29	25	3	3	56	10	209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전라남도)에는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 완도지역에서 순국한 23명의 명단이 등재되어 있다. 명부에는 희생자(순국동지)의 성명, 출생년도, 본적, 주소, 직위 및 소속, 당시 소속단체 및 직위, 학력 및 경력, 순국투쟁 개황 등이 등재되어 있는데,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완도지역 희생자 23명 중 진실규명대상자는 김길순, 서창호 등 2명이 등재되어 있다.

『6·25사변 피납치자명부』에는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 적대세력에 의해 납치된 희생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납치일이 등재되어 있는데, 이 명부에 등재된 완도지역 진실규명대상자 및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는 없었다.

나. 사건 발생 시기·장소 및 희생자 수

완도지역에서 발생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중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된 사건 및 미신청사건을 조사한 결과, 1948. 5. 9.부터 1950. 10. 4.까지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완도읍, 고금면, 약산면, 금당면, 금일읍, 소안면, 노화읍 등 8개 읍·면에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진실규명대상자 67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26명, 총 93명이 희생당하였음을 확인 또는 추정하였다.

조사결과 확인된 완도지역 희생자 수를 사건발생 시기 순으로 나눈 후, 이를 다시 각 읍·면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5>와 같고, <표 6>는 진실규명신청사건 및 미신청사건

제 3 권

의 발생 시기, 장소 및 희생자 수를 완도지역 각 읍·면별로 정리한 것이다.⁵¹⁾

〈표 5〉 진실규명신청사건 및 미신청사건 조사결과 완도지역 희생자 수

	군외면	완도읍	고금면	약산면	금당면	금일읍	소안면	노화읍	계
1948년	—	—	—	1	—	—	—	—	1
1949년	—	—	—	—	—	—	5	—	5
1950. 7월	—	—	—	—	—	—	—	—	—
1950. 8월	—	—	—	—	—	—	3	7	10
1950. 9월	1	11	5	15	4	25	1	—	62
1950. 10월	—	—	—	15	—	—	—	—	15
계	1	11	5	31	4	25	9	7	93

〈표 6〉 진실규명신청사건 및 미신청사건 발생 시기·장소 및 희생자 수

연번	사건명	발생시기	발생장소	희생자 수		비고
				진실규명 대상자	미신청 희생자	
군외면						
1	군외면 황진리 이원춘 희생 사건	1950.9.14.	군외면 황진리 중리마을 앞 갯 벌둑	1	—	
완도읍						
2	완도읍 군내리 완도내무서 희생사건	1950.9.30.	완도읍 군내리 주도 앞바다	10	1	
고금면						
3	고금면 청학리 박태규 희생 사건	1950.9.5.	고금면 청학리 부둣가	1	—	
4	고금면 가교리 황복윤 희생 사건	1950.9.15.	고금면 가교리 부둣가	1	—	
5	고금면 덕동리 덕동분주소 희생사건	1950. 9.17.~30.	고금면 덕동리 앞바다	1	2	
약산면						
6	약산면 득암리 최윤열 희생 사건	1948.5.9.	약산면 득암리 자택	1	—	

51) 완도군 전체 12개 읍·면 중, 조사결과 희생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신지면, 생일면, 보길면, 청산면은 〈표 5〉, 〈표 6〉에서 제외하였다.

제 1 부 제1소위원회 사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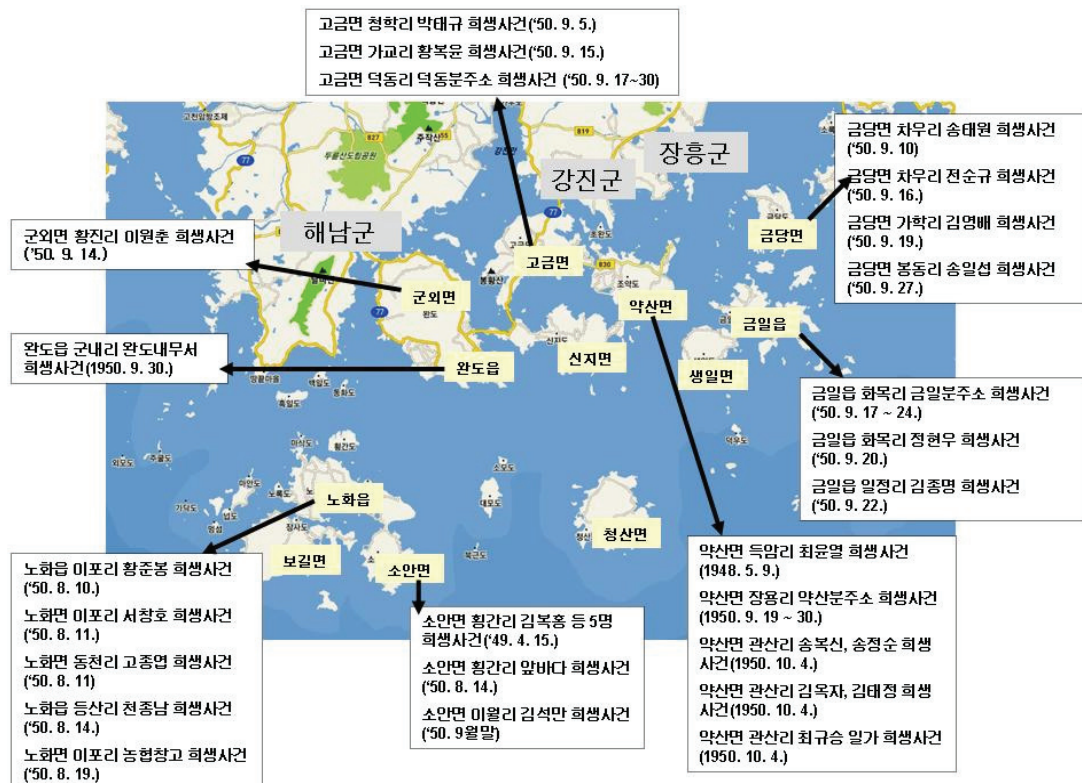
연 번	사건명	발생시기	발생장소	희생자 수		비고
				진실규명 대상자	미신청 희생자	
7	약산면 장용리 약산분주소 희생사건	1950. 9.19.~30.	약산면 장용리 대죽도 앞바다	11	4	
8	약산면 관산리 송복신 일가 희생사건	1950.10.4.	장흥군 대덕읍과 완도군 사이 바다	2	—	
9	약산면 관산리 김옥자 남매 희생사건	1950.10.4	장흥군 대덕읍과 완도군 사이 바다	2	—	
10	약산면 관산리 최규승 일가 희생사건	1950.10.4	장흥군 대덕읍과 완도군 사이 바다	11	—	
금당면						
11	금당면 차우리 송태원 희생 사건	1950.9.10	금당면 차우리 목섬 앞바다	1	—	
12	금당면 차우리 전순규 희생 사건	1950.9.13.	금당면 차우리 자택 부근 길거리	1	—	
13	금당면 가학리 김영배 희생 사건	1950.9.19.	금당면 가학리 길거리	1	—	
14	금당면 봉동리 송일섭 희생 사건	1950.9.27.	금당면 봉동리 바닷가	1	—	
금일읍						
15	금일읍 화목리 금일분주소 희생사건	1950. 9.17.~24.	금일읍 화목리 치곶 앞바다	7	15	
16	금일읍 화목리 정현우 희생 사건	1950.9.20.	금일읍 화목리 읍사무소 앞 광장	1	—	
17	금일읍 일정리 김종명 희생 사건	1950.9.22.	금일읍 일정리 앞바다	1	1	
소안면						
18	소안면 횡간리 김복홍 등 5 명 희생사건	1949.4.15.	소안면 횡간리와 노화읍 사이 바다	4	1	
19	소안면 횡간리 앞바다 희생 사건	1950.8.14.	소안면 횡간리 앞바다	3	—	
20	소안면 이월리 김석만 희생 사건	1950. 9월 말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부둣가	1	—	
노화읍						
21	노화읍 이포리 황준봉 희생 사건	1950.8.10.	노화읍 이포리 길거리	1	—	
22	노화읍 이포리 서창호 희생 사건	1950.8.11.	노화읍 이포리 부둣가	1	—	
23	노화읍 동천리 고종엽 희생 사건	1950.8.11.	노화읍 동천리와 소안면 사이 바다	1	—	

제 3 권

연 번	사건명	발생시기	발생장소	희생자 수		비고
				진실규명 대상자	미신청 희생자	
24	노화읍 등산리 천종남 희생 사건	1950.8.14.	노화읍 등산리와 보길면 사이 바다	—	1	미신청 사건
25	노화읍 이포리 농협창고 희 생사건	1950.8.19.	해남군 송지면 월송리 야산	2	1	
계	총 25건	—	—	67명	26명	—

다음의 [그림 2]는 진실규명신청사건과 미신청사건의 발생 시기 및 장소를 완도군 각 읍·면 지도 위에 표시한 것이다.

[그림 2] 완도지역 각 읍·면별 희생장소



3. 사건내용

완도지역에서 발생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중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된 사건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미신청사건을 조사한 결과, 1948. 5. 9.~1950. 10. 4.에 완도군 군외면, 완도읍, 고금면, 약산면, 금당면, 금일읍, 소안면, 노화읍에서 희생사건이 발생하였고, 총 93명이 희생당하였음을 확인 또는 추정하였다. 이에 사건의 내용을 완도지역 각 읍·면별로 사건이 발생한 시기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군외면

군외면은 해남군 북평면과 인접해 있으며 완도읍과 함께 완도(莞島)에 위치해 있다. 군외면은 1896년 완도군이 신설됨에 따라 이전까지 강진군, 영암군, 해남군에 속해있던 마을들이 군외면에 속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⁵²⁾

군외면에서 발생한 사건은 해남군 북평면에 주둔하고 있던 인민군이 군외면으로 진주하던 당시 야경을 서던 군외면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군외면 황진리 이원춘 희생사건(마-871, 1950. 9. 14.)

군외면 황진리 중리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던 진실규명대상자 이원춘(李垣春, 남, 38, 이명 이십천)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부터 마을의 다른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지시에 따라 마을 부근에서 야경을 서곤 했었다.⁵³⁾ 당시 군외면 각 마을청년들은 해남군과 인접해 있는 군외면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경찰의 지시에 따라 매일 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야경을 섰고, 이원춘 역시 마찬가지였다.⁵⁴⁾

1950. 9. 13.(음 8. 2.) 밤, 이원춘은 중리마을 청년들과 함께 황진리 중리마을 앞 갯벌을 둘러싸고 있는 독 위에서 야경을 서고 있던 중, 이튿날인 1950. 9. 14.(음 8. 3.) 새벽, 해남군에서 배를 타고 완도군으로 진주해 온 인민군이 쏜 총에 맞아 희생당하였다.⁵⁵⁾

이원춘이 희생당한 사실은 이내 마을에 알려졌고, 소식을 들은 이원춘의 부인이 사건발생 장소로 가 이원춘의 시신을 수습하였는데,⁵⁶⁾ 시신에는 가슴에 총을 맞은 흔적이 있었다고 한다.⁵⁷⁾

52) 군외면사무소 홈페이지(<http://www.wando.go.kr/vil03/>) 참조.

53) 『신청인 이승화 진술조서』(2008. 4. 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3.)

54)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3.)

55) 『신청인 이승화 진술조서』(2008. 4. 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3.)

56)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3.); 『신청인 이승화 진술조서』(2009. 9. 13.)

나. 완도읍

완도읍은 군외면과 함께 완도(莞島)에 위치해 있다. 완도읍은 1896년 완도군이 신설됨에 따라 ‘군내면’이라 지칭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완도면이 되었고, 이후 다시 1943년 완도읍으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⁵⁸⁾

완도읍에서 발생한 희생사건은 완도지역을 점령했던 인민군 및 지방좌익이 완도읍을 퇴각하면서 완도내무서⁵⁹⁾에 감금되어 있던 우익 40여 명을 군내리 주도 앞바다로 끌고가 바다에 수장시킨 사건이다.

○ 완도읍 군내리 완도내무서 희생사건(마-935 등 8건, 1950. 9. 30.)

1950. 9. 14. 인민군이 완도읍에 진주한 이후부터 완도읍, 노화읍, 신지면, 청산면 등지에 거주하던 우익인사들은 인민군 및 지방좌익에 의해 완도내무서로 끌려왔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까지 40여 명이 완도내무서 유치장에 감금되어 있었다.⁶⁰⁾

그러나 완도읍에 진주했던 인민군은 진주한 지 2주일 정도가 지난 1950. 9. 30. 새벽부터 후퇴준비를 하기 시작하였다. 1950. 9. 30.(음 8. 19.) 저녁 6시경, 인민군 및 지방좌익은 완도내무서에 감금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해남군으로 가서 인민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한명씩 호명하였고, 4명씩 줄을 세운 후 두 손을 전깃줄로 묶었다.⁶¹⁾ 이후 전깃줄에 묶인 사람들은 완도내무서에서 완도읍 군내리 향(現 완도읍 향만터미널)으로 끌려갔고, 향에 정박해 있는 배에 태워졌다.⁶²⁾ 배 안에는 둘레가 약 50cm 정도 크기의 돌이 있었는데, 인민군 및 지방좌익은 그 돌을 4명이 묶여 있는 전깃줄에 3개씩 매달았다.⁶³⁾ 이후 배 1척 당 희생자 8명이 태워졌고, 인민군 및 지방좌익 7~8명이 총과 칼을 든 채로 함께 배에 탔는데, 배는 향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 있는 주도(珠島, 일명 추섬) 앞

서」(2008. 4. 3.)

57) 「신청인 이승화 진술조서」(2008. 4. 3.)

58) 군외면사무소 홈페이지(<http://www.wando.go.kr/vil06/>) 참조.

59) 완도내무서는 당시의 완도경찰서를 말한다. 1950년 당시 완도경찰서는 현재의 완도읍 군내리 삼호그린빌 아파트 자리에 위치해 있었으나 1998. 3. 17.에 청사가 이전되어 현재는 완도읍 죽청리 483-28번지에 위치해 있다.

60)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0.) 참고인 ○○○은 당시 완도내무서에 유치장이 2개 있었고, 각 유치장에 20여 명씩 총 43명이 감금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완도군지』와 『광복30년』4권에는 내무서에 감금된 사람이 48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본 결정서는 완도내무서에 감금된 인원을 확정하지 않고 40여 명으로 표현하였다.

6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0.)

6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0.)

6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0.)

바다에서 멈췄다.⁶⁴⁾ 인민군 및 지방좌익은 주도 앞바다에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4명씩 차례로 바다로 수장시켰고, 바다에 빠진 사람들은 그대로 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하거나 수면 위로 떠오른 경우에는 인민군 및 지방좌익이 쏜 총에 맞아 희생당하였다.⁶⁵⁾

희생자들의 시신은 바닷물의 흐름에 따라 완도읍 군내리, 가용리 등 육지로 떠밀려온 경우에는 발견되어 수습되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수습되지 못하였다.⁶⁶⁾ 희생자들은 주로 대한청년단원 등 우익활동 경력이 있거나 공무원이라는 이유, 부유하다는 이유 등이 영향을 미쳐 희생당하였다.

그러나 당시 완도내무서에 갇혀 있던 40여 명이 모두 희생당한 것은 아니었다. 바다에 수장되었다가 줄이 풀리거나 혹은 총에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생존한 사람도 있었다. 생존자들은 이후 ‘생환계’를 조직하여 몇 번의 모임을 가지곤 했는데,⁶⁷⁾ 생환계원으로는 임홍윤,⁶⁸⁾ 권장훈,⁶⁹⁾ 김기순,⁷⁰⁾ 문관식, 박창제,⁷¹⁾ 최상수,⁷²⁾ 김명환, 고명환 등이 있었다.⁷³⁾ 그 외에도 생환계원은 아니었으나 최항율,⁷⁴⁾ 이용남⁷⁵⁾이 생존하였다.

완도내무서에 감금되어 있던 40여 명 중 생존자를 제외한 전체 희생자는 30여 명으로

64)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0.)

6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0.)

66) 조사결과 진실규명대상자 최경춘,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조성삼 등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희생자들의 시신은 모두 수습되었다.

6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0.);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4.) 생환계원이었던 참고인 ○○○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만 해도 교통, 통신이 불편했을 때였기 때문에 생환계의 모임은 1년에 한 번씩, 단 2번의 모임을 가진 후 더 이상 지속되지 못했다고 한다.

68) ○○○은 바다에 빠졌으나 손에 묶인 줄이 헐거워져 줄이 풀렸고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지 않고 고개를 뒤로 젖힌 채 해엄을 쳐 우선 주도에 도착하였다가 다시 완도읍에 도착하여 생존하였다고 한다.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0.)

69) 권장훈은 노화읍 동고리 거주하였는데, 생존 이후 진도로 이주했고 현재는 사망했다고 한다.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0.)

70) 김기순은 소안면 횡간리에 거주하였고, 현재는 사망했다고 한다.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0.)

71) 박창제는 완도읍 군내리에 거주하였는데, 일제시대 때 일본인과 함께 학원을 차려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주었던 경력이 원인이 되어 완도내무서로 끌려갔었다고 한다. 박창제는 『완도군지』 편찬에 참여하여 이 사건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었다고 한다.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4.)

72) 최상수는 완도읍 정도리에 거주하였는데, 사위가 경찰이라는 이유로 완도내무서로 끌려갔었다고 한다.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4.);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0.)

7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0.)

74) 최항율은 신지면 동촌리에 거주하였고 대한청년단원이었다. 최항율은 바다에 수장되었으나 자신에게 매달려 있던 돌이 줄에서 풀려 물위로 떠올랐고 이후 해엄을 쳐서 생존하였다고 한다. 최항율은 몇 년 전 병사하였다고 한다.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30.);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30.);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30.)

75) 이용남은 신지면 대평리에 거주하였는데, 서울에서 군인으로 근무했었다는 이유로 신지분주소, 완도내무서로 끌려갔었다고 한다.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3.)

제 3 권

추정되는데, 조사결과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과 제적등본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총 11명으로, 이중 진실규명대상자는 최윤신, 김복길, 최경춘, 황래봉, 황세봉, 임남선, 김길순, 김경석, 김경안, 김국흠 등 10명이고,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는 조성삼 1명이다.⁷⁶⁾ 다음의 <표 7>은 희생자 명단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7> 완도읍 군내리 완도내무서 희생자 명단

연번	희생자				사신수습 여부	비고 (사건번호)
	이름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1	최윤신 (崔允信)	남	43	신지면 동촌리	○	마-935
2	김복길 (金福吉)	남	29	신지면 신상리	○	마-6120
3	최경춘 (崔慶春)	남	26	고금면 가교리	×	마-7277
4	황래봉 (黃來鳳)	남	43	노화읍 도청리	○	마-7652
5	황세봉 (黃世鳳)	남	40	노화읍 도청리	○	마-6762
6	임남선 (林南先)	남	34	노화읍 도청리	○	마-7653
7	김길순 (金吉順)	남	49	노화읍 도청리	○	마-7654
8	김경석 (金敬石)	남	35	소안면 횡간리	○	마-10714
9	김경안 (金敬安)	남	31	소안면 횡간리	○	
10	김국흠 (金局欽)	남	19	소안면 횡간리	○	
11	조성삼 (趙成三)	남	31	신지면 동촌리	×	미신청

76) 『완도군지』에는 이 사건의 희생자가 “李天鎔 夫妻, 朴相俊, 金基奉, 黃世鳳兄弟, 金吉順 등 40여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완도군지편찬위원회, 『완도군지』, 1992, 363쪽.) 이중 황세봉 형제, 김길순은 진실규명대상자로 그 희생사실이 확인되나 이천용 부처, 박상준, 김기봉은 참고인 진술을 통해 일부 희생사실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이들의 제적등본이 확보되지 않는 등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본 결정서에서는 이들을 희생자로 확정하지 않았다.

1) 최윤신 희생사건(마-935, 1950. 9. 30.)

진실규명대상자 최윤신(崔允信, 남, 43)은 신지면 동촌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동촌리에서는 부유한 편에 속하였다.⁷⁷⁾ 최윤신은 특별한 우익활동은 하지 않아 그가 희생당한 데에는 동촌리에서 부유한 편에 속한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1950. 9월 어느 날, 최윤신은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신지분주소로 끌려갔고 이후 다시 완도내무서로 끌려가 그곳에 감금되었다가 1950. 9. 30.(음 8. 19.), 완도읍 군내리 주도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⁷⁸⁾

최윤신의 유가족은 마을 소문을 통해 최윤신이 희생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신지면 동촌리에서 배를 타고 완도읍으로 가서 군내리 바닷가 자갈밭에 있는 최윤신의 시신을 수습하였다. 시신수습 당시 최윤신의 시신은 전깃줄로 묶여 있었고 머리에는 총상 흔적이 있었다고 한다.⁷⁹⁾

2) 김복길 희생사건(마-6120, 1950. 9. 30.)

진실규명대상자 김복길(金福吉, 남, 29)은 신지면 신상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신상리에서는 부유한 편에 속하였다.⁸⁰⁾ 김복길은 신지면 의경으로 활동하였는데,⁸¹⁾ 이러한 의경활동 경력이 김복길이 희생당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⁸²⁾

김복길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신지면이 인민군의 점령 하에 놓이게 되자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신지동초등학교 교실 밑 땅바닥으로 피신하였고, 밤에만 잠시 자택에 들르곤 하였다.⁸³⁾ 그러던 중 1950. 9월 어느 날 밤, 김복길은 집에 들렀다가 다시 피신처로 돌아

7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30.);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30.);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30.); 『참고인 조남금 진술조서』(2008. 5. 7.)

78) 『참고인 조남금 진술조서』(2008. 5. 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30.);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30.);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30.); 『신청인 김상록 진술조서』(2009. 8. 14.) 최윤신이 희생당할 당시 신지면 동촌리 거주자였던 최항을 역시 수장되었으나 자신에게 매달려 있던 돌이 줄에서 풀려 해엄을 쳐 생존하였다. 이후 최항을은 마을로 돌아와 자신이 최윤신이 수장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말해주었다고 한다.

79) 『참고인 조남금 진술조서』(2008. 5. 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30.);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30.);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30.)

80)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3.)

81) 『신청인 김상록 진술조서』(2009. 8. 14.)

82) 『신청인 김상록 진술조서』(2009. 8. 14.) 신청인 김상록은 김복길이 한국전쟁 발발 이전 의경으로 활동하던 당시 신지면 경찰에게 신상리 지방좌익의 행방을 알려주었고, 그로 인해 그 지방좌익이 경찰에 의해 살해당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원인이 되어 김복길이 희생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3) 『신청인 김상록 진술조서』(2009. 8. 14.)

가다가 마을사람 누군가에게 그 모습이 발각되었고, 이 사실은 곧 지방좌익에게 전해져 김복길은 지방좌익에게 붙잡혀 신지분주소로 끌려갔다.⁸⁴⁾ 이후 김복길의 가족들은 김복길이 신지분주소에 감금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며칠 후 완도읍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희생당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⁸⁵⁾ 이후 완도읍 군내리 바닷가로 가서 바닷가 부근 바위 위에 있는 김복길의 시신을 수습하였다.⁸⁶⁾

3) 최경춘 희생사건(마-7277, 1950. 9. 30.)

진실규명대상자 최경춘(崔慶春, 남, 26)은 고금면 가교리에 거주하며 의경으로 활동하였다.⁸⁷⁾ 그리고 최경춘의 집안은 농업 규모가 커 가교리에서는 부유한 편에 속하였는데,⁸⁸⁾ 이러한 집안 배경과 최경춘의 의경활동 경력이 그가 희생당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최경춘은 1950. 9. 26.(음 8. 15.) 이전,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끌려 나갔고,⁸⁹⁾ 이후 완도내무서로 끌려가 그곳에 감금되었다가 1950. 9. 30.(음 8. 19.), 군내리 주도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⁹⁰⁾

최경춘의 유가족은 완도내무서에 감금되었다가 풀려나 고금면으로 돌아온 사람들로부터 최경춘의 희생사실을 전해 들었고,⁹¹⁾ 이후 완도읍 군내리 바닷가로 가 수많은 시신을 모두 뒤집어 보며 최경춘의 시신을 찾고자 하였으나 결국 찾지 못하였다.⁹²⁾

84) 「신청인 김상록 진술조서」(2009. 8. 14.)

85) 「신청인 김상록 진술조서」(2009. 8. 14.);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3.)

86) 「신청인 김상록 진술조서」(2009. 8. 14.)

87) 「신청인 최영옥 진술조서」(2008. 5. 6.);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3.)

88)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3.); 「신청인 최영옥 진술조서」(2008. 5. 6.)

8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3.) 참고인 ○○○은 최경춘의 부인으로, 최경춘이 끌려갈 당시 자택에서 그 모습을 목격하였다.

90)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3.); 「신청인 최영옥 진술조서」(2008. 5. 6.); 참고인 ○○○은 자신이 완도읍에서 감찰부원으로 활동할 당시 완도내무서에 간혀있는 최경춘을 목격했었다고 한다.

9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3.) 최경춘과 함께 완도내무서에 감금되었던 고금면 거주자 김충호, 우재호는 지방좌익 중 친척이 있어 그의 도움으로 바다에 수장되지 않고 생존하였는데, 최경춘의 유가족은 이들로부터 최경춘이 완도내무서에 감금되었다가 희생당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92) 「신청인 최영옥 진술조서」(2008. 5. 6.);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3.)

4) 황래봉, 황세봉 형제(마-7652, 마-6762, 1950. 9. 30.)

진실규명대상자 황래봉(黃來鳳, 남, 43), 황세봉(黃世鳳, 남, 40)은 노화읍 도청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이들 형제는 모두 도청리에서는 부유한 편이었다.⁹³⁾ 황세봉, 황래봉 형제의 가족 중에는 공무원, 대한청년단원이 있었고, 가족 모두가 도청리에서는 부유한 편이었는데, 이러한 집안 배경이 이들 형제가 희생당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1950. 8월 어느 날, 황래봉, 황세봉은 동생 황준봉과 함께 지방좌익에 의해 노화읍 이포리에 있는 리사무소로 끌려가 그곳에 감금되어 구타를 당하였다. 이후 황준봉은 지방좌익에 의해 희생당하였고,⁹⁴⁾ 황래봉, 황세봉은 풀려났다. 그러나 황세봉, 황래봉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청리를 떠나 완도읍으로 피난을 나갔는데, 그곳에서 인민군 및 지방좌익에게 붙잡혀 완도내무서로 끌려가 감금되었고, 1950. 9. 30.(음 8. 19.), 군내리 주도 앞 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⁹⁵⁾

황래봉, 황세봉의 시신은 완도읍에서 수습되었고, 약 1달이 지난 후에 노화읍으로 옮겨졌다.⁹⁶⁾

5) 임남선 희생사건(마-7653, 1950. 9. 30.)

진실규명대상자 임남선(林南先, 남, 34, 이명 임홍태)은 노화읍 도청리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는데, 도청리에서는 부유한 편이었다. 그리고 임남선은 대한청년단원이었고,⁹⁷⁾ 그의 동생 임홍운은 노화면사무소 직원이었는데,⁹⁸⁾ 이러한 임남선의 대한청년단 활동경력과 집안 배경이 그가 희생당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노화읍에 인민군이 진주한 이후, 임남선은 노화읍 이포리 농협창고로 끌려가 감금되었는데, 1950. 9월 중순경 노화읍에 장흥경찰부대가 잠시 진주했을 때 풀려났다.⁹⁹⁾ 이후 임남선

93) 「신청인 황종채 진술조서」(2008. 5. 8.); 「신청인 황종길 진술조서」(2008. 4. 14.); 「신청인 황종국 진술조서」(2008. 5. 2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0.)

94) 「신청인 황종채 진술조서」(2008. 5. 8.); 「신청인 황종국 진술조서」(2008. 5. 29.) 황준봉의 희생사실에 대해서는 '노화읍 이포리 황준봉 희생사건' 참조.

9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0.); 「신청인 황종채 진술조서」(2008. 5. 8.);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5.); 「신청인 황종길 진술조서」(2008. 4. 14.); 「신청인 황종국 진술조서」(2008. 5. 29.);

96)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0.); 「신청인 황종채 진술조서」(2008. 5. 8.); 「신청인 황종길 진술조서」(2008. 4. 14.);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5.);

97) 「신청인 임진일 진술조서」(2008. 5. 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0.)

98)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0.)

은 동생 임홍윤 등 형제들과 함께 도청리를 떠나 완도읍에 있는 친척집으로 피난을 갔으나, 그곳에서 인민군 및 지방좌익에 의해 완도내무서로 끌려가 약 1주일 정도 감금되었다.¹⁰⁰⁾ 이후 임남선은 1950. 9. 30.(음 8. 19.), 군내리 주도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¹⁰¹⁾

당시 임남선의 동생 임홍윤 역시 바다에 수장되었지만 손에 묶인 줄이 풀려 해엄을 칠 수 있게 되어 생존하였다. 이후 임홍윤은 완도읍 군내리 바닷가에서 임남선의 시신을 수습하여 완도읍에 가매장하였다가 약 1달이 지난 후 노화읍으로 옮겨 매장하였다.¹⁰²⁾

6) 김길순 희생사건(마-7654, 1950. 9. 30.)

진실규명대상자 김길순(金吉順, 남, 49)은 1945년 이후 노화읍사무소에 근무하게 되면서 고향인 완도읍 중도리를 떠나 노화읍 도청리에 거주하고 있었다.¹⁰³⁾

김길순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노화읍 도청리를 떠나 다시 고향인 완도읍 중도리로 이주하였는데, 지방좌익에 의해 완도내무서로 끌려갔고, 이후 1950. 9. 30.(음 8. 19.), 군내리 주도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¹⁰⁴⁾

김길순의 유가족은 완도읍 가용리 앞바다에서 김길순의 시신을 수습하였다.¹⁰⁵⁾

7) 김경석, 김경안, 김국흠 형제(마-10714, 1950. 9. 30.)

진실규명대상자 김경석(金敬石, 남, 35), 김경안(金敬安, 남, 31)은 소안면 횡간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고, 김국흠(金局欽, 남, 19)은 목포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한

99) 『신청인 임진일 진술조서』(2008. 5. 2.) 1950. 9월 중순경, 노화읍에 장흥경찰부대가 잠시 진주하여 농협창고에 감금되어 있던 사람들을 풀어줬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중략)...노화도에 침공한 괴뢰군 50명을 섬멸하고자 심(沈)총경이 진두지휘하는 장흥부대 180명은 노화, 소안, 보길도에 상륙하여 괴뢰군 10명을 사살하고 납치당한 양민 330명을 구출하는 한편 50명을 청산도에 소개하고 대원 100명을 그 섬에 주둔케 하여 경비에 만전을 다 하였다...(중략)...” 완도군지편찬위원회, 『완도군지』, 1992, 361쪽.

100)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0.) 임남선이 끌려간 이후 그의 동생 ○○○도 완도내무서로 끌려갔는데, ○○○이 완도내무서에 도착하니 그곳에 이미 임남선을 비롯하여 황세봉, 황래봉, 김길순도 끌려와 감금되어 있었다고 한다.

10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0.); 『신청인 임진일 진술조서』(2008. 5. 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5.)

10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0.) 참고인 ○○○은 형 임남선의 시신을 수습하고 약 1달 동안 완도읍에 임시로 매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경비, 사람, 배를 구해 노화읍으로 옮겼는데, 당시만 해도 완도읍에서 노화읍까지 가는데 배로 약 4시간 정도 걸렸었다고 한다.

10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4.)

104)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0.); 『신청인 김용인 진술조서』(2008. 4. 2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4.)

105) 『신청인 김용인 진술조서』(2008. 4. 2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5.)

국전쟁이 발발하자 고향인 소안면 횡간리로 돌아와 거주하고 있었다.¹⁰⁶⁾ 이들 형제는 자신들의 큰형인 김경운¹⁰⁷⁾의 행적을 찾으라는 횡간리 지방좌익의 요구에 못 이겨 횡간리를 떠나 청산면으로 피신하였고 다시 완도읍으로 갔다가, 1950. 9. 30.(음 8. 19.), 군내리 주도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¹⁰⁸⁾

이들의 유가족은 완도읍 군내리 바닷가에서 이들 3명의 시신이 함께 묶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수습하였고, 이후 횡간리로 시신을 옮겨 매장하였다.¹⁰⁹⁾

이상의 진실규명대상자 외에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로는 조성삼이 있다.

조성삼은(趙成三, 남, 31)은 신지면 동촌리에서 농사를 지었고, 대한청년단장으로 활동하였으며, 동촌리에서는 부유한 편에 속하였다.¹¹⁰⁾

한국전쟁 발발 이후, 조성삼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동촌리를 떠나 인근 섬으로 피신하였는데,¹¹¹⁾ 1950. 9월 어느 날, 자택에 돌아왔다가 지방좌익에 의해 신지분주소로 끌려갔고, 이후 다시 완도내무서로 끌려갔다가 1950. 9. 30.(음 8. 19.), 군내리 주도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¹¹²⁾

조성삼의 유가족은 완도읍 군내리를 비롯하여 그 외 지역에서 시신이 발견됐다고 전해지는 곳은 모두 찾아다녔으나 결국 조성삼의 시신을 찾지 못하였다.¹¹³⁾

다. 고금면

고금면은 북쪽으로 강진군 마량면과 접해 있고, 동쪽의 약산면과 남쪽의 신지면에 둘러싸여 있다.

고금면에 인민군이 진주한 것은 1950. 9. 15. 새벽이었다. 1950. 7월 말, 강진군을 점령한 인민군은 강진군 마량면에 주둔해 있으면서 완도군 고금면으로 진주하기 위한 시도를

106) 「신청인 김재옥 진술조서」(2008. 7. 25.)

107) 김경운은 소안면 횡간리 우익의 지도자였는데,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지방좌익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해남군으로 피신을 한 상태였다고 한다. 「참고인 ○○○ 진술조서」(2008. 8. 17.)

108) 「신청인 김재옥 진술조서」(2008. 7. 25.); 「참고인 ○○○ 진술조서」(2008. 8. 17.); 「참고인 ○○○ 진술조서」(2008. 8. 17.) 김경석, 김경안, 김국흠 형제는 횡간리를 떠날 때 횡간리 해상에 있던 나주경찰부대를 만나 청산도로 피신했었는데, 이를 참고인 ○○○이 목격하였다고 한다.

109) 「신청인 김재옥 진술조서」(2008. 7. 25.)

110)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30.);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30.)

111) 조성삼은 희생당하기 이전 신지면 지방좌익(자위대원)에 의해 가산을 강취당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단기 4284년 형공 제121호」,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951. 8. 1., 1쪽.

11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30.);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30.);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30.); 「신청인 김상록 진술조서」(2009. 8. 14.)

11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30.)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고, 그를 저지하고자 고금면에 주둔해 있던 경찰은 인민군과 교전을 벌이거나 고금면 각 마을 청년들에게 야경을 서도록 하였다.¹¹⁴⁾ 그러던 중 1950. 9. 15. 새벽, 인민군은 강진군 마량향에서 배를 타고 고금면으로 건너왔고 그날부터 고금면은 인민군 점령 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인민군은 고금면에 도착한 후 바로 고금면을 떠났고, 실질적으로 고금면을 지배한 것은 지방좌익이었다.¹¹⁵⁾ 이후 고금면 면소재지인 고금면 농상리에 인민위원회, 자위대가 조직되고 분주소가 설치되었으며, 농상리 외에 1949년까지 고금면의 면소재지였던 덕동리에도 출장소 형식의 분주소¹¹⁶⁾가 추가로 설치되어 1950. 9월 말까지 지방좌익의 활동이 지속되었다.¹¹⁷⁾

고금면에서는 1950. 9. 5.~30. 사이에 청학리, 가교리, 덕동리에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각 사건의 내용을 발생 시기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금면 청학리 박태규 희생사건(마3079, 1950. 9. 5.)

완도군 고금면 각 마을 청년들은 경찰의 지시에 따라 강진군 마량면에 주둔해 있는 인민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마량면과 마주보는 바닷가 부근에서 매일 보초를 서곤 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태규가 야경을 서던 중 희생당하였다.

진실규명대상자 박태규(朴太圭, 남, 29)는 고금면 청룡리에 거주하였고, 고금초등학교 교사였다.¹¹⁸⁾

1950. 9. 5.(음 7. 23.), 박태규는 다른 마을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고

114)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30.);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3.); 「참고인 ○○○ 진술조서」(2008. 6. 26.)

115) 「신청인 오광재 진술조서」(2009. 5. 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30.);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3.); 「신청인 최영옥 진술조서」(2008. 5. 6.)

116) 고금면 덕동리는 1949.까지 고금면과 약산면의 면소재지였으나 1949년 약산면이 고금면에서 분면되면서 고금면의 면소재지가 덕동리에서 현재의 농상리로 이전되었다. 따라서 고금분주소는 농상리에 위치해 있었고, 덕동리에 있는 분주소는 일종의 출장소 형식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 및 참고인들은 이에 대해 교육구청, 교회, 지서, 지서 출장소, 분주소 등으로 다양하게 진술하였는데, 그 건물이 '지방좌익이 쓰던 사무실'이었다는 것은 공통된 진술내용이었다. 따라서 본 결정서는 희생자들이 감금되었던 건물이 예전의 지서 건물이었다는 참고인 ○○○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농상리에 있는 고금분주소와 구분하기 위해 '덕동분주소'로 표기하였다. 현재는 덕동분주소가 위치해 있던 자리에는 교회가 들어서 있다. 이상 고금면 거주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서 및 고금면사무소 홈페이지(<http://www.wando.go.kr/vil01/>) 참조.

117) 「단기 4284년 형공 제165호」,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951. 8. 1.; 「단기4286년 형공공 제33호」, 광주고등법원 형사 제1부, 1953. 6. 22.

118) 「참고인 ○○○ 진술조서」(2008. 6. 26.);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30.)

금면 청학리 부둣가에서 야경을 서고 있던 중, 강진군 마량면에서 고금면으로의 진주를 시도하는 인민군이 쏜 총에 맞아 희생당하였다.¹¹⁹⁾

박태규의 시신은 유가족에 의해 수습되었다.¹²⁰⁾

2) 고금면 가교리 황복윤 희생사건(마10727, 1950. 9. 15.)

진실규명대상자 황복윤(黃福允, 남, 40, 이명 황의연)은 고금면 가교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¹²¹⁾ 황복윤은 특별한 우익활동은 하지 않았고, 한국전쟁 발발 이후부터 경찰의 지시에 따라 고금면 가교리 마을청년들과 함께 가교리 일대에서 야경을 서곤 했었다.¹²²⁾

1950. 9. 14.(음 8. 3.) 밤, 황복윤은 정해진 순번에 따라 자신이 보초를 서야 할 곳인 가교리 부둣가로 가 부둣가 위 부근에서 야경을 섰다.¹²³⁾ 그러던 중, 이튿날인 9. 15.(음 8. 4.) 새벽, 강진군 마량면에 주둔해 있던 인민군이 배를 타고 고금면으로 건너오기 시작했고, 인민군은 이내 고금면으로 진주해왔다. 선착장 부근에서 보초를 서고 있던 황복윤은 인민군이 고금면에 진주하자 도망치기 시작했고, 이 모습을 본 인민군이 황복윤을 향해 총을 쏘아 황복윤은 그 자리에서 인민군이 쏜 총에 맞아 희생당하였다.¹²⁴⁾

황복윤의 유가족은 9. 15. 아침, 마을 소문을 통해 황복윤이 희생당했음을 알게 되었고, 마을주민과 함께 황복윤의 시신을 수습하였다.¹²⁵⁾

119) 「신청인 박종술 진술조서」(2008. 6. 26.); 「참고인 ○○○ 진술조서」(2008. 6. 26.) 진실규명대상자 박태규의 제사일은 임의로 정한 날짜인 음력 3. 14.이고, 제적등본상 사망일은 1964. 4. 20.이다. 따라서 본 결정서는 제사일, 제적등본상 사망일이 희생시기를 입증해 주지 못하므로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희생시기를 판단하였다.

120) 「신청인 박종술 진술조서」(2008. 6. 26.)

121) 「신청인 황춘봉 진술조서」(2008. 5. 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30.)

122) 당시 가교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마을청년들 대부분이 보초를 섰는데, 낮에 보초서는 것을 주경, 밤에 서는 것을 야경으로 불렀다고 한다. 마을청년들은 경찰이 정해진 조별로, 지정된 위치에 가서 보초를 섰는데, 주로 산봉우리와 해안선을 따라 약 100미터 당 1명씩 보초를 섰다고 한다.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30.),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9.)

123) 황복윤이 야경을 섰던 곳은 예전 부둣가가 있던 곳의 윗부분으로 현재 고금대교를 건너서 고금면으로 들어오는 곳에 있는 휴게소가 그곳이다. 2007. 6월 고금대교가 놓여져 현재는 고금면과 강진군을 오가는 배가 운항되고 있지 않다.

124)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30.);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3.) 진실규명대상자 황복윤의 제사일은 음력 8. 2.인데, 이는 황복윤이 야경을 서러 나간 날인 9. 14.(음 8. 3.)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결정서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인민군이 고금면에 진주한 시기를 9. 15.(음 8. 4.) 새벽으로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황복윤의 희생시기를 9. 15.로 판단하였다.

125) 「신청인 황춘봉 진술조서」(2008. 5. 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30.);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3.) 황복윤이 희생당한 그날 밤에 황복윤 외에도 보초를 서던 사람이 있었고, 그들이 마을

3) 고금면 덕동리 덕동분주소 희생사건(마-4197, 1950. 9. 17~30.)

고금면에 인민군이 진주한 후 지방좌익의 활동이 시작되었고, 고금면에는 면소재지인 농상리 외에도 예전 면소재지였던 덕동리에 별도의 출장소 형식의 분주소인 덕동분주소가 설치되었다. 이후 고금면 덕동리 및 인근 마을주민 중 우익이거나 부유한 인사들이 지방좌익에 의해 덕동분주소로 끌려와 감금되었고, 이들 중 일부는 희생당하였다. 조사결과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과 제적등본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중, 진실규명대상자는 오병석이고,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는 이찬언, 최몽심이다.

진실규명대상자 오병석(吳炳錫, 남, 29)은 한국전쟁 발발 이전에 완도읍 등지에서 경찰로 근무하고 있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경찰을 그만두고 고향인 고금면 화성리로 돌아와 거주하고 있었다.¹²⁶⁾ 이러한 오병석의 경찰재직 경력이 오병석이 희생당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1950. 9. 17.(음 8. 6.), 오병석은 자택에서 지방좌익 4~5명에 의해 덕동분주소로 끌려갔고 그곳에 감금되었다. 오병석은 분주소에 감금되어 구타를 당했던 것으로 추정되고,¹²⁷⁾ 그날 바로 분주소 아래에 있는 바닷가로 끌려가 그곳에서 칼에 찔린 후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¹²⁸⁾

오병석의 유가족은 오병석이 끌려간 그 다음 날, 지방좌익으로부터 오병석이 희생당한 사실을 전해 들었고,¹²⁹⁾ 끌려간 지 5일이 지난 후 덕동리 앞바다에 시체가 떠올랐다는 소문을 듣고 배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덕동리 윤동마을 앞 무인도(일명 해남섬) 부근 바다에 떠 있는 오병석의 시신을 발견하여 수습하였다.¹³⁰⁾

이찬언(李燦彦, 남, 47)과 그의 셋째부인 최몽심(崔夢深, 여, 42)은 고금면 덕동리에 거

로 돌아와 황복운의 희생사실을 마을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그 사실을 알려줬던 사람들은 현재 모두 사망하였다고 한다.

126) 「신청인 오광재 진술조서」(2008. 5. 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9.)

127) 참고인 ○○○은 오병석이 끌려가고 난 후 덕동분주소 앞을 지나갔었는데, 분주소 안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구타당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은 당시 분주소에 고금면 각 마을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여럿 갇혀 있었지만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9.)

128) 「신청인 오광재 진술조서」(2008. 5. 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9.)

12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9.) 오병석의 부인인 참고인 ○○○은 이튿날 지방좌익에게 오병석의 행방을 물었고 그로부터 오병석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130)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9.)

주하며 농사를 지었는데, 농업 규모가 큰 편이어서 덕동리에서는 부유한 편에 속하였다.¹³¹⁾ 이찬언은 고금면 지서 후원회장을 하는 등 마을에서는 유지로 통하였다.¹³²⁾

고금면에 인민군이 진주한 후 지방좌익이 활동이 시작되자 이찬언은 지방좌익에 의해 몇 차례 분주소로 끌려가 구타를 당하고 집으로 돌아오곤 하였다.¹³³⁾ 그러다가 1950. 9. 17.(음 8. 6.), 이찬언은 최몽심과 함께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덕동분주소로 끌려갔고 그곳에 감금되었다. 이찬언은 끌려간 그날 덕동분주소 아래 부근에 있는 바다로 끌려가 그곳에서 칼에 찔린 후 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¹³⁴⁾ 그러나 최몽심은 이찬언이 희생당하고 난 후에도 계속 덕동분주소에 감금되어 있다가 1950. 9. 30.(음 8. 19.), 후퇴하던 지방좌익에 의해 고금분주소 부근 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¹³⁵⁾

이찬언의 유가족은 이찬언이 끌려간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마을사람으로부터 덕동리 바닷가(現 약산대교 아래 바닷가, 일명 덕동리 바닥끝)에 이찬언의 시신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 이찬언의 시신을 수습하였다. 그러나 최몽심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¹³⁶⁾

라. 약산면

약산면은 서쪽으로는 고금면, 동쪽으로는 금일읍과 이웃해 있고, 북쪽으로는 장흥군을, 남쪽으로는 신지면을 마주보고 있다. 육지인 장흥군 대덕읍 웅암리와는 불과 2km 정도 떨어져 있고, 고금면 덕동리와는 불과 5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¹³⁷⁾

약산면에 인민군이 진주한 것은 1950. 9. 14.(음 8. 3.)이다. 1950. 9. 14. 새벽, 장흥군 대덕읍에 진주해 있던 인민군은 배를 타고 약산면으로 진주해 왔고, 약산면 경찰과의 전투 끝에 승리하여 약산면을 점령하였다.¹³⁸⁾ 이후 약산면에는 분주소, 자위대가 설치되었고,

13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9.)

132) 『참고인 ○○○, ○○○ 진술조서』(2009. 4. 11.)

133) 『참고인 ○○○, ○○○ 진술조서』(2009. 4. 11.)

134)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9.); 『참고인 ○○○, ○○○ 진술조서』(2009. 4. 1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9.) 이찬언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이찬언의 둘째부인(양옥진)은 이찬언이 먹을 음식을 준비해서 분주소로 갔다가 그곳에서 음식을 받지 않아 이찬언이 희생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13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9.); 『참고인 ○○○, ○○○ 진술조서』(2009. 4. 11.)

136)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9.); 『참고인 ○○○, ○○○ 진술조서』(2009. 4. 11.)

137) 박찬승, 『일제하 조약도의 항일민족운동』, 『완도군 항일운동사』, 완도군항일운동기념사업회, 2000, 190쪽.

138)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7.)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어 지방좌익의 활동이 시작되었다.¹³⁹⁾

약산면은 완도지역 다른 읍·면에 비해 희생사건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해방이후 약산면의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방 이후, 인민위원회 활동에 가담했던 완도지역 좌익세력은 미군정에 의해 인민위원회가 무력화되자 지하로 잠복하여 1947년 '5·1 메이데이 집회', 1948년 '단정반대 집회' 등을 주도하였다. 그러자 경찰이 좌익세력을 체포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좌익세력은 약산면 해동리 곤고지산 등으로 입산하였다. 이에 경찰은 1949년 여름 대규모 체포 작전(일명 '산떨이 작전' 혹은 '토끼몰이 작전')을 하여 곤고지산에 은거 중인 좌익세력과 이들을 돕던 약산면 주민 일부를 희생시켰다.¹⁴⁰⁾ 이러한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피해를 입은 좌익세력 및 그 유가족과 우익세력간의 갈등이 발생·잔존하게 되었고, 이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인민군이 약산면에 진주한 후 좌익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이 발생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¹⁴¹⁾

약산면에서는 1948. 5. 9.~1950. 10. 4.에 득암리, 장용리 등에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각 사건의 내용을 발생 시기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약산면 득암리 최윤열 희생사건(마-9300, 1948. 5. 9.)

진실규명대상자 최윤열(崔允烈, 남, 63)은 1948. 5월 당시, 원래 거주지였던 약산면 관산리를 떠나 득암리에서 둘째부인과 함께 거주하며 관산리에 있는 자신의 주조장에서 만든 술을 득암리에서 판매하였다.¹⁴²⁾ 그리고 최윤열은 일제시대 때부터 약산면 전체 농지

서」(2009. 7. 28.);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8.); 「신청인 최재규 진술조서」(2009. 7. 28.);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8.); 「신청인 최재규 진술조서」(2008. 4. 30.) 참고인 ○○○의 진술에 따르면, 인민군이 약산면에 진주할 당시 약산면 청년들이 우두리 천동마을에서 어두리까지 보조를 서고 있었다고 한다.

139) 「단기 4284년 형공 제576호」,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951. 12. 17.; 「단기 4284년 형공 제 122호」,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951. 8. 9. 약산면 지방좌익은 주민들이 소유한 소를 약탈하거나 '반동분자'로 지목한 사람을 분주소로 끌고 가 사살하였다.

140) 「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597~599쪽.

14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7.) 참고인 ○○○는 약산면에서 희생사건이 많이 발생했던 이유로 한국전쟁 전에 발생한 보도연맹 사건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전쟁 발발 이전, 약산면 곤고지산에는 약산면뿐만 아니라 완도군 전 지역에서 활동하던 좌익들이 모여 들었던 곳이었는데, 그로 인해 곤고지산 인근 주민들이 좌익사상을 많이 가지게 됐었고 이후 이들이 보도연맹에 많이 가입됐었다고 한다. 보도연맹원들은 나중에 경찰에게 고문당하거나 바다에 수장되었는데, 이후 인민군이 들어오고 나자 보도연맹원 유가족들이 예전에 당한 일에 대해 원한을 가지게 됐고 그 여파로 좌익들이 우익들을 많이 잡아들이고 사살하게 되었다고 한다.

14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7.)

의 대부분뿐 아니라 고금면, 소안면 등지의 농지도 소유하고 있었고, 약산면에서 최초로 김 양식을 하여 많은 수익을 올려 약산면뿐만 아니라 완도군에서 부유한 편에 속하여 유지로 통하였다.¹⁴³⁾ 이처럼 최윤열은 약산면에서 가장 부유하였는데, 그러한 점이 그가 희생당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1948. 5. 9.(음 4. 1.) 밤, 최윤열은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자택에 침입한 지방좌익에 의해 칼에 찔려 그 자리에서 희생당하였다.¹⁴⁴⁾

최윤열의 시신은 유가족에 의해 수습되었고, 이후 관산리에 매장되었다.¹⁴⁵⁾

최윤열이 희생당한 이후 경찰은 가해자 중 1명을 붙잡아 총살하였는데,¹⁴⁶⁾ 이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최윤열의 가족 및 일가가 희생당하는 데 영향을 끼치게 된다.¹⁴⁷⁾

2) 약산면 장용리 약산분주소 희생사건(마-9302 등, 1950. 9. 19.~30.)

약산면에 인민군이 진주한 이후부터 약산면 지방좌익은 미처 후퇴하지 못한 약산면 우익들을 붙잡아 약산분주소에 감금하기 시작하였다.¹⁴⁸⁾ 지방좌익에 의해 약산분주소로 끌려온 사람들은 분주소 유치장에 감금당해 있으면서 매일 아침 자신의 가족이 가져온 음식을 먹으며 지냈고,¹⁴⁹⁾ 경우에 따라 구타를 당하기도 하였는데, 이들은 1950. 9월 말부터 몇 차례에 걸쳐 배에 태워져 장용리 대죽도로 끌려간 후 대죽도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 당시 몇 명이 희생당했는지 현재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조사결과를 통해 희생

143) 「신청인 최정순 진술조서(마-9300)」(2008. 4. 29.); 「신청인 최재규 진술조서」(2009. 7. 28.); 「참고인 ○○ ○ 진술조서」(2009. 7. 28.);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8.);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7.)

144) 「신청인 최정순 진술조서(마-9300)」(2008. 4. 29.); 「신청인 최재규 진술조서」(2009. 7. 28.); 「참고인 ○○ ○ 진술조서」(2009. 7. 28.);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7.); 「신청인 김옥주 진술조서」(2009. 9. 1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7.)

145) 「신청인 최정순 진술조서(마-9300)」(2008. 4. 29.); 「신청인 최재규 진술조서」(2009. 7. 28.); 「참고인 ○○ ○ 진술조서」(2009. 7. 28.)

146) 「신청인 최정순 진술조서(마-9300)」(2008. 4. 29.); 「신청인 최재규 진술조서」(2009. 7. 28.); 「참고인 ○○ ○ 진술조서」(2009. 7. 28.);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7.)

147) 「신청인 최재규 진술조서」(2009. 7. 28.);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8.)

148) 그러나 지방좌익에 의해 끌려온 사람들이 모두 약산분주소에 감금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 ○○○의 진술에 따르면, 끌려온 사람들은 그들의 죄질에 따라 죄질이 약한 사람은 대한청년단이 썼던 목조건물에 갇혔고, 죄질이 강한 사람은 분주소 유치장에 갇혀 있었다고 한다. 이중 분주소 유치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지방좌익에 의해 희생당하였다고 한다.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7.)

14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8.);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8.); 「신청인 송이섭 진술조서(마-9312)」(2008. 5. 2.); 「신청인 정영준 진술조서」(2008. 4. 29.); 「참고인 김경자 진술조서」(2008. 4. 30.) 당시 매일 아침이면 약산분주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 줄 밥을 가져온 사람들이 약산분주소 앞에 여럿 있었다고 한다.

제 3 권

규모를 대략 가늠해볼 수 있을 뿐이다.

조사결과 희생자들은 1950. 9. 14. 이후부터 각자의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약산분주소로 끌려와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1주일 정도 약산분주소 유치장에 감금되었다가 1950. 9. 19~30. 사이에 장용리 앞바다에서 배에 태워져 대죽도 앞바다로 끌려가 그곳에서 손이 줄로 묶이고 돌이 매달린 채 바다에 수장되었고, 경우에 따라 칼에 찔린 후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 희생자들의 시신은 바닷물의 흐름에 따라 육지로 떠밀려온 경우에는 유가족에 의해 수습되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수습되지 못하였다. 희생자들은 주로 대한청년단원, 의경 등 우익활동을 했다는 이유, 면사무소 직원 및 경찰 등 공무원이라는 이유, 약산면에서 부유한 편에 속한다는 이유 등이 영향을 끼쳐 희생당하였다.

조사결과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과 제적등본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15명 중, 진실규명대상자는 최규린, 송복윤, 정평균, 윤세창, 최응열, 최병태, 최병호, 오병천, 이옥룡, 차상근, 최병원 등 11명이고,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는 김영두, 정억천, 김인옥, 정간인 등 4명이다. 다음의 <표 8>은 희생시기에 따라 희생자들의 명단을 표로 정리한 것인데, 희생시기는 희생자들의 제사일을 기준으로 하였다.¹⁵⁰⁾

<표 8> 약산면 장용리 약산분주소 희생자 명단

희생시기	진실규명대상자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희생자 수
1950. 9. 19.	최규린, 송복윤	—	2명
1950. 9. 21.	정평균, 윤세창	—	2명
1950. 9. 26.	—	김영두, 정억천	2명
1950. 9. 27.	최응열, 최병태, 최병호, 차상근	—	4명
1950. 9. 29.	오병천, 이옥룡	김인옥, 정간인	4명
1950. 9. 30.	최병원	—	1명
합계	11명	4명	15명

150) 희생자들의 유가족은 대부분 희생일 전날을 제사일로 정하였으나 진실규명대상자 최응열은 희생일과 제사일이 음 8. 16.로 동일하였다.

〈표 8〉에서와 같이 희생사건은 1950. 9. 19~30. 사이에 발생하였고, 9. 19.에는 최규린, 송복윤 등 2명이, 9. 21.에는 정평균, 윤세창 등 2명이, 9. 26.에는 김영두, 정억천 등 2명이, 9. 27.에는 최응열, 최병태, 최병호, 차상근 등 4명이, 9. 29.에는 오병천, 이옥룡, 김인옥, 정간인 등 4명이, 9. 30.에는 최병원 등 1명이 희생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희생자들의 희생과정을 사건발생 시기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최규린 희생사건(마-9302, 1950. 9. 19.)

진실규명대상자 최규린(崔圭隣, 남, 38)은 약산면 관산리에 거주하며 어장을 운영하였고, 대한청년단원으로 활동하며 경찰과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¹⁵¹⁾ 그리고 최규린의 아버지 최윤열은 일제시대 때부터 약산면에서 유지로 통하는 인물이었다.¹⁵²⁾ 이러한 최규린의 대한청년단 활동 경력과 집안 배경이 그가 희생당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규린은 1950. 9. 18.(음 8. 7.), 자택에서 인민군에 의해 약산분주소로 끌려갔고 이튿날인 9. 19.(음 8. 8.), 지방좌익에 의해 배에 태워져 장용리 대죽도 앞바다로 끌려가 그곳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¹⁵³⁾ 최규린은 같은 마을 주민인 송복윤과 함께 끌려갔고 이후 함께 희생당하였다.¹⁵⁴⁾

최규린의 유가족은 이튿날 동네소문을 통해 최규린이 희생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최규린의 시신을 찾으러 약산면 바닷가 여기저기를 다녔으나 결국 찾지 못하였다.¹⁵⁵⁾

나) 송복윤 희생사건(마-9312, 1950. 9. 19.)

진실규명대상자 송복윤(宋福潤, 남, 31)은 한국전쟁 발발 이전부터 전남 보성군에서 경찰로 근무하다가 한국전쟁 발발 이후 고향인 약산면 관산리로 돌아와 거주하고 있었다.¹⁵⁶⁾

송복윤은 관산리로 돌아온 이후 약산면 삼운산에 피신해 있었는데, 지방좌익에게 피신처가 발각되어 약산분주소로 끌려가 그곳에 감금되었고,¹⁵⁷⁾ 이후 1950. 9. 19.(음 8. 8.),

151) 「신청인 최대용 진술조서(마-9302)」(2008. 5. 1.)

152) 최규린의 아버지 최윤열에 대해서는 ‘약산면 특암리 최윤열 희생사건’ 참조.

153) 「신청인 송이섭 전화면담」(2009. 10. 27.); 「신청인 최대용 진술조서(마-9302)」(2008. 5. 1.); 「참고인 ○○ ○ 진술조서」(2009. 9. 7.)

154) 「신청인 송이섭 전화면담」(2009. 10. 27.); 「신청인 최대용 진술조서(마-9302)」(2008. 5. 1.)

155) 「신청인 최대용 진술조서(마-9302)」(2008. 5. 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7.)

156) 「신청인 송이섭 진술조서(마-9312)」(2008. 5. 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7.); 「신청인 김옥주 진술조서」(2009. 9. 17.)

157) 「신청인 송이섭 진술조서(마-9312)」(2008. 5. 2.) 신청인 송이섭(송복윤의 조카)은 송복윤이 희생당하기

장용리 대죽도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¹⁵⁸⁾

송복윤이 희생당한 후 소식을 들은 송복윤의 유가족은 송복윤의 시신을 찾으러 다녔으나 결국 찾지 못하였다.¹⁵⁹⁾

다) 정평균 희생사건(마-772, 1950. 9. 21.)

진실규명대상자 정평균(鄭平均, 남, 34)은 약산면 장용리 구성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는데, 부유한 편에 속하였고,¹⁶⁰⁾ 우익성향의 인물이었다고 한다.¹⁶¹⁾ 이러한 정평균의 경제적 부유함과 우익적 성향이 그가 희생당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정평균은 1950. 9. 14. 이후, 자택에서 지방좌익 3~4명에 의해 약산분주소로 끌려갔고, 그곳에 며칠 동안 감금되었다.¹⁶²⁾ 정평균의 부인은 정평균이 끌려가고 난 이후 며칠 동안 약산분주소로 정평균이 먹을 음식을 가져다주었는데,¹⁶³⁾ 1950. 9. 21.(음 8. 10.) 아침에도 음식을 가지고 약산분주소로 갔다가 지방좌익에게 이미 그곳에 정평균이 있지 않다는 말을 듣고 그가 희생당했음을 알게 되었다.¹⁶⁴⁾

정평균의 유가족은 끝내 정평균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였다.¹⁶⁵⁾

라) 윤세창 희생사건(마-9314, 1950. 9. 21.)

진실규명대상자 윤세창(尹世昌, 남, 27, 이명 윤방현)은 약산면 관산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대한청년단 활동을 하였는데,¹⁶⁶⁾ 그의 대한청년단 활동 경력이 그가 희생당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전인 1950. 9. 19.(음 8. 8.) 아침, 약산분주소로 송복윤이 먹을 음식을 가져다 주었을때 약산분주소에 감금되어 있는 송이섭의 모습을 목격했었다고 한다.

158) 「신청인 송이섭 진술조서(마-9312)」(2008. 5. 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7.)

159) 「신청인 송이섭 진술조서(마-9312)」(2008. 5. 2.)

160)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7.); 「신청인 정영준 진술조서」(2008. 4. 29.)

16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7.) 참고인 ○○○는 정평균이 우익활동에 적극적이었는데, 그러한 점이 아무래도 좌익과 갈등관계를 가지게 됐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16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8.); 「신청인 정영준 진술조서」(2008. 4. 29.)

163) 그러나 정평균의 부인은 단 한 번도 정평균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다고 한다. 「신청인 정영준 진술조서」(2008. 4. 29.)

164) 「신청인 정영준 진술조서」(2008. 4. 2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7.)

165) 「신청인 정영준 진술조서」(2008. 4. 2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8.)

166) 「신청인 윤세창 진술조서」(2008. 5. 3.)

윤세창은 1950. 9. 20.(음 8. 9.)경,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약산분주소로 끌려갔고, 1950. 9. 21.(음 8. 10.), 장용리 대죽도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¹⁶⁷⁾

윤세창의 유가족은 윤세창이 끌려간 후, 윤세창이 먹을 음식을 준비해 약산분주소에 갔으나 이미 그곳에 그가 없어 그의 희생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마을사람들과 함께 약산면의 동남쪽에 위치한 생일면에서 윤세창의 시신을 발견하여 수습하였다.¹⁶⁸⁾

마) 최응열 희생사건(마-8912, 1950. 9. 27.)

진실규명대상자 최응열(崔應烈, 남, 59)은 약산면 관산리 구암마을에 거주하였고, 구암마을 이장이었다. 최응열은 일제시대 때 공무원으로 근무하였었고,¹⁶⁹⁾ 마을에서는 부유한 편에 속하였고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다고 한다.¹⁷⁰⁾

1950. 9월 어느 날, 최응열은 자택에서 지방좌익 약 5명에 의해 자신의 두 아들과 함께 끌려 나갔다. 이후 최응열의 두 아들은 끌려간 그날 다시 자택으로 돌아왔으나 최응열은 끌려가던 도중 도망쳐 관산리 구암마을 야산으로 피신하였다.¹⁷¹⁾ 최응열은 야산에서 2~3일 정도 지낸 후 자택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산으로 피신하였지만 더 이상 피신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약산분주소로 가 자수를 하였고, 이후 그곳에 감금되었다.¹⁷²⁾ 최응열의 가족들은 지방좌익으로부터 최응열이 약산분주소에 감금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이후 6일 동안 최응열의 며느리가 약산분주소로 최응열이 먹을 음식을 가져다주었다.¹⁷³⁾ 최응열의 며느리는 7일째 되는 날 아침에도 음식을 가지고 분주소에 갔다가 지방좌익으로부터 최응열이 분주소에 없다는 말을 듣게 되어¹⁷⁴⁾ 전날인 1950. 9. 27.(음 8. 16.) 밤, 그가 희생당했음을 알게 되었다.¹⁷⁵⁾

167) 「신청인 윤세창 진술조서」(2008. 5. 3.); 「신청인 송이섭 전화면담」(2009. 10. 27.)

168) 「신청인 윤세창 진술조서」(2008. 5. 3.)

169)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최응열은 산림보호 관련 일을 했었다고 하나 정확히 어느 관청에서 근무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170) 「신청인 안향순 진술조서」(2008. 5. 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8.)

17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8.)

17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8.)

17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8.) 참고인 ○○○은 매일 아침 고구마를 썰 약산분주소로 가져갔는데 최응열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고, 약산분주소에 있는 지방좌익에게 음식을 전달해주었다가 이튿날 다시 가서 빈 그릇을 가져왔다고 한다. 당시 매일아침 약산분주소 앞에는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음식을 가져온 여자들이 여러 명 있었다고 한다.

174)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8.) 진실규명대상자 최응열의 제사일은 그의 희생일인 9. 27.(음 8. 16.)과 동일한 음 8. 16.이다.

17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8.);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7.) 진실규명대상자 최응열

이후 최응열의 유가족은 약산면 바닷가 여기저기를 다니며 최응열의 시신을 찾고자 하였으나 결국 찾지 못하였다.¹⁷⁶⁾

바) 최병태 희생사건(마-9307, 1950. 9. 27.)

진실규명대상자 최병태(崔炳泰, 남, 24)는 약산면 관산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고, 대한청년단원으로 활동하였다.¹⁷⁷⁾ 최병태의 가족은 관산리에서는 부유한 편에 속하였고, 최병태의 형 최병철이 관산리 이장, 대한청년단원으로 활동하였는데,¹⁷⁸⁾ 이러한 최병태의 대한청년단 활동 경력과 집안 배경이 그가 희생당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최병태는 1950. 9. 20.(음 8. 9.)경, ‘자수하면 살려준다’는 지방좌익의 말에 따라 약산분주소로 자수하러 갔다가 약산분주소에 감금되었고,¹⁷⁹⁾ 이후 1950. 9. 27.(음 8. 16.), 장용리 대죽도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¹⁸⁰⁾

최병태의 아버지와 형수 등 유가족은 장용리 앞바다 부둣가에서 최병태의 시신을 발견하여 수습하였는데, 수습 당시 최병태의 머리 뒤쪽에 큰 상처가 나 있었다고 한다.¹⁸¹⁾ 최병태의 시신수습 당시 약 8~9구의 시신들이 3~5명씩 손이 줄로 묶여 있었고, 최병태의 시신 외에도 최병호, 차상근의 시신 등도 있었다고 한다.¹⁸²⁾

사) 최병호 희생사건(마-9309, 1950. 9. 27.)

진실규명대상자 최병호(崔秉浩, 남, 73)는 약산면 관산리에 거주하며 교회 장로로 활동

의 제사일은 그의 희생일인 9. 27.(음 8. 16.)과 동일한 음 8. 16.이다.

176) 『신청인 안향순 진술조서』(2008. 5. 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8.)

177) 『신청인 최재규 진술조서』(2008. 4. 30.)

178) 최병철은 1950. 9. 14. 약산면 경찰들이 득암리에서 배를 타고 후퇴할 때 경찰과 함께 제주도로 후퇴하여 생존하였다고 한다.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7.)

179) 『신청인 최재규 진술조서』(2008. 4. 30.); 『신청인 최재규 진술조서』(2009. 7. 28.) 신청인 최재규는 최병태가 약산분주소로 끌려간 이후 4~5일 정도 약산분주소로 최병태가 먹을 음식을 가져다 주었는데, 당시 분주소 정문 앞을 지키는 사람은 1명이었다고 한다. 최재규가 어느 날, 약산분주소에 갔더니 지방좌익이 최병태가 이제 이곳에 없다고 말해주었다고 한다.

180) 『신청인 최재규 진술조서』(2008. 4. 30.); 『신청인 최재규 진술조서』(2009. 7. 28.); 『신청인 최현 진술조서』(2008. 4. 1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7.); 『단기 4284년 형공 제122호』,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951. 8. 9. 2쪽. 판결문에는 최병태의 희생사실에 대해 “...(중략) 9월 27일 崔善浩 외 3명을 복한 괴뢰군에 敵對하였다는 이유로 소위 반동자로 규정하여 괴뢰경찰기관인 內務署에 보고하여 其 中 崔善浩, 崔炳泰 兩名은 右 署員으로 하여금 살해케 하고...(중략)”로 기재되어 있다.

181) 『신청인 최재규 진술조서』(2008. 4. 30.); 『신청인 최재규 진술조서』(2009. 7. 28.);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7.)

182) 『신청인 최재규 진술조서』(2009. 7. 28.)

하였고, 미국인과 선교 사업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최병호의 집안은 농업규모가 크고 일꾼을 둘 정도여서 관산리에서는 부유한 편에 속하였다.¹⁸³⁾ 이처럼 최병호가 기독교 신자이고, 부유했던 점이 그가 희생당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최병호는 1950. 9월 말경,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약산분주소로 끌려가 그곳에 감금되었고, 이후 1950. 9. 27.(음 8. 16.), 장용리 대죽도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¹⁸⁴⁾

최병호의 유가족은 장용리 앞바다에 최병호의 시신이 떠밀려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으로 가 최병호의 시신을 수습하였다.¹⁸⁵⁾

아) 차상근 희생사건(마-9308, 1950. 9. 27.)

진실규명대상자 차상근(車相根, 남, 41)은 약산면 우두리 천동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대한청년단원, 약산면 지서 후원회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차상근은 농업 이외에 숙박업과 주류업에도 종사하여 우두리에서는 부유한 편에 속하였다.¹⁸⁶⁾

차상근은 1950. 9. 20.(음 8. 9.)경,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약산분주소로 끌려가 그곳에 감금되었고, 이후 1950. 9. 27.(음 8. 16.), 장용리 대죽도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¹⁸⁷⁾

차상근의 유가족은 동네소문으로 차상근이 희생당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장용리 가래마을 바닷가로 떠내려 온 차상근의 시신을 수습하였다.¹⁸⁸⁾

183) 『신청인 최현 진술조서』(2008. 4. 11.); 『신청인 최재규 진술조서』(2009. 7. 28.) 최병호가 교회 장로로 활동하였음은 한국전쟁 당시 납북되거나 피살된 언론인 및 종교인들의 명단을 수록한 자료인 『납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납북』에는 “최병호(崔秉浩, 77세) 전남 신안군, 해남군, 장흥군 등지 교회에서 시무했던 장로. 7월 30일 전남 완도 관산리(조약도) 해변에서 우익진영 청년 7명과 함께 피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정진석, 『납북』, 기파랑, 2006, 198쪽.

184) 『신청인 최현 진술조서』(2008. 4. 11.); 『신청인 최재규 진술조서』(2009. 7. 28.); 『단기 4284년 형공 제122호』,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951. 8. 9. 2쪽. 판결문에는 최병태의 희생사실에 대해 “...(중략) 9월 27일 崔善浩 외 3명을 복한 괴뢰군에 敵對하였다는 이유로 소위 반동자로 규정하여 괴뢰경찰기관인 內務署에 보고하여 其 中 崔善浩, 崔炳泰 兩名은 右 署員으로 하여금 살해케 하고...(중략)”로 기재되어 있다.

185) 『신청인 최현 진술조서』(2008. 4. 11.); 『신청인 최재규 진술조서』(2009. 7. 28.)

186) 『참고인 김경자 진술조서』(2008. 4. 30.);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8.)

187) 『참고인 김경자 진술조서』(2008. 4. 30.); 『신청인 최재규 진술조서』(2009. 7. 28.)

188) 『참고인 김경자 진술조서』(2008. 4. 30.);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8.); 『신청인 최재규 진술조서』(2009. 7. 28.) 신청인 최재규는 진실규명대상자 최병태의 시신을 수습할 당시 차상근의 시신도 목격하였다고 한다.

자) 오병천 희생사건(마-749, 1950. 9. 29.)

진실규명대상자 오병천(吳炳千, 남, 26)은 약산면 우두리 천동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고, 천동마을 대한청년단장으로 활동하였다.¹⁸⁹⁾

오병천은 1950. 9. 14. 이후, 약산분주소로 끌려갔다가 하루 만에 풀려나 자택으로 돌아왔다가 1950. 9. 29.(음 8. 18.), 마을에서 지방좌익 7~8명에 의해 약산분주소로 끌려갔고 이후 장용리 대죽도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¹⁹⁰⁾

오병천의 아버지, 부인 등 유가족은 오병천이 끌려간 지 1주일 정도 지난 후 어두리 앞 섬에 오병천의 시신이 밀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 밧줄에 묶여 있는 오병천의 시신을 수습하였다.¹⁹¹⁾

차) 이옥룡 희생사건(마-9306, 1950. 9. 29.)

진실규명대상자 이옥룡(李玉龍, 남, 34)은 약산면 우두리 천동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고, 우두리 천동마을 구장, 대한청년단원으로 활동하였는데,¹⁹²⁾ 이러한 그의 활동 경력이 그가 희생당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옥룡은 자택에서 지방좌익 7~8명에 의해 줄로 목이 묶인 채 약산분주소로 끌려갔고 이후 1950. 9. 29.(음 8. 18.), 장용리 대죽도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¹⁹³⁾

이옥룡의 형과 부인은 친척으로부터 약산면 장용리 가래마을에서 이옥룡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 그의 시신을 수습하였다.¹⁹⁴⁾

카) 최병원 희생사건(마-6921, 1950. 9. 30.)

진실규명대상자 최병원(崔炳元, 남, 35, 이명 최병선)은 약산면 득암리 사동마을에 거주하며 김 양식업을 했고,¹⁹⁵⁾ 경찰 업무를 보조해 주고는 했는데,¹⁹⁶⁾ 이러한 최병원의 행적

189) 「신청인 오영균, 박금진 진술조서」(2008. 7. 2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8.)

190) 「신청인 오영균, 박금진 진술조서」(2008. 7. 2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8.);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7.) 참고인 ○○○은 마을에서 오병천, 이옥룡이 지방좌익 7~8명에 의해 목이 줄로 묶인 채 끌려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한다.

191) 「신청인 오영균, 박금진 진술조서」(2008. 7. 2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8.);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7.)

192) 「신청인 이주환 진술조서」(2008. 5. 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8.)

193) 「신청인 이주환 진술조서」(2008. 5. 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8.);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7.)

194) 「신청인 이주환 진술조서」(2008. 5. 7.)

19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9.); 「신청인 최영규 진술조서」(2009. 9. 9.)

이 그가 희생당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최병원은 1950. 9. 29.(음 8. 18.),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약산분주소로 끌려가 감금되었고, 이튿날인 1950. 9. 30.(음 8. 19.), 장용리 대죽도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¹⁹⁷⁾

최병원의 부인은 최병원이 끌려간 지 한 달 정도 지난 후, 약산면 어두리 바닷가에 떠밀려온 최병원의 시신을 발견하여 수습하였다. 시신수습 당시 최병원의 얼굴은 이미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되어 있었으나 최병원의 발등에 있는 혹을 보고 그의 시신을 확인하였다고 한다.¹⁹⁸⁾

그 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는 김영두, 정억천, 김인옥, 정간인 등 4명이다. 김영두, 정억천은 1950. 9. 26.(음 8. 15.)에, 김인옥, 정간인은 1950. 9. 29.(음 8. 18.)에 희생당하였다.

김영두(金玲斗, 남, 47)는 약산면 장용리 구성마을에 거주하였고, 배를 소유하고 있는 등 구성마을에서는 부유한 편에 속하였다.¹⁹⁹⁾

김영두는 1950. 9. 14. 이후,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약산분주소로 끌려가 그곳에 감금되었고, 이후 1950. 9. 26.(음 8. 15.) 장용리 대죽도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²⁰⁰⁾ 김영두의 시신은 장용리 앞바다에서 수습되었다.²⁰¹⁾

정억천(鄭億千, 남, 37)은 약산면 장용리 구성마을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였고, 구성마을 이장이었다. 정억천은 구성마을에서 우익활동의 중심인물이었고 좌익활동에 우호적이지 않았다고 한다.²⁰²⁾

정억천은 1950. 9. 14. 이후부터 구성마을 거주자 중 정평균, 김영두 등이 지방좌익에 의해 약산분주소로 끌려가 그곳에 감금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 분주소로 갔다가 분주소에 감금되었고,²⁰³⁾ 이후 장용리 대죽도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²⁰⁴⁾

정억천의 유가족은 금일읍에 정억천의 시신이 떠밀려 왔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시신을

196)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9.)

19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9.); 「신청인 최영규 진술조서」(2009. 9. 9.) 신청인 최영규는 정확한 장소, 건물은 기억나지 않으나 아버지 최병원이 어느 건물 안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구타당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었다고 진술하였다.

198)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9.); 「신청인 최영규 진술조서」(2009. 9. 9.)

19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8.)

200)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8.)

20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8.)

20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8.)

20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8.) 참고인 ○○○은 자신의 아버지 정억천이 약산분주소에 감금되자 10여 일 동안 약산분주소로 정억천이 먹을 음식을 가져다주었다고 한다.

204)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8.)

수습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가족이 없어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였다.²⁰⁵⁾

김인옥(金仁玉, 남, 34)은 약산면 장용리 구성마을에 거주하며 대한청년단원으로 활동하였는데, 구성마을에서는 여유 있는 편에 속하였고, 과거 경찰로 근무하기도 했었다고 한다.²⁰⁶⁾ 이러한 김인옥의 대한청년단 활동 경력과 과거 경찰 근무 경력이 그가 희생당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김인옥은 1950. 9. 26. 이후,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약산분주소로 끌려가 감금되었고, 1950. 9. 29.(음 8. 18.), 장용리 대죽도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²⁰⁷⁾

김인옥의 유가족은 장용리 앞바다에 밀려온 김인옥의 시신을 발견하여 수습하였다.²⁰⁸⁾

정간인(鄭幹仁, 남, 25, 이명 정한용)은 약산면 장용리 구성마을에 거주하였고, 약산면 사무소 서기로 근무하였다.²⁰⁹⁾ 정간인은 공무원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쳐 희생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간인은 1950. 9. 26. 이후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약산분주소로 끌려갔고, 이후 1950. 9. 29.(음 8. 18.), 장용리 대죽도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²¹⁰⁾

정간인의 유가족은 금일읍에 떠밀려온 정간인의 시신을 발견하여 수습하였는데, 시신 수습 당시 손발이 줄로 묶여 있었고 턱 아래쪽에 칼에 찔린 자국이 있었다고 한다.²¹¹⁾

3) 약산면 관산리 송복신, 송정순 희생사건(마-9310·9311, 1950. 10. 4.)

이 사건의 진실규명대상자는 송복신(宋福信, 남, 35), 송정순(宋貞順, 여, 18)으로, 송복신은 송정순의 큰아버지이다. 송복신은 약산면 관산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고, 대한청년단 부단장으로 활동하였다.²¹²⁾ 송복신의 동생 송복윤은 경찰이었는데, 송복신이 희생당하기 전인 1950. 9. 19.(음 8. 8.), 장용리 대죽도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²¹³⁾ 송정순 역시 관산리에 거주하였고 농업, 가사에 종사하였다.²¹⁴⁾

20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8.) 참고인 ○○○의 진술에 따르면, 정역천의 유가족은 정역천의 시신이 금일도에 떠밀려왔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당시 정역천의 아들이 어렸고 그의 동생은 건강이 좋지 않아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206)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8.);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7.)

20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8.);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7.)

208)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8.)

20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8.) 정간인이 약산면사무소에 근무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약산면사무소에 정간인의 재직경력사항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관련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었다.

210)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8.)

21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7. 28.)

212) 『신청인 송이섭 진술조서(마-9310)』(2008. 5. 2.)

1950. 10월 초부터 약산면 주민들은 지방좌익들의 말에 따라 배를 타고 장흥군으로 나갔는데, 송복신, 송정순 역시 넙고리에서 배를 타고 장흥군 대덕읍 웅암리로 나갔다. 이들은 장흥군에서 약 3일 정도를 지낸 후 다시 약산면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1950. 10. 4.(음 8. 23.), 지방좌익에 의해 장흥군 대덕읍 웅암리와 약산면 사이 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²¹⁵⁾

송복신의 유가족은 고금면에 사는 친척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고금면으로 떠밀려온 송복신의 시신을 발견하여 수습하였다. 그러나 송정순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²¹⁶⁾

4) 약산면 관산리 김옥자, 김태정 희생사건(마-9305·9315, 1950. 10. 4.)

이 사건의 진실규명대상자는 김옥자(金玉子, 여, 23)와 김옥자의 남동생 김태정(金太正, 남, 19)이다. 김옥자, 김태정은 약산면 관산리에 거주하였는데, 김옥자는 가사에 종사하였고, 김태정은 광주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전쟁이 나자 고향인 관산리로 돌아와 있었다. 김옥자, 김태정의 가족 중에는 경찰, 검사 등이 있어 이들의 집안은 우익으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한다.²¹⁷⁾

1950. 10월 초부터 약산면 주민들은 지방좌익들의 말에 따라 배를 타고 장흥군으로 나갔는데, 김옥자, 김태정 역시 약산면에서 배를 타고 장흥군 대덕읍으로 나갔다. 이들은 장흥군에서 약 3일 정도를 지낸 후 다시 약산면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1950. 10. 4.(음 8. 23.), 지방좌익에 의해 장흥군 대덕읍 웅암리와 약산면 사이 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²¹⁸⁾

김옥자, 김태정의 부모는 약산면 넙고리에 사는 친척으로부터 김옥자의 시신이 넙고리에 떠밀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 김옥자의 시신을 찾아 수습하였다.²¹⁹⁾ 하지만 김태정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²²⁰⁾

213) 「신청인 송이섭 진술조서(마-9312)」(2008. 5. 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7.) 송복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약산면 장용리 약산분주소 송복윤 희생사건' 참조.

214) 「신청인 송이섭 진술조서(마-9311)」(2008. 5. 2.)

215) 「신청인 송이섭 전화면담」(2009. 10. 27.); 「신청인 최재규 진술조서」(2009. 7. 28.);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7.)

216) 「신청인 송이섭 전화면담」(2009. 10. 27.)

217) 「신청인 김옥주 진술조서」(2008. 5. 3.)

218) 「신청인 송이섭 전화면담」(2009. 10. 27.); 「신청인 김옥주 진술조서」(2009. 9. 17.); 「신청인 최재규 진술조서」(2009. 7. 28.);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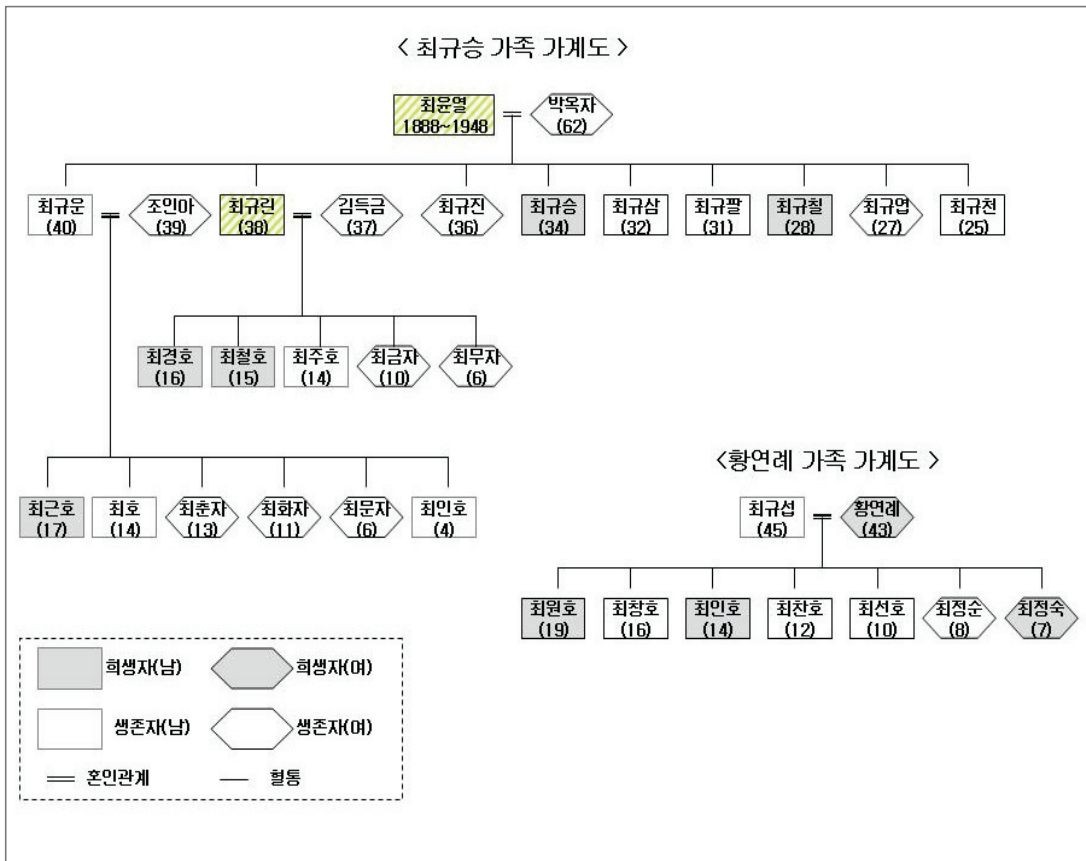
219) 「신청인 김옥주 진술조서」(2009. 9. 1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7.)

220) 「신청인 김옥주 진술조서」(2009. 9. 17.)

5) 약산면 관산리 최규승 일가 희생사건(마-8135 등, 1950. 10. 4.)

이 사건의 진실규명대상자인 최규승 일가는 최규승 가족(최규승, 최규철, 최근호, 최경호, 최철호), 황연례 가족(황연례, 최원호, 최인호, 최정숙), 최규실이고, 그 외 최규승 일가의 재산을 관리하던 집사의 아들인 차호기²²¹⁾까지 포함하여 희생자는 총 11명이다. 다음의 <가계도 1>은 최규승 가족, 황연례 가족의 가족관계를 제적등본을 근거로 하여 도식으로 나타낸 것이다.²²²⁾

<가계도 1> 최규승 가족 및 황연례 가족 가계도



221) 당시 최규승 일가는 재산이 많아 그것을 관리하는 집사가 있었고, 관산리에서 함께 거주하였다고 한다. 차호기는 그 집사의 아들로 당시 중학생이었다고 한다.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7.)

222) 가계도 상 최윤열, 최규린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희생당하여 별도의 색으로 표시하였다. 최윤열, 최규린의 희생사실은 '약산면 득암리 최윤열 희생사건', '약산면 장용리 약산분주소 최규린 희생사건' 참조.

희생자들은 차호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전주 최씨 일가로, 약산면 관산리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였는데, 그 규모가 커 부유하게 살고 있었다. 먼저 최규승 가족의 희생자는 최규승과 그의 남동생 최규철, 조카 최근호, 최경호, 최철호이다.

최규승(崔圭昇, 남, 34)은 군산에 거주하며 군산세관에서 근무하였는데,²²³⁾ 한국전쟁 발발 이후 목포세관으로 출장을 갔다가 군산으로 돌아가는 교통이 두절되어 고향인 약산면 관산리로 갔다.²²⁴⁾

최규철(崔圭七, 남, 28)은 서울에 거주하며 세브란스병원 의사로 근무하였다. 1950. 5월 중순 경, 최규철은 아버지 최윤열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그의 부인과 함께 고향인 약산면 관산리로 내려왔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고향에 머물러 있었다.²²⁵⁾

최근호(崔謹鎬, 남, 17)는 서울에 거주하며 경동중학교에 다니고 있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고향인 약산면 관산리에 내려와 있었다.²²⁶⁾ 그리고 최경호(남, 16)는 영광법성중학교를 다니다가, 최철호(남, 15)는 목포중학교에 다니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고향인 관산리로 돌아와 있었다.²²⁷⁾

최규실(崔圭實, 남, 18)은 약산면 관산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²²⁸⁾

다음으로 황연례 가족의 희생자는 황연례(黃研禮, 여, 43), 그의 아들 최원호(崔元鎬, 남, 19)·최인호(남, 14), 딸 최정숙(崔貞淑, 여, 5)이다. 이들은 약산면 관산리에 거주하였고, 황연례는 농업, 가사에 종사하였다. 황연례의 아들 최원호는 광주서중학교에, 최인호

223) 「신청인 최명숙 진술조서」(2008. 4. 7.) 최규승의 군산세관 재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산세관, 국가기록원에 최규승의 군산세관 재직경력증명서를 요청하였으나 모두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재직경력사항 확인 협조관련 답변 통보', 군산세관장, 2009. 9. 30.; 「인사기록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나라기록관장, 2009. 10. 12.) 그러나 최규승이 군산세관에 재직한 사실은 『사진으로 보는 한국세관 130년』(관세청, 2008)에 실린 군산세관 앞에서 촬영된 직원 단체사진 2장(1949. 1. 18., 1949. 10. 31. 촬영), 참고인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24) 「신청인 최명숙 진술조서」(2008. 4. 7.) 군산에 남아있던 최규승의 부인·딸 등 가족들은 최규승이 군산을 떠난 이후 그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다가 목포세관 직원으로부터 그가 목포에서 군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고향인 약산면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후 그가 희생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22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1. 6.) 최규철의 부인 ○○○은 약산면 관산리로 올 때 임신한 상태였고, 이후 관산리에서 딸을 출산하였다.

226) 「신청인 최정순 진술조서(마-9300-1)」(2008. 4. 29.); 「신청인 최정순 진술조서」(2008. 5. 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7.) 최근호는 서울에서 약산면까지 15일 동안 걸어서 왔다고 한다.

227) 「신청인 최대용 진술조서(마-9303)」(2008. 5. 1.); 「신청인 최대용 진술조서(마-9304)」(2008. 5. 1.) 진실규명대상자 최경호, 최철호의 제적등본에는 일본식 이름인 '최금태랑(崔金太郎)', '최금차랑(崔金次郎)'만 기재되어 있고, 족보에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최경호, 최철호의 한자명을 확인할 수 없었다.

228) 「신청인 최규향 진술조서」(2008. 5. 2.)

는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에 다니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고향인 관산리로 돌아와 있었고,²²⁹⁾ 딸 최정숙은 어린이였다.²³⁰⁾

차호기(남, 20세 가량)는 최규승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던 집사의 아들로 광주서중학교에 다니고 있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관산리로 돌아와 있었다.²³¹⁾

1950. 10월 초, 약산면에서는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장흥군으로 나가야 한다’는 지방좌익의 말에 따라²³²⁾ 주민들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육지인 장흥군으로 떠났는데, 최규승 일가 역시 관산리에서 배를 타고 장흥군으로 떠났다.²³³⁾ 최규승을 비롯한 그의 가족 및 일가 13명은 관산리에서 배를 탔는데, 13명 중 황연례, 최정숙만은 한 배에 타지 못하고 다른 배에 탔고, 나머지 11명은 한 배를 타고 관산리를 떠났다. 당시 최규승 일가 11명이 탄 배에는 이들 외에도 지방좌익 약 4명도 함께 탔는데, 배를 탈 당시만 해도 지방좌익들은 그들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배가 장흥군에 다다르자 이내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 배의 앞뒤에서 이들 가족을 포위하였다. 배가 장흥군 웅암리에 도착하자 지방좌익은 장흥군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지방좌익과 함께 최규승 일가를 장흥군 웅암리에 소재한 어느 집으로 끌고 갔고, 남자와 여자를 따로 분리하여 각각 다른 방에 감금시켰다.²³⁴⁾

감금된 지 3일째 되던 날인 1950. 10. 4.(음 8. 23.) 저녁, 지방좌익은 감금되어 있던 사람들을 한명씩 호명하여 집 마당에 세워놓은 후, 천으로 두 눈을 가리고 두 손을 줄로 묶은 채 사람들을 바닷가로 끌고 가 배에 태웠고, 배에 태워진 사람들은 지방좌익에 의해

229) 「신청인 최정순 진술조서(마-6261)」(2008. 4. 29.) 진실규명대상자 최인호의 제적등본에는 일본식 이름인 ‘최차량(崔次郎)’만 기재되어 있고, 족보에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최인호의 한자명을 확인할 수 없었다.

230) 「신청인 최정순 진술조서(마-6261)」(2008. 4. 29.)

23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7.); 「신청인 최정순 진술조서(마-6261)」(2008. 4. 29.)

23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7.) 참고인 ○○○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약산면에서는 ‘전쟁이 곧 끝날 것이고, 전쟁이 끝나면 서울 같은 도시는 괜찮을 것이지만 지방에는 아직 유격대가 남아있어서 지방에 남아있으면 목숨이 위험할 것이다, 살아야 될 사람들은 떠나야한다’라는 생각이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퍼져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참고인 ○○○의 가족 및 일가도 가족 구성원 중 살아야 한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떠났던 것으로, 당시에는 배를 탄 사람들이 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그 사람들이 돌아가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다고 한다.

23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7.) 참고인 ○○○ 역시 가족, 친척 등 40여 명과 함께 배를 타고 장흥군 웅암리 내저마을 친척집으로 나갔다가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하룻밤만 자고 다시 약산면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훗날 참고인 ○○○는 자신이 떠난 그 다음날부터 지방좌익들이 약산면 사람들을 죽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234)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1. 6.) 참고인 ○○○은 다른 가족들이 모두 남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딸과 자신만 따로 어떤 방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지냈다고 한다. 그리고 그곳에 갇혀 있는 3일 동안 그 어떤 사람도 만나지 못했었다고 하며, 함께 배를 타지 못했던 황연례, 최정순도 보지 못했다고 한다.

장흥군 웅암리와 약산면 사이 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²³⁵⁾

희생자들이 관산리를 떠나고 며칠이 지난 후, 당시 희생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관산리를 떠났던 가족 중 최규철의 부인 ○○○이 자신의 딸과 함께 생존하여 관산리로 돌아왔다.²³⁶⁾ 이후 유가족들은 약산면 바닷가에 있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희생자들의 시신을 찾으러 다녔는데,²³⁷⁾ 넓고리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 한 줄로 묶여 있는 최근호, 최경호, 최철호, 최원호, 최인호, 최규실, 차호기의 시신과 바닷가 모래 속에 묻혀 있는 최규승의 시신, 그 외 최규철의 시신을 발견하여 수습하였다.²³⁸⁾ 그러나 황연례, 최정숙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²³⁹⁾

마. 금당면

금당면은 한국전쟁 당시에는 금일면이었으나 1986년 비견도, 허우도, 화도 등과 함께 금당면으로 분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²⁴⁰⁾ 금당면은 서쪽으로 장흥군 회진면과 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고흥군 도양읍과 접해 있어 장흥군, 고흥군 생활권에 편입된다.

금당면에 인민군이 진주한 것은 1950. 9. 5.로, 이후 분주소 등이 설치되었고 지방좌익의 활동이 시작되었다.²⁴¹⁾

23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1. 6.) 참고인 ○○○은 자신 역시 마당으로 불려나갔고 이내 두 눈이 가려져 정확하지는 않지만, 당시 마당에는 약 30~40명이 줄로 묶여진 채 서 있었고 앞쪽에는 남자들이, 뒤쪽에는 여자들이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최규승 일가 외에도 관산리에서 배를 타고 장흥군으로 떠난 송복신, 송정순, 김옥자, 김태정 역시 그곳에 있었으리라 추정되나, 참고인 ○○○이 원래 약산면 관산리 거주자가 아니어서 관산리 마을주민의 신원을 정확히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당시 이들도 그곳에 있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다.

236) 최규철의 부인 ○○○과 그의 딸은 바다에 수장되지 않아 생존하였다. ○○○과 그의 딸은 배에 태워져 바다로 나가려던 순간, 지방좌익에 의해 배에서 끌려나와 다시 집 안에 감금되어 그날 밤을 지냈다. 지방좌익은 ○○○의 가방에 있던 교사신분증(○○○은 당시 교사였음)을 경찰신분증으로 오해하고, ○○○은 경찰이므로 더 잔인한 방법으로 사살해야한다는 이유로 배에서 내리게 했다고 한다. 이튿날 아침, 경찰이 장흥군 웅암리에 진주하여 지방좌익이 후퇴해버려 ○○○과 그의 딸은 생존할 수 있었고, 이후 ○○○은 웅암리 마을주민의 도움으로 배를 타고 약산면으로 돌아왔다.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1. 6.)

237) 유가족들은 약산면 바닷가에 있는 마을은 모두 다니면서 시신을 발견하면 알려달라는 말을 하고 다녔는데, 당시에는 각 마을마다 유가족이 많았기 때문에 다들 그런 연락을 주고받았었다고 한다.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7.)

238)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7.); 『신청인 최재규 진술조서』(2009. 7. 28.); 『신청인 최정순 진술조서(마-6261)』(2008. 4. 2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7.)

23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7.); 『신청인 최정순 진술조서(마-6261)』(2008. 4. 2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1. 6.)

240) 금당면사무소 홈페이지(<http://www.wando.go.kr/vil02>) 참조.

24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1.); 『신청인 권병주 진술조서(다-3047)』(2007. 4. 11.)

금당면에서는 1950. 9. 10~27.에 차우리, 가학리, 봉동리에서 희생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각 사건의 내용을 발생 시기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금당면 차우리 송태원 희생사건(마167, 1950. 9. 10.)

진실규명대상자 송태원(宋太元, 남, 55)은 차우리 봉동마을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는데, 머슴을 두고 살 정도였고 농업 규모도 큰 편이어서 차우리에서는 부유한 편에 속하였다.²⁴²⁾ 또한 송태원은 금당면 지서 후원회장을 역임하였으며 금융조합 관련 일을 하는 등 금당면에서는 유지로 통하였다.²⁴³⁾

1950. 9. 7.(음 7. 25.)경, 송태원과 그의 둘째부인, 딸은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금당분주소로 끌려갔는데, 송태원의 딸은 풀려나 집으로 다시 돌아왔으나 송태원의 부인은 다시 금일분주소로 끌려갔고,²⁴⁴⁾ 송태원은 금당분주소에 감금되었다.²⁴⁵⁾ 이후 송태원은 1950. 9. 10.(음 7. 28.), 지방좌익에 의해 금당면 울포리 울포항에서 배에 태워져 차우리 목섬(무인도) 앞바다로 끌려가 칼에 찔린 후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²⁴⁶⁾

송태원의 유가족은 송태원이 탔던 배의 노를 저었던 마을 주민²⁴⁷⁾으로부터 송태원이 희생당한 사실을 전해 들었고, 이후 시신을 찾고자 하였으나 결국 찾지 못하였다.²⁴⁸⁾

242) 「신청인 송동열 진술조서」(2008. 4. 2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1.)

24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1.)

244) 송태원의 딸은 어려서 바로 풀려났고, 송태원의 둘째부인은 금당분주소에서 금일분주소로 끌려가 그곳에 감금당해 있다가 나중에 지방좌익이 후퇴할 때 풀려나 다시 금당면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24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1.); 「단기 4284년 형공 제604호」,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951. 12. 28. 판결문에는 “...(중략) 9월 10일 오전 10시경 동 분주소에서 예하 분주소원 金平文 외 6명과 其外 자위대원 성명미상 수명에게 지시하여 ...(중략) 소위 반동자로 규정하였던 宋泰元 외 14명을 체포 금당분주소로 인치 감금하고 ...(중략) 9월 11일 오전 10시경 既히 동 분주소에 감금하였던 宋泰元, 鄭國柱, 宋啓錫, 宋基欽, 姜又萬, 崔京煥 등 6명을 “경찰 밀정으로서 좌익 동지 수명을 경찰에 밀고 희생시켰다는 허위사실을 날조” 1件 서류와 共히 金日面 분주소로 압송하여 其中 宋泰元, 鄭國柱를 被殺케 하였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상의 내용에서 몇 가지 오류가 발견된다. 먼저 판결문에는 사건발생 일자가 ‘9. 11.’로 나와 있으나 실제 사건은 ‘9. 10.’에 발생하였고, 실제 송태원은 금일분주소에 도착하기 전 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

246) 「신청인 송동열 진술조서」(2008. 4. 2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1.) 송태원이 울포항에서 배에 실리기 전의 모습을 송태원의 조카(송태원의 형의 딸)가 목격하였다고 한다. 송태원의 조카는 비견도(울포항 건너편 섬)에 거주하던 중 불일을 보러 울포항에 왔다가 가마니에 넣어져 꿈틀거리고 있는 송태원을 목격하였고, 송태원이 “내가 너의 작은아버지이다. 나 이제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송태원의 조카는 현재 사망하였다.

247) 노를 저었던 마을주민은 김태용으로, 지방좌익은 아니었다고 한다. 김태용은 현재 사망하였다.

248) 「신청인 송동열 진술조서」(2008. 4. 2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1.)

2) 금당면 차우리 전순규 희생사건(마-5741, 1950. 9. 16.)

진실규명대상자 전순규(全順圭, 남, 27)는 금당면 차우리에 거주하며 어업에 종사하였고, 대한청년단원으로 활동하였는데,²⁴⁹⁾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는 금일읍사무소에서 근무했었다고 한다.²⁵⁰⁾

1950. 9. 16.(음 8. 5.) 밤, 전순규는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지방좌익 3~4명에 의해 집 밖으로 끌려 나갔고 금당면 차우리에서 울포리로 넘어가는 길에서 칼에 찔려 희생당하였다.²⁵¹⁾ 전순규의 부인 이정임은 전순규가 지방좌익에게 끌려 나간 후부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나 이튿날 아침이 되어도 전순규는 돌아오지 않았다.²⁵²⁾ 이튿날 아침, 전순규의 부인은 옆집에 살던 시동생에게 전날 밤의 상황을 이야기해주었고, 전순규의 동생은 전순규를 찾으러 나갔다가 금당면 차우리에서 울포리로 넘어가는 길에 있는 전순규의 시신을 발견하였다.²⁵³⁾

이후 전순규의 부인 및 친척들이 전순규의 시신을 수습하였다.²⁵⁴⁾

3) 금당면 가학리 김영배 희생사건(마-3704, 1950. 9. 19.)

금당면 가학리에 거주하던 진실규명대상자 김영배(金永培, 남, 26, 이명 김천두)는 특별한 우익활동은 하지 않았으나 한국전쟁 이전 경찰시험에 응시했다가 낙방한 적이 있었고, 그의 아버지가 금당면에서 우익으로 인식되어 김영배 역시도 우익으로 인식되었다.²⁵⁵⁾ 또한 지방좌익의 조직과 관련된 정보를 금당면 주민인 송태원²⁵⁶⁾에게 알려줬고 송태원이 이를 다시 경찰에게 알려줬던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김영배의 행적과 집안 배

24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1.)

250) 『신청인 전종보 진술조서』(2008. 4. 10.);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1.)

25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1.); 『신청인 전종보 진술조서』(2008. 4. 10.);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1.)

25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1.) 참고인 ○○○은 전순규가 끌려 나간 후 차우리에서 울포리로 넘어가는 길에서 소리가 나서 전순규가 그곳으로 간다고만 생각하고 있었고, 날이 밝을 때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25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1.)

254)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1.) 참고인 ○○○은 전순규의 시신을 수습하여 가마니로 말아서 자택으로 가져왔는데, 전날 밤 비가 많이 와서 시신에 핏자국이 하나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5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1.)

256) 송태원 역시 김영배가 희생당하기 며칠 전 지방좌익에 의해 희생당하였다. 송태원에 관한 사항은 ‘금당면 차우리 송태원 희생사건’ 참조.

제 3 권

경이 영향을 미쳐 김영배가 희생당한 것으로 판단된다.²⁵⁷⁾

1950. 9. 19.(음 8. 8.) 밤, 김영배는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끌려 나가 자택 부근 길 거리에서 희생당하였다.²⁵⁸⁾

이튿날 아침, 길거리를 지나가던 마을주민이 김영배의 시신을 발견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김영배의 유가족이 시신을 수습하였다.²⁵⁹⁾

4) 금당면 봉동리 송일섭 희생사건(마-5746, 1950. 9. 27.)

진실규명대상자 송일섭(宋日燮, 남, 29)은 금당면 차우리에서 농사를 짓고 김 양식을 하며 살고 있었다. 송일섭은 대한청년단 조직부장으로 활동했으며, 한국전쟁 발발 이후 후퇴하던 금당면 경찰에 의해 의경으로 임명되었다.²⁶⁰⁾ 이처럼 송일섭이 대한청년단원, 의경으로 활동한 점이 그가 희생당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1950. 9. 26.(음 8. 15.), 송일섭은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금당분주소로 끌려갔다가 이튿날인 9. 27.(음 8. 16.)에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날 저녁, 송일섭은 다시 지방좌익에 의해 금당면 봉동리 바닷가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몽둥이로 구타당하여 희생당하였다.²⁶¹⁾

이튿날 아침, 송일섭의 유가족은 송일섭이 희생당하였다는 소문을 들었고, 봉동리 바닷가로 가 그의 시신을 수습하였다.²⁶²⁾

바. 금일읍

금일읍은 완도읍에서 28.8km 떨어져 있으며, 동북쪽으로 고흥군과, 북쪽으로는 금당면과 인접해 있고, 서쪽으로 약산면과 서남쪽으로는 생일면과 인접해 있다.²⁶³⁾ 금일읍은 1950년 당시에는 금일면으로 지칭되었고, 생일면, 금당면을 포함하고 있었다.

25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1.)

258)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1.)

25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1.)

260) 『신청인 송기정 진술조서』(2008. 5. 8.);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1.)

26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1.); 『신청인 송기정 진술조서』(2008. 5. 8.);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1.)

262) 『신청인 송기정 진술조서』(2008. 5. 8.);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1.)

263) 금일읍사무소 홈페이지(<http://www.wando.go.kr/vil05/>) 참조.

금일읍에 인민군이 진주한 것은 1950. 9. 5.(음 7. 23.)로,²⁶⁴⁾ 인민군은 전남 고흥군 도양읍 녹동항에서 배를 타고 금일읍에 진주하였고 이후부터 금일읍 지방좌익들이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현재의 금일치안센터 자리에 분주소가 설치되었고, 현재의 금일농협 자리에 정치보위부가 조직되었으며, 자위대도 설치되었다.²⁶⁵⁾

금일읍에서는 우익인사들이 지방좌익에 의해 금일분주소로 끌려갔다가 희생당하거나, 인민재판 결과 희생당하는 사건 등이 발생하였는데, 각 사건의 내용을 발생 시기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금일읍 화목리 금일분주소 희생사건(마-944 등, 1950. 9. 17.~24.)

금일읍에 인민군이 진주한 이후부터 금일읍 지방좌익은 금일읍 우익들을 금일분주소로 끌고 와 감금하였는데, 금일분주소로 끌려간 사람들 중 일부는 풀려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화목리 치끝²⁶⁶⁾ 앞바다로 끌려가 그곳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

조사결과 1950. 9. 17~19.(음 8. 6~8.) 3일간, 그리고 9. 24.(음 8. 13.)에 금일읍 화목리 치끝 앞바다에서 희생사건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희생자들은 각자의 자택 또는 피신처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금일분주소로 끌려왔고 그곳에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7일 정도 감금되었다. 이후 희생자들은 지방좌익에 의해 배에 태워져 화목리 앞바다에서 약 1.5Km 떨어져 있는 치끝 앞바다로 끌려가 그곳에서 손이 줄로 묶이고 돌이 매달린 채 수장되었고, 경우에 따라 칼에 찔리거나 총에 맞은 후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²⁶⁷⁾ 희생자들의 시신은 바닷물의 흐름에 따라 치끝 등 육지로 떠밀려오거나 어장 그물에 걸린 경우에는 발견되어 수습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수습되지 못하였다. 희생자들은 주로 공무원, 대한청년단원이라는 이유, 부유하다는 이유 등이 영향을 끼쳐 희생당하였다.

조사결과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과 제적등본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총 22명으로, 그 중 진실규명대상자는 방정순, 김종준, 구기표, 천병탁, 김종식, 한동섭, 한동용 등 7명이고,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는 조복래, 이준옥, 서연환, 서응환, 신수일, 김서호,

264)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0. 22.): 『신청인 이계성 진술조서』(2009. 8. 1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인민군은 금일읍에 있던 경찰과의 교전 끝에 승리하여 금일읍에 진주하였고 경찰은 교전 후 후퇴하였다고 한다.

26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266) 치끝은 금일읍 화목리 앞바다에서 해상거리로 약 1.5km되는 곳에 위치에 있다.

267) 사건이 발생한 날 밤, 화목리 거주자들은 치끝 부근에서 총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참고인 ○○○ 전화면담』(2009. 10. 22.)

제 3 권

박사은, 김필선, 오귀환, 조현봉, 김종국, 이태우, 김경호, 김정한, 김양호 등 15명이다. 다음의 <표 9>는 희생시기에 따라 희생자들의 명단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9〉 금일읍 화목리 금일분주소 희생자 명단

희생시기	진실규명대상자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희생자 수
9. 17.	방정순, 김종준, 구기표, 천병탁, 김종식	조복래, 이준옥, 서연환, 서응환, 신수일, 김서호, 박사은, 김필선, 오귀환	14명
9. 18.	한동섭	조현봉, 김종국, 이태우, 김경호	5명
9. 19.	—	김정한, 김양호	2명
9. 24.	한동용	—	1명
합계	7명	15명	22명

〈표 9〉를 통해 1950. 9. 17.에는 방정순, 김종준, 구기표, 천병탁, 김종식, 조복래, 이준옥, 서연환, 서응환, 신수일, 김서호, 박사은, 김필선, 오귀환 등 14명이, 9. 18.에는 한동섭, 조현봉, 김종국, 이태우, 김경호 등 5명이, 9. 19.에는 김정한, 김양호 등 2명이, 9. 24.에는 한동용 등 1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의 희생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방정순 희생사건(마-944, 1950. 9. 17.)

진실규명대상자 방정순(方貞淳, 남, 47)은 금일읍 구동리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였고, 구동리에서는 부유한 편에 속하였다. 방정순은 해방 이후 건국위원회 부위원장, 금일읍 지서 후원회장으로 활동하였다.²⁶⁸⁾

방정순은 1950. 9. 13.경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금일분주소로 끌려가 약 2일간 감금되었다가 풀려나 자택으로 돌아왔으나, 다시 지방좌익에 의해 금일분주소로 끌려가 감금되었다가²⁶⁹⁾ 1950. 9. 17.(음 8. 6.), 치끝 앞바다로 끌려가 그곳에서 칼에 찔리고 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²⁷⁰⁾

268) 『신청인 방상현 진술조서』(2008. 5. 8.);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3.)

269) 『신청인 방상현 진술조서』(2008. 5. 8.);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참고인 ○○○은 자신의 아버지 이준옥이 금일분주소에 감금되어 있을 때 매일 아침, 이준옥이 먹을 음식을 분주소로 가져갔었는데, 당시 방정순도 함께 감금되어 있었다고 한다.

270) 『신청인 방상현 진술조서』(2008. 5. 8.);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3.)

방정순의 동생은 방정순을 면회하기 위해 금일분주소로 갔다가 방정순의 희생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다른 가족들과 함께 치끝에 떠밀려온 방정순의 시신을 발견하여 수습하였다.²⁷¹⁾

나) 김종준 희생사건(마-2413, 1950. 9. 17.)

진실규명대상자 김종준(金鍾準, 남, 47)은 금일읍 화목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는데, 화목리에서는 부유한 편에 속하였다. 그리고 김종준은 해방이후 정치활동에도 참여하여 화목리에서는 유지로 통하였다.²⁷²⁾

1950. 9. 17.(음 8. 6.) 밤, 김종준은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금일분주소로 끌려갔고 그날 밤 바로 치끝 앞바다로 끌려가 총에 맞은 후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²⁷³⁾

김종준의 가족들은 김종준이 끌려간 그 이튿날 금일분주소에 갔다가 전날 밤에 이미 김종준이 희생당했음을 알게 되었다. 이후 김종준의 유가족은 김종준의 시신을 찾기 시작한지 3일 만에 치끝 부근 바닷가에 떠 있는 김종준의 시신을 찾아 수습하였다.²⁷⁴⁾

다) 구기표 희생사건(마-2415, 1950. 9. 17.)

진실규명대상자 구기표(具奇表, 남, 46, 이명 구판동)는 금일읍 월송리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는데, 월송리에서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한다.²⁷⁵⁾

구기표는 1950. 9. 16.(음 8. 5.),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금일분주소로 끌려갔고 이튿날인 1950. 9. 17.(음 8. 6.), 치끝 앞바다로 끌려가 그곳에서 총에 맞은 후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²⁷⁶⁾

서」(2009. 8. 12.); 「신청인 이계성 진술조서」(2009. 8. 1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신청인 김성배 진술조서」(2009. 8. 10.);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참고인 ○○○ 전화면담」(2009. 10. 22.)

271) 「신청인 방상현 진술조서」(2008. 5. 8.);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참고인 ○○○은 자신의 아버지 김종준의 시신을 찾으러 치끝에 갔다가 김종준의 시신 옆에 있는 방정순의 시신을 목격하였다고 한다.

272) 「신청인 이계성 진술조서(마-2413)」(2008. 5. 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3.)

27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신청인 이계성 진술조서」(2009. 8. 1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신청인 방상현 진술조서」(2008. 5. 8.);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274)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3.); 「신청인 이계성 진술조서」(2009. 8. 13.) 김종준의 딸인 참고인 ○○○은 시신을 수습할 당시만 해도 아직 지방좌익이 활동하고 있을 때여서 김종준의 시신을 일단 부근에 가매장해놨다가 나중에 화목리로 이장하였다고 한다.

275) 「신청인 구종성 진술조서」(2008. 5. 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276) 「신청인 구종성 진술조서」(2008. 5. 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신청인 김성배 진술조서」

구기표의 동생은 동네 소문을 통해 구기표가 희생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치끝으로 떠내려 온 구기표의 시신을 발견하여 수습하였다.²⁷⁷⁾

라) 천병탁 희생사건(마-10716, 1950. 9. 17.)

진실규명대상자 천병탁(千炳卓, 남, 29)은 금일읍 충동리 용항마을에 거주하며 농업, 상업에 종사하였는데, 궁항리에서는 부유한 편에 속하였고 이장을 역임하여 마을에서는 유지로 통하였다고 한다.²⁷⁸⁾

천병탁은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금일분주소로 끌려가 며칠 동안 그곳에 감금되었다가 1950. 9. 17.(음 8. 6.), 치끝 앞바다로 끌려가 그곳에서 총에 맞은 후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²⁷⁹⁾

천병탁의 유가족은 마을 소문을 통해 천병탁이 희생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화목리 마을주민으로부터 천병탁의 시신이 화목리로 떠밀려 왔다는 소식을 듣고 화목리 바닷가 로 가 천병탁의 시신을 수습하였다.²⁸⁰⁾

마) 김중식 희생사건(마-10741, 1950. 9. 17.)

금일읍 궁항리에 거주하던 진실규명대상자 김중식(金重植, 남, 31)은 금일읍사무소에 근무하였는데, 궁항리에서는 부유한 편에 속하였다.²⁸¹⁾

김중식은 1950. 9. 17.(음 8. 6.),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금일분주소로 끌려갔고, 이 후 배에 태워져 치끝 앞바다로 끌려가 그곳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²⁸²⁾

김중식의 유가족은 이튿날 화목리로 떠밀려 온 김중식의 시신을 발견하여 수습하였다.²⁸³⁾

(2009. 8. 10.); 『신청인 이계성 진술조서(마-2413)』(2008. 5. 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3.)
 277) 『신청인 구종성 진술조서』(2008. 5. 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3.) 참고인 ○○○은 자신의 아버지 김종준의 시신을 찾으러 치끝에 갔다가 김종준의 시신 옆에 있는 구기표의 시신을 목격하였다고 한다.
 278) 『신청인 천부기 진술조서』(2008. 5. 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4. 24.);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신청인 이계성 진술조서』(2009. 8. 13.)
 279) 『신청인 천부기 진술조서』(2008. 5. 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4. 24.); 『신청인 김성배 진술조서』(2009. 8. 10.);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신청인 이계성 진술조서』(2009. 8. 1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280) 『신청인 천부기 진술조서』(2008. 5. 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4. 24.); 『신청인 이계성 진술조서』(2009. 8. 1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참고인 ○○○은 화목리 바닷가에서 자신의 아버지 이준옥의 시신을 수습할 당시 천병탁, 조복래의 시신도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81) 『신청인 김성배 진술조서』(2009. 8. 10.); 『신청인 이계성 진술조서』(2009. 8. 13.)
 282) 『신청인 김성배 진술조서』(2009. 8. 10.);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신청인 이계성 진술조서』(2009. 8. 1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바) 한동섭 희생사건(마-2412, 1950. 9. 18.)

진실규명대상자 한동섭(韓東燮, 남, 46)은 금일읍 월송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는데, 월송리에서는 자급자족할 수 있을 정도로 사는 편이었다.²⁸⁴⁾

한동섭은 1950. 9월 중순경, 지방좌익에 의해 금일분주소로 끌려가 구타를 당한 후 풀려나 집으로 돌아와 있었다.²⁸⁵⁾ 그로부터 2~3일 정도 지난 후인 1950. 9. 18.(음 8. 7.), 구타당한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한동섭은 지방좌익에 의해 지계에 실려 끌려 나갔고,²⁸⁶⁾ 이후 치끝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²⁸⁷⁾

한동섭의 유가족은 어장에 걸려 있는 한동섭의 시신을 발견하였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수습하지 못하였다.²⁸⁸⁾

사) 한동용 희생사건(마-7892, 1950. 9. 24.)

진실규명대상자 한동용(韓東用, 남, 35)은 금일읍 월송리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였다. 한동용은 특별한 우익활동은 하지 않았으나 좌익활동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았다고 한다.²⁸⁹⁾

한동용은 1950. 9월 중순경 지방좌익에 의해 금일분주소로 끌려갔다가 풀려나 자택으로 돌아왔으나, 1950. 9. 17.에 다시 지방좌익에 의해 금일분주소로 끌려가던 중 도망쳐 동백리 부근에 있는 기와공장으로 피신하였다. 그러나 한동용은 결국 지방좌익에 의해 소재가 발각되었고, 금일분주소로 끌려가 약 1주일 정도 금일분주소 앞 길거리에 묶인 채로 있었다.²⁹⁰⁾ 이후 1950. 9. 24.(음 8. 13.), 한동용은 화목리 치끝 앞바다로 끌려가 그곳에서 칼에 찔린 후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²⁹¹⁾

283) 「신청인 김성배 진술조서」(2009. 8. 10.);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284) 「신청인 이계성 진술조서(마-2412)」(2008. 5. 2.); 「신청인 한초임 진술조서」(2009. 9. 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285) 「신청인 한초임 진술조서」(2009. 9. 9.)

286) 「신청인 한초임 진술조서」(2009. 9. 9.) 한동섭은 처음 금일분주소에 끌려갔을 당시 구타를 심하게 당해 이후 자택으로 돌아왔을 때는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따라서 한동섭이 두 번째로 끌려갈 때는 지방좌익이 한동섭을 지계에 신고 데려갔다고 하며, 이 모습을 신청인 한초임이 목격하였다고 한다.

287) 「신청인 한초임 진술조서」(2009. 9. 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신청인 이계성 진술조서(마-2412)」(2008. 5. 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288) 「신청인 한초임 진술조서」(2009. 9. 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당시 한동섭의 유가족은 바다 속 어장에 들어 있던 한동섭의 시신을 목격하였지만 미처 수습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289) 「신청인 한초임 진술조서」(2009. 9. 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290) 「신청인 한초임 진술조서」(2009. 9. 9.)

한동용의 유가족은 한동용이 희생당하고 약 3개월이 지난 후 치끝 부근 김 양식장에 걸려있는 한동용의 시신을 발견하여 수습하였고, 부근에 가매장 해놨다가 이듬해에 월송리로 이장하였다.²⁹²⁾

그 외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는 조복래, 이준옥, 서연환, 서응환, 신수일, 조현봉, 김종국, 이태우, 김정환 등 9명으로, 1950. 9. 17.에는 조복래, 이준옥, 서연환, 서응환, 신수일이, 9. 18.에는 조현봉, 김종국, 이태우가, 9. 19.에는 김정환이 희생당하였다.

조복래(趙福來, 남, 30)는 금일읍 화목리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였다.²⁹³⁾

조복래는 자택에서 금일분주소로 끌려갔고, 1950. 9. 17.(음 8. 6.), 화목리 치끝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²⁹⁴⁾

조복래의 형은 치끝 부근으로 떠밀려온 조복래의 시신을 발견하고 배에 실어 화목리로 옮겼는데, 당시 조복래의 시신 외에도 이준옥, 천병탁의 시신도 함께 옮겼다.²⁹⁵⁾ 시신수습 당시 조복래의 가슴에 칼에 찔린 자국이 있었다고 한다.²⁹⁶⁾

이준옥(李俊玉, 남, 43)은 한국전쟁 발발 이전 광주로 이주하였다가 1950년 여름,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고향인 충도리 충도마을로 돌아와 거주하고 있었다.²⁹⁷⁾ 이준옥은 일제시대 때 금일면장을 역임하였고, 충동리에서는 부유한 편에 속하였다.²⁹⁸⁾

이준옥은 1950. 9월 어느 날, 금일분주소로 끌려갔다가 풀려나 자택으로 돌아왔으나 다시 지방좌익에 의해 금일분주소로 끌려가 그곳에 감금되었다.²⁹⁹⁾ 이후 1950. 9. 17.(음 8. 6.), 이준옥은 화목리 치끝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³⁰⁰⁾

291) 「신청인 한초임 진술조서」(2009. 9. 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신청인 이계성 진술조서」(2009. 8. 1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진실 규명대상자 한동용의 제사일은 그의 희생일인 9. 24.(음 8. 13.)과 동일한 날짜인 음 8. 13.이다.

292) 「신청인 한초임 진술조서」(2009. 9. 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한동용의 시신 수습 당시 한동용의 옷이 김양식장 발에 걸려 있었고 시신에는 줄에 묶인 돌이 매달린 채였다고 한다.

29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294)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29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296)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29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298)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29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참고인 ○○○은 자신의 아버지 이준옥이 금일분주소에 감금된 이후부터 화목리에 있는 고모집에 머물며 매일 아침마다 이준옥이 먹을 음식을 전해주려 금일분주소로 갔었는데, 당시 분주소 유치장에는 이준옥, 방정순 김필선 등 약 7명이 감금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참고인 ○○○ 역시 금일분주소에 끌려갔었을 당시 분주소에 이준옥, 오귀환이 감금되어 있었다고 한다.

300)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참고인 ○○○ 전화면

이준옥의 아들은 이준옥이 먹을 음식을 가져다주기 위해 금일분주소로 갔다가 이준옥이 이미 그곳에 없어 그가 희생당했음을 알게 되었다. 이후 이준옥의 아들은 치끝 부근으로 이준옥의 시신을 찾으러 다니다가 조복래의 형에 의해 치끝 부근에서 화목리 앞바다로 옮겨진 이준옥의 시신을 수습하였는데, 이준옥의 머리에 총상 흔적이 있었다고 한다.³⁰¹⁾

서연환(徐連煥, 남, 40), 서응환(徐應煥, 남, 31) 형제는 금일읍 신평리에 거주하였는데, 서연환은 신평리 이장이었고, 서응환은 대한청년단원이었다.³⁰²⁾

서연환, 서응환은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금일분주소로 끌려갔고, 1950. 9. 17.(음 8. 6.), 화목리 치끝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³⁰³⁾

서응환의 시신은 유가족에 의해 수습되었으나 서연환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³⁰⁴⁾

신수일(申洙壹, 남, 47)은 사동리 사동마을에 거주하며 해녀들을 데리고 다니며 어패류를 채취하는 일을 하였다. 그리고 신수일은 사동마을 이장이었고, 마을에서는 부유한 편에 속하였다고 한다.³⁰⁵⁾

신수일은 마을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금일분주소로 끌려갔고 그곳에 약 5일 동안 감금되어 있다가 1950. 9. 17.(음 8. 6.), 화목리 치끝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³⁰⁶⁾

신수일의 유가족은 신수일의 시신을 찾으러 다녔으나 결국 찾지 못하였다.³⁰⁷⁾

김서호(金瑞浩, 남, 40)는 충동리 동송마을에 거주하며,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였다. 그리고 김서호는 동송마을 이장을 역임하였고, 차기 면장에 거론될 정도의 인물로 마을에서는 유지로 통하였다고 한다.³⁰⁸⁾

김서호는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금일분주소로 끌려가 며칠 동안 감금되었다가 1950. 9. 17.(음 8. 6.), 화목리 치끝 앞바다로 끌려가 그곳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³⁰⁹⁾

김서호가 희생당한 후 그의 형 김경호와 그의 동생 김양호 역시 희생당하였는데, 김경호는 1950. 9. 18.(음 8. 7.)에, 김양호는 1950. 9. 19.(음 8. 8.)에 희생당하였다. 김경호, 김

답」(2009. 10. 29.)

30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302) 「참고인 ○○○ 전화면담」(2009. 10. 22.)

30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참고인 ○○○ 전화면담」(2009. 10. 22.)

304) 「참고인 ○○○ 전화면담」(2009. 10. 22.)

305) 「참고인 ○○○ 전화면담」(2009. 10. 29.)

306) 「참고인 ○○○ 전화면담」(2009. 10. 2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307) 「참고인 ○○○ 전화면담」(2009. 10. 29.)

308)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4.)

30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4.);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제 3 권

양호 역시 충동리 동송마을에 거주하며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였는데, 이들은 김서호가 희생당한 이후 지방좌익에 의해 끌려가 각각 희생당하였다.³¹⁰⁾

김서호, 김양호의 시신은 유가족에 의해 수습되었으나 김경호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하였다.³¹¹⁾

박사은(朴仕銀, 남, 43)은 월송리에 거주하며 금일국민학교와 금일동국민학교에서 교장을 역임하였다. 박사은의 원래 고향은 약산면이나 교직생활을 위해 금일읍으로 이주해 있었다고 한다.³¹²⁾

박사은은 지방좌익에 의해 금일분주소로 끌려갔고 이후 1950. 9. 17.(음 8. 6.), 화목리 치끝 앞바다로 끌려가 그곳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³¹³⁾

박사은의 유가족은 박사은의 시신을 찾으러 다녔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다.³¹⁴⁾

김필선(金必先, 남, 39)은 감목리에 거주하였고, 경찰로 근무하다가 한국전쟁이 나자 퇴직하여 고향에 돌아와 있었다.

김필선은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금일분주소로 끌려가 감금되었다가³¹⁵⁾ 이후 1950. 9. 17.(음 8. 6.), 화목리 치끝 앞바다로 끌려가 그곳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³¹⁶⁾ 김필선의 시신은 유가족에 의해 수습되었다.³¹⁷⁾

오귀환(남, 30대)은 척치리 후포마을에 거주하며 어업에 종사하였다. 그리고 오귀환은 금일읍에 인민군이 진주하기 이전부터 해안선 부근에서 야경을 서곤 했는데, 인민군이 금일읍에 진주하자 이 소식을 금일읍 지서에 전달해 주었고 훗날 이 사건으로 인해 지방좌익에 의해 희생당하였다.³¹⁸⁾

오귀환은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금일분주소로 끌려가 그곳에 감금되었다가³¹⁹⁾

310)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4.);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31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4.)

31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31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314)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315) 참고인 ○○○은 자신의 아버지 이준옥이 금일분주소에 감금되어 있을 당시, 이준옥이 먹을 음식을 전달하러 금일분주소에 갔다가 금일분주소에 감금되어 있는 이준옥, 김필선, 방정순을 목격하였다고 한다.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316)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31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318)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319) 참고인 ○○○은 자신이 지방좌익에 의해 금일분주소로 끌려갔을 때, 금일분주소에 이준옥, 오귀환 등이

1950. 9. 17.(음 8. 6.), 화목리 치끝 앞바다로 끌려가 그곳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³²⁰⁾ 오귀환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하였다.³²¹⁾

조현봉(趙顯鳳, 남, 31, 이명 조현철)은 금일읍 화목리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였는데, 농업규모가 크고 어업으로 많은 수익을 내는 편이어서 화목리에서는 부유한 편에 속하였다.³²²⁾

1950. 9. 18.(음 8. 7.), 조현봉은 용항리에 있는 자신의 어업 작업장에서 일을 마치고 잠을 자던 중, 작업장을 찾아온 지방좌익에 의해 금일분주소로 끌려갔고, 이후 화목리 치끝 앞바다로 끌려가 그곳에서 총에 맞은 후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³²³⁾

이튿날, 조현봉의 어머니는 조현봉이 먹을 음식을 가지고 금일분주소에 갔다가 그가 전날 밤 이미 희생당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후 조현봉의 유가족은 치끝 부근 바다에 있는 멀치어장 그물에 걸려 있는 조현봉의 시신을 발견하여 수습하였다.³²⁴⁾

김종국(金鍾國, 남, 43)은 그의 형 김종준³²⁵⁾을 비롯한 가족 및 친척과 함께 금일읍 화목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김종국의 집안은 화목리에서 부유한 편에 속하였고, 김종국 역시 마찬가지였다.³²⁶⁾

김종국은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끌려 나갔고, 이후 1950. 9. 18.(음 8. 7.), 화목리 치끝 앞바다에서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³²⁷⁾

감금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한다. 이후 ○○○는 끌려간 그날 밤, 지방좌익에 의해 혼자 밖으로 끌려 나갔고 금일분주소 부근 선창가로 끌려가 그곳에서 구타당하였다고 한다. ○○○는 구타당하다가 기절하였고, 이를 사망한 것으로 인지한 지방좌익은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그러나 ○○○는 새벽녘이 되자 깨어났고 신평리 자택 부근 사당으로 피신하였다가 다시 지방좌익에게 발각되어 금일분주소로 끌려갔다. 이후 ○○○는 지방좌익에 의해 고흥군으로 이송되었다가 다시 화순으로 끌려갔고, 화순에서 총에 맞았지만 생존하여 금일읍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금일읍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금일읍이 경찰에 의해 수복된 이후였다고 한다.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320)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32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32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참고인 ○○○은 조현봉이 해방 이후에 농지를 소유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경작하는 소작인과의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이 점이 조현봉이 희생당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하였다.

32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324)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325) 김종국의 형 김종준 역시 지방좌익에 의해 희생당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금일읍 화목리 금일분주소 김종준 희생사건' 참조.

326)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32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신청인 이계성 진술조서」(2009. 8. 13.)

김종국의 시신은 그의 부인 및 유가족에 의해 수습되었다.³²⁸⁾

이태우(李泰雨, 남, 32)는 금일읍 동백리에 거주하였고, 금일읍사무소에서 서기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었다.³²⁹⁾

이태우는 화목리에 있는 친척집에 피신해 있다가 지방좌익에 의해 금일분주소로 끌려갔고, 이후 1950. 9. 18.(음 8. 7.), 화목리 치끝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³³⁰⁾ 이태우의 시신은 유가족에 의해 수습되었다.³³¹⁾

김정환(金汀煥, 남, 33, 이명 김광호)은 금일읍 충동리 동송마을에 거주하며 어업에 종사하였는데, 동송마을에서는 부유한 편에 속하였다.³³²⁾

김정환은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금일분주소로 끌려가 감금되었다가 1950. 9. 16.(음 8. 5.)에 희생당할 뻔하였으나 도중에 탈출하여 신평리에 있는 누나 집으로 피신하였다.³³³⁾ 그러나 김정환은 누나에게도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다시 인근 섬(일명 가매도, 부도)으로 피신했으나 그곳 주민의 신고로 결국 지방좌익에게 소재가 발각되었고, 이후 지방좌익에 의해 금일분주소로 끌려갔다가 1950. 9. 19.(음 8. 8.), 화목리 치끝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³³⁴⁾

김정환의 어머니는 치끝 부근으로 떠밀려온 김정환의 시신을 수습하여 가매장하였다가 금일읍이 경찰에 의해 수복된 이후 충동리로 이장하였다.³³⁵⁾

2) 금일읍 화목리 정현우 희생사건(마946, 1950. 9. 20.)

진실규명대상자 정현우(鄭鉉佑, 남, 29)는 금일읍 동백리에 거주하며 해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바다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일을 하였는데, 동백리에서는 부유한 편에 속하였다.³³⁶⁾

328)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신청인 이계성 진술조서」(2009. 8. 13.)

32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330)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이태우는 일정리 일정항에서 수장되어 희생당한 김종훈(이명 김종관)의 사위이다. 김종훈의 희생사실은 ‘금일읍 일정리 김종명 희생사건’ 참조.

33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332) 「참고인 ○○○ 전화면담」(2009. 11. 10.)

333) 「참고인 ○○○ 전화면담」(2009. 11. 10.)

334) 「참고인 ○○○ 전화면담」(2009. 11. 10.);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4. 24.); 「신청인 천부기 진술조서」(2008. 5. 9.)

335) 「참고인 ○○○ 전화면담」(2009. 11. 10.)

336) 「신청인 정안석 진술조서」(2008. 5. 8.);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신청인 이계성 진술조서」(2009. 8. 13.)

1950. 9. 20.(음 8. 9.), 지방좌익은 금일읍 화목리 주민들을 금일읍사무소 앞 광장으로 모이도록 한 후 인민재판을 열었는데, 이 재판에 정현우가 회부되었다.³³⁷⁾ 정현우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가 지방좌익에 의해 금일읍사무소 앞 광장으로 끌려갔고,³³⁸⁾ 이후 인민재판에 회부되어 금일읍 부근 바다에서 전황을 살피던 경찰이 타고 있는 배와 접선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칼로 목이 베이고 총에 맞아 희생당하였다.³³⁹⁾

정현우의 유가족은 정현우가 희생당한 날 밤, 정현우의 시신을 수습하여 금일읍사무소 부근에 가매장해냈다가 이후 동백리로 이장하였다.³⁴⁰⁾

3) 금일읍 일정리 김종명 희생사건(마-2411, 1950. 9. 22.)

진실규명대상자 김종명(金鍾鳴, 남, 39)은 금일읍 화목리에 거주하였고, 어업조합 이사를 지내는 등 화목리에서는 부유한 편에 속하였다.³⁴¹⁾ 김종명의 첫째형 김종준과 둘째형 김종국은 김종명이 희생당하기 전인 1950. 9. 17~18.에 금일읍 화목리 치끝 앞바다에서 희생당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김종훈(金鍾勳, 남, 47, 이명 김종관)은 김종명의 사촌형으로, 금일읍 화목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고, 화목리에서는 부유한 편에 속하였다.³⁴²⁾

1950. 9. 22.(음 8. 11.), 김종명과 김종훈은 지방좌익에 의해 금일읍 일정리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³⁴³⁾

33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참고인 ○○○, ○○○은 자신들은 자택에 숨어있었기 때문에 인민재판이 열리는 현장에 직접 가보지는 못하였으나 총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희생당했다는 사실은 인지하였으며 후에 희생자가 정현우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38) 「신청인 정안석 진술조서」(2008. 5. 8.)

33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참고인 ○○○ 전화면담」(2009. 10. 2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신청인 정안석 진술조서」(2008. 5. 8.);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신청인 이계성 진술조서」(2009. 8. 1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정현우가 희생된 이유에 대해 참고인에 따라 금일읍 앞바다를 지나가던 수십 척의 미군 함선과 접선했기 때문이라거나 금일읍 주위를 정찰하던 경찰과 접선했기 때문이라는 등 진술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당시 인민재판이 열리던 현장에 있었고 정현우가 희생당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한 참고인 ○○○의 진술에 따라 정현우의 희생이유를 본문에서와 같이 표현하였다.

340) 「신청인 정안석 진술조서」(2008. 5. 8.);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341) 「신청인 이계성 진술조서(마-2411)」(2008. 5. 2.)

342) 「신청인 이계성 진술조서(마-2411)」(2008. 5. 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34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3.); 「신청인 이계성 진술조서」(2009. 8. 1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2. 3.) 김종명, 김종훈의 유가족은 이들이 지방좌익에게 끌려간 날인 9. 22.(음 8. 11.)을 희생일로 여기고, 이 날을 제사일로 정하였다. 참고인들 역시 음 8. 11.을 이들의 희생일로 인지하고 있어 이에 본 결정서는 음 8. 11.

김종명, 김종훈의 유가족은 소문을 통해 이들의 희생사실을 인지하였고, 이후 일정리 및 그 부근으로 시신을 찾으러 다녔으나 결국 찾지 못하였다.³⁴⁴⁾

사. 소안면 희생사건

소안면은 완도군의 최남단에 위치하며 완도읍에서 20.8km 거리에 있으며, 동쪽으로는 청산도, 서쪽으로는 노화도 및 보길도와 인접해 있고, 남쪽은 멀리 제주도를 바라보고 있다.³⁴⁵⁾

소안면에서는 1949년부터 1950. 9월 사이에 희생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각 사건의 내용을 발생 시기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안면 횡간리 김복홍 등 5명 희생사건(마-3865 등, 1949. 4. 15.)

이 사건의 희생자는 진실규명대상자 김복홍(金福弘, 남, 36, 이명 김채홍), 김민채(金敏彩, 남, 33), 김용관(金龍官, 남, 20), 장남동(張南同, 남, 22),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박일섭(朴日燮, 남, 33)으로, 이들은 모두 소안면 횡간리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한국전쟁 이전 소안면 횡간리에는 일명 ‘독청대’라는 우익단체가 조직되어 있었는데, ‘독청대’를 이끌었던 사람은 김경운이었다. 김경운은 마을주민으로부터 소안면 횡간리에 있는 산에 소안면 및 노화읍에서 활동하던 지방좌익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마을주민 김복홍, 김민채, 김용관, 장남동, 박일섭에게 이 사실을 소안면 지서에 신고하도록 지시하였다.³⁴⁶⁾

이에 김복홍, 김민채, 김용관, 장남동, 박일섭은 1949. 4. 15.(음 3. 17.), 배를 타고 횡간리를 떠났는데,³⁴⁷⁾ 떠난 지 3일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이들의 유가족과 마을주민들이 이들을 찾아 나섰는데, 노화읍 동천리 동천항에서 이들이 탔던 배만 발견되고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들의 시신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³⁴⁸⁾

을 이들의 희생일로 판단하였다.

344) 「신청인 이계성 진술조서(마-2411)」(2008. 5. 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3.)

345) 소안면사무소 홈페이지(<http://www.wando.go.kr/vill2/>) 참조.

346) 「참고인 ○○○ 진술조서」(2008. 8. 17.); 「참고인 ○○○ 진술조서」(2008. 8. 17.)

34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6.); 「신청인 이영애 진술조서」(2009. 9. 16.); 「참고인 ○○○ 진술조서」(2008. 8. 17.); 「참고인 ○○○ 진술조서」(2008. 8. 17.); 「신청인 김동연 진술조서」(2008. 8. 16.) 신청인 김동연 진술조서는 진실화해위원회 집단희생조사국으로 접수된 진실규명신청사건(마-3873)에 대한 것으로, 진술내용 중 본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 본 결정서에서 활용하였다. 마-3873 사건은 2009. 2. 16. 진실규명 결정되었다. 「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541~680쪽 참조.

조사결과 김복흥 등 5명이 정확히 어디에서 희생당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신청인 및 참고인 모두는 소안면 지서에 신고하러 가는 희생자들을 저지하기 위해 지방좌익이 횡간리와 노화읍 사이 바다에 이들을 수장시킨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2) 소안면 횡간리 앞바다 희생사건(마-3872, 마-10737, 1950. 8. 14.)

이 사건의 희생자는 김철구(金哲九, 남, 58), 김석노(金石老, 남, 49), 김용재(金龍宰, 남, 22)로, 이들은 모두 소안면 횡간리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1950. 8. 14.(음 7. 1.) 밤, 소안면 횡간리 마을주민 32명이 지방좌익에 의해 횡간리 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³⁴⁹⁾ 희생자들은 희생당하기 이전 횡간국민학교 창고에 감금되어 있으며 인민재판을 받았고, 그 결과에 따라 희생당하였다.³⁵⁰⁾

조사결과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과 제적등본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진실규명 대상자 김철구, 김석노이고, 김용재는 이때 구타를 당한 후 희생당하지는 않았으나 그 후 유증으로 이듬해인 1951년에 사망하였다.

김철구는 농어업에 종사하였고 횡간리 이장을 역임하였다.³⁵¹⁾ 김철구는 자신의 아들 김용관이 좌익활동을 하자 경찰에 자수하게 한 후 우익활동을 하도록 하였는데, 이 같은 행적이 영향을 끼쳐 김철구가 희생당한 것으로 판단된다.³⁵²⁾ 김철구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하였다.³⁵³⁾

김철구의 아들 김용재는 이 시기에 지방좌익에게 구타를 당한 후유증으로 이듬해인 1951. 4. 22.(음 3. 17.)에 사망하였다.³⁵⁴⁾

김석노는 멀치어장을 운영하였는데, 지방좌익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방좌익에 의해 어깨 등을 구타당한 후 횡간국민학교로 끌려가 약 3일 동안 그곳에 감금되어 있다가 이후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 김석노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하였다.³⁵⁵⁾

348) 「참고인 ○○○ 진술조서」(2008. 8. 17.); 「신청인 김동연 진술조서」(2008. 8. 16.)

349) 「신청인 김동연 진술조서」(2008. 8. 16.); 「참고인 ○○○ 진술조서」(2008. 8. 17.)

350) 「참고인 ○○○ 진술조서」(2008. 8. 17.)

351) 「참고인 ○○○ 진술조서」(2008. 8. 17.); 「참고인 ○○○ 진술조서」(2008. 8. 17.)

352) 「참고인 ○○○ 진술조서」(2008. 8. 17.)

353) 「신청인 정복자 전화면담」(2009. 10. 19.); 「신청인 김동연 진술조서」(2008. 8. 16.); 「참고인 ○○○ 진술조서」(2008. 8. 17.)

354) 「참고인 ○○○ 진술조서」(2008. 8. 17.); 「참고인 ○○○ 진술조서」(2008. 8. 17.); 「신청인 김동연 진술조서」(2008. 8. 16.); 「신청인 정복자 전화면담」(2009. 10. 19.)

355) 「신청인 김광식 진술조서」(2008. 8. 17.); 「참고인 ○○○ 진술조서」(2008. 8. 17.); 「참고인 ○○○ 진술조서」(2008. 8. 17.); 「신청인 김동연 진술조서」(2008. 8. 16.)

3) 소안면 이월리 김석만 희생사건(마-3857, 1950. 9월 말)

진실규명대상자 김석만(金石萬, 남, 22)은 소안면 이월리 이목마을에 거주하였고, 이월리 월항마을에 거주하던 김용연이 소유한 배의 기관장이었다고 한다.³⁵⁶⁾

김석만은 1950. 9월 말경, 지방좌익 2명이 김용연과 함께 자신의 자택으로 찾아와 배를 타고 같이 어딘가로 가자고 하자 하는 수 없이 그들을 따라 나갔다. 이후 김석만의 가족들은 김석만의 행방을 모른 채 지내다가, 며칠 후 김용연이 돌아와 '자신과 김석만이 인민군, 지방좌익과 함께 소안면 월항리 부둣가에서 배를 타고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항구로 갔는데, 그곳에서 인민군, 지방좌익들이 배를 침몰시킬 때 김석만도 함께 바다에 수장되었다'고 전해주어 김석만의 희생사실을 알게 되었다.³⁵⁷⁾

김석만의 유가족은 정확한 희생장소를 확인할 수 없어 그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였다.³⁵⁸⁾

아. 노화읍 희생사건

노화읍은 44개의 유·무인도로 형성되어 있고 동남쪽에 소안도와 보길도가 위치하고 있다. 육지의 최남단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땅끝마을과 직선으로 9Km, 완도읍 정도리 화흥포항과 직선 9Km 거리에 위치해 있다.³⁵⁹⁾

노화읍에 인민군이 진주한 것은 1950. 8. 11.이었다. 인민군은 해남군에서 배를 타고 노화읍으로 진주해 왔고, 면소재지인 노화읍 이포리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고 분주소, 자위대를 설치하였다.³⁶⁰⁾

노화읍에서는 1950. 8. 10.~19.에 희생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각 사건의 내용을 발생 시기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화읍 이포리 황준봉 희생사건(마-7133, 1950. 8. 10.)

진실규명대상자 황준봉(黃俊鳳, 남, 28)은 노화읍 도청리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였고, 대한청년단원으로 활동하였다.³⁶¹⁾

356) 「신청인 김현수 진술조서」(2008. 8. 11.); 「참고인 ○○○ 진술조서」(2008. 8. 1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6.)

357) 「신청인 김현수 진술조서」(2008. 8. 11.); 「참고인 ○○○ 진술조서」(2008. 8. 11.)

358) 「신청인 김현수 진술조서」(2008. 8. 1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6.)

359) 노화읍사무소 홈페이지(<http://www.wando.go.kr/vil10/>) 참조.

360) 「신청인 양윤이 진술조서」(2008. 4. 2.); 「신청인 손영운 진술조서」(2008. 4. 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0.); 「단기 4284년 형공 제215호」,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951. 6. 16.

1950. 8. 9.경, 황준봉은 형 황래봉, 황세봉과 함께 노화읍 이포리에 있는 리사무소로 끌려가 그곳에 감금되어 구타를 당하였고, 이후 황준봉은 1950. 8. 10.(음 6. 27.), 지방좌익에 의해 이포리 길거리에서 희생당하였다.³⁶²⁾ 황준봉의 형 황래봉, 황세봉은 풀려났으나 이후 1950. 9. 30.(음 8. 19.) 완도읍에서 희생당하였다.³⁶³⁾

황준봉의 유가족은 황준봉이 희생당한 지 3일이 지난 후에 그의 시신을 수습하였다.³⁶⁴⁾

2) 노화읍 이포리 서창호 희생사건(마-4382, 1950. 8. 11.)

진실규명대상자 서창호(敍昌昊, 남, 34)는 노화읍 도청리에 거주하며 노화읍 대한청년단장으로 활동하였고, 도청리에서는 부유한 편에 속하였다.³⁶⁵⁾ 서창호는 대한청년단원으로 활동한 점이 영향을 끼쳐 희생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950. 8. 11.(음 6. 28.) 오후, 서창호는 자택에서 인민군 2명에 의해 노화읍 이포리로 끌려갔고, 노화읍 각 마을주민 수십 명이 모인 가운데 인민군에 의해 이포리 부둣가에서 배에 태워진 후 부둣가 바로 앞바다에서 총에 맞아 희생당하였다.³⁶⁶⁾

서창호의 유가족은 소문을 통해 서창호가 희생당한 사실을 인지하였는데, 인민군이 총에 맞은 후 바닷가에 빠트려진 서창호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였다.³⁶⁷⁾

361) 「신청인 황종국 진술조서」(2008. 5. 2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5.)

362) 「신청인 황종국 진술조서」(2008. 5. 2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0.) 황준봉의 유가족은 황준봉이 희생당하고 3일이 지난 8. 13.(음 6. 30.)에 시신을 수습하였고, 이날을 그의 제사일로 정하였다. 그리고 황준봉의 제적등본상 사망일도 1950. 8. 10. 이므로 본 결정서는 황준봉의 희생일을 8. 10.(음 6. 27.)로 판단하였다.

363) 황준봉의 형 황래봉, 황세봉의 희생사실은 '완도읍 군내리 완도내무서 황래봉, 황세봉 형제 희생사건' 참조.

364) 「신청인 황종국 진술조서」(2008. 5. 2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0.)

365) 「신청인 양율이 진술조서」(2008. 4. 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0.)

366) 「참고인 ○○○ 진술녹취」(2009. 3. 20.); 「신청인 양율이 진술조서」(2008. 4. 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6.);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0.);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5.) 서창호는 노화읍 주민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희생당하였는데, 실제로 참고인 ○○○은 서창호가 총에 맞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한다. 서창호가 희생당한 사건은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노화읍 주민들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었는데, 이는 서창호가 희생당하는 과정을 목격한 사람이 많은 점과 이 날이 노화읍에 인민군이 처음으로 진주한 날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67) 「신청인 양율이 진술조서」(2008. 4. 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8. 10.) 서창호의 유가족은 1963. 10. 2. 내각수반 김현철이 발행한 표창장과 메달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표창장의 내용은 “우(右)는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한 청년운동에 솔선참가하여 반공전선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그 숭고한 반공정신을 찬양하여 이에 표창장을 추서하여

3) 노화읍 동천리 고종엽 희생사건(마-348-1, 1950. 8. 11.)

진실규명대상자 고종엽(高宗葉, 여, 41)은 남편 손남석과 함께 노화읍 동천리 친구마을에 거주하고 있었고, 어업과 가사에 종사하고 있었다.

1950. 8월 어느 날, 고종엽의 남편 손남석은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노화읍 이포리 농협창고로 끌려가 그곳에 감금되었는데, 당시 농협창고에는 손남석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감금되어 있었다. 이후 손남석은 1950. 8. 19.(음 7. 6.), 해남군 송지면 월송리로 끌려가 그곳에서 희생당하였다.³⁶⁸⁾

고종엽은 손남석이 끌려간 이후 지방좌익으로부터 ‘돈을 마련하면 손남석을 풀어준다’는 말을 듣고, 1950. 8. 11.(음 6. 28.), 돈을 준비해 지방좌익과 함께 동천리에서 배를 타고 이포리로 가던 중, 노화읍와 소안면 사이 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³⁶⁹⁾ 고종엽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했다.³⁷⁰⁾

4) 노화읍 등산리 천종남 희생사건(미신청, 1950. 8. 14.)

천종남(千鍾南, 남, 38)은 노화읍 등산리 당산마을에 거주하며 금융조합 이사(현 농협조합장)를 지냈다.³⁷¹⁾

천종남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자신의 아버지 천기옥이 지방좌익에 의해 끌려가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처갓집이 있는 노화읍 내리 냇도로 피신하였다.³⁷²⁾ 그러나 천종남은 지방좌익에게 피신처가 발각되어 보길면 부학리로 끌려가 그곳 주막에 감금되었는데, 당

길이 표창함. 1963년 10월 2일 내각수반 김현철 이증을 제6476호로서 내각수반 표창부에 기입함. 내각사 무처장 이석제"이다.

368) 「신청인 손영운 진술조서」(2008. 4. 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6.);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6.);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5.) 자세한 내용은 ‘노화읍 이포리 농협창고 희생사건’ 참조.

369) 「신청인 손영운 진술조서」(2008. 4. 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6.);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6.) 신청인 손영운은 고종엽의 희생사실은 사건발생 이후 지방좌익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들어 고종엽이 희생당한 과정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신청인은 고종엽이 지방좌익과 함께 자택을 떠난 날인 8. 11.(음 6. 28.)을 희생당한 날로 여기고 제사를 음력 6. 28. 날짜로 지내고 있었다. 이에 본 결정서 역시 8. 11.을 고종엽의 희생일로 판단하였다.

370) 「신청인 손영운 진술조서」(2008. 4. 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6.);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6.)

37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0. 7.) 천종남의 아버지 천기옥 역시 천종남이 희생당한 이후 지방좌익에 의해 희생당하였다. 자세한 사건내용은 ‘노화읍 이포리 농협창고 천기옥 희생사건’ 참조.

37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0. 7.)

시 그곳에는 천종남 이외에도 노화읍 서리에 거주하던 김영재도 끌려와 있었다.³⁷³⁾ 1950. 8. 14.(음 7. 1.), 천종남과 김영재는 지방좌익에 의해 몸에 돌이 매달린 채 보길면 정자리와 노화읍 등산리 당산마을 사이 바다에 수장되었는데, 천종남은 희생당하였고, 김영재는 손에 묶여 있는 줄이 풀려 해엄을 쳐서 육지로 나와 생존하였다.³⁷⁴⁾

천종남의 어머니는 김영재로부터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듣고, 보길면 정자리와 노화읍 등산리 당산마을 부근 바닷가 등으로 천종남의 시신을 찾으러 다녔는데, 며칠이 지난 후 노화읍 내리 냇도 바닷가로 밀려온 천종남의 시신을 발견하여 수습하였다.³⁷⁵⁾

5) 노화읍 이포리 농협창고 희생사건(마-348, 마-243, 1950. 8. 19.)

노화읍에 인민군이 진주한 이후, 노화읍 지방좌익은 노화읍, 보길면에 거주하던 우익들을 노화읍 이포리에 있는 농협창고로 끌고 와 감금하였다. 당시 농협창고에는 수십 명이 감금되어 있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해남군 송지면 월송리로 끌려가 희생당하였고, 해남군으로 끌려가지 않았던 나머지 사람들은 1950. 9월 중순경 노화읍에 잠시 진주한 장흥경찰부대에 의해 풀려나 생존하였다.³⁷⁶⁾

농협창고에 감금되었다가 이후 해남군으로 끌려가 희생당한 희생자들이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조사결과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과 제적등본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진실규명대상자 손남석, 김경희와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천기옥이다.

가) 손남석 희생사건(마-348, 1950. 8. 19.)

노화읍 동천리 천구마을에 거주하던 진실규명대상자 손남석(孫南錫, 남, 40)은 농어업에 종사하였고 해태조합에서 근무하였는데, 동천리에서는 부유한 편에 속하였다. 또한 손남석은 천구마을 이장이었다.³⁷⁷⁾

1950. 8월 어느 날, 손남석은 자택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노화읍 이포리 농협창고로 끌

37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5.)

374)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5.)

37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0. 7.) 천종남의 시신을 수습했을 당시 이미 눈은 다 파여 없어진 상태였다고 한다.

376)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6.) 참고인 ○○○은 자신 역시 1950. 9월 어느 날, 지방좌익에 의해 자택에서 이포리 농협창고로 끌려가 약 1주일 정도 감금되었는데, 당시 농협창고에는 100여 명이 감금되어 있었다고 하며 이들은 모두 노화읍에 진주한 경찰부대에 의해 풀려나 생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77) 『신청인 손영운 진술조서』(2008. 4. 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6.);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6.)

려가 그곳에 감금되었는데,³⁷⁸⁾ 당시 농협창고에는 손남석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금되어 있었다.³⁷⁹⁾ 이후 1950. 8. 19.(음 7. 6.), 손남석은 농협창고에 감금되어 있던 사람들과 함께 해남군 송지면 월송리로 끌려가 그곳에서 희생당하였다.³⁸⁰⁾

손남석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하였다.³⁸¹⁾

나) 김정희 희생사건(마-243, 1950. 8. 19.)

진실규명대상자 김정희(金京希, 남, 31, 이명 김덕이)는 전남 보성군에서 경찰로 재직하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고향인 보길면 예송리로 돌아와 거주하고 있었다.³⁸²⁾ 김정희가 희생당한 데에는 그의 경찰 근무 경력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³⁸³⁾

1950. 8월 어느 날, 김정희는 자택에서 지방좌익 5~6명에 의해 끌려 나가 노화읍 이포리 농협창고에 감금되었고, 이후 1950. 8. 19.(음 7. 16.), 해남군 송지면 월송리 야산에서 총에 맞아 희생당하였다.³⁸⁴⁾

김정희의 희생사실은 바로 전해지지 않았다. 김정희의 유가족은 약 1달이 지나서야 소문을 통해 김정희의 희생사실을 알게 되었고,³⁸⁵⁾ 이후 해남군으로 가 김정희의 시신을 수습하였다.³⁸⁶⁾

378) 손남석이 끌려갈 당시 같은 마을주민인 손보문, 조기호도 끌려가 이포리 농협창고에 감금되었는데, 이들은 1950. 9월 중순경 노화읍에 온 경찰부대에 의해 풀려나 생존하였다고 한다. 『진실규명신청서(마-348) 및 첨부서류』, 2005. 12. 26.;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6.)

379) 『신청인 손영운 진술조서』(2008. 4. 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6.) 참고인 ○○○은 손남석이 끌려간 이후 농협창고에 가보았으나 손남석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하였다고 하며, 정확한 인원은 모르지만 농협창고에 많은 사람들이 갇혀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80) 『신청인 손영운 진술조서』(2008. 4. 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6.);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6.);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5.)

381) 『신청인 손영운 진술조서』(2008. 4. 2.);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6.);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6.) 비록 손남석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하였으나, 당시 손남석과 함께 희생당한 천기옥의 유가족이 해남군에서 천기옥의 시신을 수습할 당시 손남석의 시신을 목격하였다고 하여 손남석이 해남군에서 희생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382) 『신청인 김춘태 진술조서』(2008. 4. 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4.);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4.)

383) 그 외 참고인 ○○○는 한국전쟁 발발 이전 김정희가 마을주민과 산소 문제로 갈등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김정희가 희생당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4.)

384) 『신청인 김춘태 진술조서』(2008. 4. 3.);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4.);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5.) 신청인 김춘태는 제적등본 상 사망일인 '7. 20.'을 기준으로 김정희의 제사를 음 7. 20.에 지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김정희는 천기옥(노화읍 당산리), 손남석(노화읍 동천리)과 함께 해남군 송지면 월송리에서 1950. 8. 19.(음 7. 16.)에 희생당하였으므로 김정희의 희생일을 8. 19.로 판단하였다.

385) 『신청인 김춘태 진술조서』(2008. 4. 3.)

다) 천기옥 희생사건(미신청, 1950. 8. 19.)

천기옥(千基玉, 남, 54)은 노화읍 등산리 당산마을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였는데 등산리에 서는 부유한 편에 속하였고, 일제시대 때 이장을 역임하는 등 노화읍에서는 유지로 통하였다.³⁸⁷⁾

천기옥은 1950. 8. 14. 이전, 자택에서 자신의 둘째아들 천종안과 함께 지방좌익에 의해 노화읍 이포리 농협창고로 끌려가 그곳에 감금되었는데, 천종안은 약 1주일 후 풀려났으나 천기옥은 이후 약 3일 동안 그곳에 더 감금되어 있었다.³⁸⁸⁾ 천기옥의 부인은 천기옥이 끌려간 이후부터 천기옥이 먹을 음식을 가지고 매일 아침 농협창고로 갔는데, 어느 날 아침, 지방좌익으로부터 천기옥이 농협창고에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희생당했음을 인지하였다.³⁸⁹⁾

이후 천기옥의 부인은 소문을 통해 1950. 8. 19.(음 7. 6.), 천기옥이 노화읍 이포리에서 배에 태워져 해남군 송지면 월송리로 끌려가 그곳에서 희생당하였음을 알게 되었다.³⁹⁰⁾ 천기옥의 부인은 친척과 함께 천기옥이 끌려간 지 약 2달 정도 지난 후에 해남군으로 가 천기옥의 시신을 수습하였는데, 수습 당시 천기옥의 시신은 다리 하나가 떨어져 나가있는 상태였다고 한다.³⁹¹⁾

4. 진실규명대상자 및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의 희생사실 여부

진실규명대상자 및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의 희생사실 여부는 문헌자료와 진술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먼저 문헌자료로는 제적등본과 각종 명부를 검토하였다. 제적등본을 통해서도 진실규명대상자

386)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4.);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4.) 김경희의 유가족은 김경희의 시신을 수습할 당시 시신이 모두 부패된 상태였으나 김경희가 자택에서 끌려 나갈 당시 착용했던 허리띠 등이 남아있어 그 주위에 있는 김경희의 뼈 등을 수습했다고 한다.

387)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0. 7.)

388)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0. 7.) 천종안은 풀려나기 전 농협창고에서 구타를 당했고, 지방좌익에 의해 배에 태워져 총살당할 뻔 했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당시 17세)로 생존하였다고 한다.

389)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0. 7.)

390)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0. 7.)

391)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9. 15.); 「참고인 ○○○ 진술조서」(2009. 10. 7.) 천기옥의 부인이 해남군 송지면 월송리에서 시신을 수습했을 당시 부근 마을주민으로부터 어느 날 초저녁부터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주위에 밤새 횃불이 켜져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또한 천기옥의 부인이 시신을 수습할 당시 그곳에는 천기옥의 시신 외에도 손남석(노화읍 등천리), 김경희(보길면 예송리)의 시신도 있었다고 한다. 천기옥의 부인은 현재 사망하였다.

및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의 인적사항과 제적등본 상 사망일 및 사망장소를 확인하였다.³⁹²⁾

각종 명부는 진실규명대상자 및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의 희생사실이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활용하였는데, 『6·25사변 피살자명부』에 희생사실이 등재된 경우에는 희생자의 성명, 나이, 피살연월일, 피살장소를 표기하였고,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에 희생사실이 등재된 경우에는 희생자의 성명, 생년월일, 피살장소, 소속 및 직위를 표기하였는데, 진실규명대상자 김길순, 서창호 등 2명만 등재되어 있어 이들에 한해서만 등재된 내용을 별도로 표기하였다. 그 외 『6·25사변 피납치자명부』에는 진실규명대상자 및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가 등재되어있지 않아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사를 진행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진실규명대상자 및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의 인적사항, 시신수습 여부, 제사일 등을 확인하였다. 시신수습 여부를 확인하여 진실규명대상자 및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가 희생된 사실이 실재하였는지와 희생장소를 확인하였고, 제사일을 통해 희생일을 확인하였다.³⁹³⁾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과 문헌자료의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진술을 우선시하였고, 신청인과 참고인 사이의 진술 또는 참고인 사이의 진술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사건을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한 진술자의 진술을 우선시하였다.

진실규명대상자 및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의 희생사실 확인은 다음의 기준을 통해 이루어졌다.

우선 희생자의 시신이 수습되고 희생 시기와 장소가 밝혀진 경우에는 희생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완도지역의 희생자들이 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시신이 수습되지 못하였더라도 희생시기 및 장소가 확인됐을 때에는 희생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첫째 시신이 수습되지 못하였으나 희생과정을 직접 목격한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 경우,³⁹⁴⁾ 둘째 시신이 수습되지 못하였으나 희생자가 희생당하기 전 감금되어 있는 모습을 목격한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 경우,³⁹⁵⁾ 셋째

392) 그러나 제적등본 상 사망일 및 사망장소가 대부분 정확하지 않아 제적등본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였다. 진실규명대상자 및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가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는 ‘미신고’로 표기하였고, 제적등본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확보’로 표기하였다.

393) 희생자들의 희생시기는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였는데, 예외의 경우는 각 사건의 내용을 서술할 때 별도의 설명을 각주에 해놓았다.

394) 진실규명대상자 서창호(마-4382)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희생과정을 목격한 참고인으로부터 그 내용을 전해들은 경우도 이에 포함시켰는데, 진실규명대상자 김철구(마-3872), 김석노(마-10737)가 이에 해당한다.

395) 진실규명대상자 최경춘(마-7277)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시신이 수습되지 못하였으나 다른 희생자들과 함께 동일한 장소에 감금되어 있다가 동일한 장소에서 희생당한 경우,³⁹⁶⁾ 넷째 시신이 수습되지 못하였으나 다른 희생자들과 함께 동일한 장소에서 희생당한 경우,³⁹⁷⁾ 다섯째 시신이 수습되지 못하였으나 시신을 목격한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 경우,³⁹⁸⁾ 여섯째 시신이 수습되지 못하였으나 3인 이상의 참고인 진술 및 문헌자료를 통해 희생시기 및 장소가 공통적으로 확인된 경우³⁹⁹⁾에는 희생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외 희생자의 시신이 수습되지 못하였고 희생시기 및 장소가 부분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희생사실이 ‘추정’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 진실규명대상자 67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26명 등 전체 희생자 93명 중, 희생사실이 ‘확인’된 희생자는 진실규명대상자 66명,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25명 등 91명이고, 희생사실이 ‘추정’된 희생자는 진실규명대상자 1명,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1명 등 2명이다.

〈표 10〉은 진실규명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희생사실 확인사항을 표로 정리한 것이고, 〈표 11〉은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의 인적사항 및 희생사실 확인사항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0〉 진실규명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희생사실 확인사항

사건 번호 (신청인)	연번 (전체 연번)	진실규명대상자				문헌자료		진술조사			희생 사실 확인 결과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직업 및 주요 경력	신청인 과의 관계	희생일 및 희생장소	제적등본 (사망일, 사망장소)	6·25사 변 피살자 명부 등	시신 수습 여부	제사 일	진술자 (사건과 의 관계)	
군외면											
마- 871 (이승화)	1 (1)	이원춘 (李垣春 남, 38) 이명: 이심천	농업	아버지	1950. 9. 14. (음 8. 3.) 군외면 황진리 중리마을 앞 갯벌둑	1950. 9. 20. 완도군 군외면 황진리 도로변	×	○	음 8. 2.	이승화, ○○○, ○○○ (전문)	확인

396) 진실규명대상자 최규린(마-9302), 송복운(마-9312), 정평균(마-772), 최응열(마-8912), 조성삼(미신청), 정역천(미신청), 서연환(미신청), 신수일(미신청), 박사은(미신청), 오귀환(미신청), 김정호(미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397) 진실규명대상자 송정순(마-9311), 김태정(마-9315), 황연례(마-6261), 최정숙(마-6261)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398) 진실규명대상자 한동섭(마-2412)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시신을 목격한 참고인으로부터 그 내용을 전해들은 경우도 이에 포함시켰는데, 진실규명대상자 손남석(마-348)이 이에 해당한다.

399) 진실규명대상자 김종명(마-2411), 김복홍(마-3865), 김민채(마-3866), 김용관(마-3867), 장남동(마-3869), 고종엽(마-348-1), 김종훈(미신청), 박일섭(미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제 3 권

사건 번호 (신청인)	연번 (전체 연번)	진실규명대상자				문헌자료		진술조사			희생 사실 확인 결과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직업 및 주요 경력	신청인 과의 관계	희생일 및 희생장소	제적등본 (사망일, 사망장소)	6·25사 변 파살자 명부 등	사신 수습 여부	제사 일	진술자 (사건과 의 관계)	
완도읍											
마- 935 (최동주)	1 (2)	최윤신 (崔允信 남, 43)	농업	아버지	1950. 9. 30. (음 8. 19.) 완도읍 군내리 주도 앞바다	1952. 9. 25. 완도군 완도읍 내리 앞 해안	崔允信, 24, 10.3, 바다	○	음 8. 18.	조남금 (사신 목격) ○○○, ○○○, ○○○, 김상록 (전문)	확인
마- 6120 (김상록)	2 (3)	김복길 (金福吉 남, 29)	농업 의경	작은 아버지		1950. 10. 3. 완도군 완도읍 내리 前 해안	金卜吉, 30, 8.19, 신지면	○	음 8. 18.	김상록, ○○○, ○○○ (전문)	확인
마- 7277 (최영옥)	3 (4)	최경춘 (崔慶春 남, 26)	의경	아버지		1953. 9. 15.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818	崔京春, 28, 9.23, 강진 마랑	×	음 8. 18.	○○○ (연행과 정 목격) ○○○ (김금목 격) ○○○, ○○○ (전문)	확인
마- 7652 (황중채)	4 (5)	황래봉 (黃來鳳 남, 43)	농업	아버지		1950. 9. 19. 완도군 완도읍 東海中	黃奉來, 45, 9.22, 고금면 청룡리	○	음 8. 18.	○○○ (희생과 정 경현, 김금 목격) 황중채, ○○○, 황중길, 황중국 (전문)	확인
마- 6762 (황중길)	5 (6)	황세봉 (黃世鳳 남, 40)	농업	아버지		1950. 9. 19. 완도군 완도읍 東海中	黃世峰, 42, 9.22, 고금면 청룡리	○	음 8. 18.	○○○ (희생과 정 경현, 김금 목격) 황중길 (연행과 정 목격) ○○○, 황중채, 황중국 (전문)	확인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사건 번호 (신청인)	연번 (전체 연번)	진실규명대상자				문헌자료		진술조사			희생 사실 확인 결과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직업 및 주요 경력	신청인 과의 관계	희생일 및 희생장소	제적등본 (사망일, 사망장소)	6·25사 변 파살자 명부 등	사신 수습 여부	제사 일	진술자 (사건과 의 관계)	
마- 7653 (임진일)	6 (7)	임남선 (林南先 남, 34)	농업 대한청 년단원	아버지		1950. 9. 19.완도군 완도읍 東海中	林南先, 36, 8.13, 소안면 황간리	○	음 8. 18.	○○○ (희생과 정 경험, 감금목 격) ○○○, ○○○ (전문)	확인
마- 7654 (김용인)	7 (8)	김길순 (金吉順 남, 49)	공무원	아버지		1950. 8. 19.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부두	金吉淳, 55, 8.2, 소안면 황간리 / 순국 명부- 金吉順, 1901. 9. 26, 노화면 도근리 406, 노화면 국민회 총무 부장	○	음 8. 18.	○○○ (희생과 정 경험, 감금 목격) 김용인 (연행과 정 목격) ○○○, ○○○ (전문)	확인
마- 10714 (김재옥)	8 (9)	김경석 (金敬石 남, 35)	농업	아버지		1979. 5. 26. 완도군 소안면 황간리 278-1	×	○	음 8. 18.	김재옥, ○○○, ○○○ (전문)	확인
	9 (10)	김경안 (金敬安 남, 31)	농업	작은 아버지		1963. 5. 16. 완도군 소안면 황간리 278-3	×	○	음 8. 18.		확인
	10 (11)	김국흠 (金局欽 남, 19)	학생	작은 아버지		1961. 5. 9. 완도군 소안면 황간리 332	金局欽, 22, 8.13, 황간리	○	음 8. 18.		확인
고금면											
마- 3079 (박종술)	1 (12)	박태규 (朴太圭 남, 29)	교사	아버지	1950. 9. 5. (음 7. 23.) 고금면 청학리 부둣가	1964. 4. 20. 완도군 고금면 청룡리 51	×	○	음 3. 14.	박종술, ○○○, ○○○ (전문)	확인

제 3 권

사건 번호 (신청인)	연번 (전체 연번)	진실규명대상자				문헌자료		진술조사			희생 사실 확인 결과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직업 및 주요 경력	신청인 과의 관계	희생일 및 희생장소	제적등본 (사망일, 사망장소)	6·25사 변 파살자 명부 등	사신 수습 여부	제사 일	진술자 (사건과 의 관계)	
마- 10727 (황춘봉)	2 (13)	황복윤 (黃福允 남, 40) 이명: 황의연	농업	아버지	1950. 9. 15. (음 8. 4.) 고금면 가교리 부둣가	1947. 2. 5. 완도군 고금면 가교리 932	×	○	음 8. 2.	○○○ (사신목 격) 황춘봉, ○○○, ○○○, ○○○ (전문)	확인
마- 4197 (오광재)	3 (14)	오병석 (吳炳錫 남, 29)	경찰	삼촌	1950. 9. 17. (음 8. 6.) 고금면 덕동리 앞바다	1972. 5. 10. 완도군 고금면 덕동리 327	吳炳錫, 30, 9.21, 화룡리	○	음 8. 5.	오광재 (연행과 정 목격) ○○○ (연행과 정 목격, 사신처 리) ○○○, ○○○, ○○○, ○○○, ○○○ (전문)	확인
약산면											
마- 9300-1 (최정순)	1 (15)	최윤열 (崔允烈 남, 63)	농업 양조장 운영 등	둘째 할아버지	1948. 5. 9. (음 4. 1.) 약산면 득암리 자택	1948. 5. 9. 완도군 약산면 득암리 501	×	○	음 3. 30.	최정순, 최재규, ○○○, ○○○, ○○○, ○○○ (전문)	확인
마- 9302 (최대용)	2 (16)	최규린 (崔圭隣 남, 38)	어업 대한청 년단원	할아버지	1950. 9. 19. (음 8. 8.) 약산면 장용리 대죽도 앞바다	1954. 10. 3. 완도군 약산면 관산리 573	崔圭仁, 39, 10.3, 화룡리	×	음 8. 7.	송이섭 (연행과 정 목격) 최대용, ○○○ (전문)	확인
마- 9312 (송이섭)	3 (17)	송복윤 (宋福閏 남, 31)	경찰	작은 아버지		1950. 9. 20. 완도군 약산면 장용리 898	宋福允, 34, 9.16, 화룡리	×	음 8. 7.	송이섭, (연행과 정 목격) ○○○ (전문)	확인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사건 번호 (신청인)	연번 (전체 연번)	진실규명대상자				문헌자료		진술조사			희생 사실 확인 결과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직업 및 주요 경력	신청인 과의 관계	희생일 및 희생장소	제적등본 (사망일, 사망장소)	6·25사 변 파살자 명부 등	사신 수습 여부	제사 일	진술자 (사건과 의 관계)	
마- 772 (정영준)	4 (18)	정평균 (鄭平均 남, 34)	농업	아버지	1950. 9. 21. (음 8. 10.) 약산면 장용리 앞바다	1950. 9. 25. 완도군 약산면 장용리 635	×	×	음 8. 9.	정영준, ○○○, ○○○, ○○○, ○○○ (전문)	확인
마- 9314 (윤사현)	5 (19)	윤세창 (尹世昌 남, 27) 이명: 윤방현	농업 대한청 년단원	형		1950. 9. 20. 완도군 약산면 장용리 898	×	○	음 8. 9.	윤사현 (연행과 정 목격) 송이섭 (전문)	확인
마- 8912 (안향순)	6 (20)	최응열 (崔應烈 남, 59)	이장	할아버지	1950. 9. 27. (음 8. 16.) 약산면 장용리 앞바다	1950. 9. 20. 완도군 약산면 관산리 731	崔應烈, 64, 9.25, 고금면 농상리	×	음 8. 16.	○○○ (김금인 지) 안향순, ○○○ (전문)	확인
마- 9307 (최재규)	7 (21)	최병태 (崔炳泰 남, 24)	농업 대한청 년단원	작은 아버지		1957. 8. 20. 완도군 약산면 관산리 500	崔炳泰, 30, 9.25, 고금면 농상리	○	음 8. 15.	최재규 (연행과 정 목격) ○○○, 최현 (전문)	확인
마- 9309 (최현)	8 (22)	최병호 (崔秉浩 남, 73)	교회 장로	할아버지		1952. 10. 5. 완도군 약산면 관산리 602	×	○	음 8. 15.	최현, 최재규 (전문)	확인
마- 9308 (차충본)	11 (25)	차상근 (車相根 남, 41)	농업 숙박업 등	아버지		1954. 3. 5.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693	車相根, 42, 10.8, 약산면	○	음 8. 15.	○○○ (연행과 정 목격, 사신목 격) 김경자, 최재규, ○○○ (전문)	확인
마- 749 (오영균)	9 (23)	오병천 (吳炳千 남, 26)	농업 대한청 년단원	아버지		1959. 4.1.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739	吳炳年, 27, 9.18, 금일읍 척치리	○	음 8. 17.	○○○ (사신 수습) ○○○ (연행과 정 목격, 사신 목격) 오영균, ○○○ (전문)	확인

제 3 권

사건 번호 (신청인)	연번 (전체 연번)	진실규명대상자				문헌자료		진술조사			희생 사실 확인 결과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직업 및 주요 경력	신청인 과의 관계	희생일 및 희생장소	제적등본 (사망일, 사망장소)	6·25사 변 파살자 명부 등	사신 수습 여부	제사 일	진술자 (사건과 의 관계)	
마- 9306 (이주환)	10 (24)	이옥룡 (李玉龍 남, 34)	농업 이장 대한청 년단원	아버지		1959. 10. 25.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732	×	○	음 8. 17.	○○○ (연행과 정 목격, 사신 목격) 이주환, ○○○ (전문)	확인
마- 6921 (최영규)	12 (26)	최병원 (崔炳元 남, 35)	어업	아버지	1950. 9. 30. (음 8. 19.) 약산면 장용리 앞바다	1965. 10. 20. 충남 서천군 비인면 칠지리 434	崔炳先, 38, 9.21, 약산분 주소	○	음 8. 18.	최영규, (사신처 리 목격) ○○○ (전문)	확인
마- 9310 (송이섭)	13 (27)	송복신 (宋福信 남, 35)	농업 대한청 년단원	아버지	1950. 10. 4. (음 8. 23.) 장흥군 대덕읍과 약산면 사이 바다	1950. 9. 20. 완도군 약산면 장용리 898	宋福信, 38, 9.16, 화룡리	○	음 8. 22.	송이섭 (장흥 으로 떠나는 모습 목격, 송복신 의 사신 목격) 최재규, 최화자 (전문)	확인
마- 9311 (송이섭)	14 (28)	송정순 (宋貞順 여, 18)	가사	사촌누나		1950. 9. 20. 완도군 약산면 장용리 898	宋正順, 38, 9.16, 화룡리	×	음 8. 22.		확인
마- 9305 (김옥주)	15 (29)	김옥자 (金玉子 여, 23)	가사	여동생	1950. 10. 4. (음 8. 23.) 장흥군 대덕읍과 약산면 사이 바다	1950. 10. 5. 완도군 약산면 관산리 745	金玉子, 24, 10.8, 약산면	○	양력 10. 3.	송이섭 (장흥 으로 떠나는 모습 목격, 김옥주, ○○○, 최재규, ○○○ (전문)	확인
마- 9315 (김옥주)	16 (30)	김태정 (金太正 남, 19)	학생	남동생		1950. 10. 10. 완도군 약산면 관산리 745	金大正, 22, 10.8, 약산면	×	양력 10. 3.		확인
마- 8135 (최명숙)	17 (31)	최규승 (崔圭昇 남, 34)	군산세 관 직원	아버지	1950. 10. 4. (음 8. 23.) 장흥군 대덕읍과	1950. 10. 8. 완도군 약산면 장용리 989	×	○	음 8. 22.	김직순 (생환) 최규향, ○○○	확인

제 1 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사건 번호 (신청인)	연번 (전체 연번)	진실규명대상자				문헌자료		진술조사			희생 사실 확인 결과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직업 및 주요 경력	신청인 과의 관계	희생일 및 희생장소	제적등본 (사망일, 사망장소)	6·25사 변 파살자 명부 등	사신 수습 여부	제사 일	진술자 (사건과 의 관계)	
마- 9300-1 (최정순)	18 (32)	최규철 (崔圭七 남, 28)	의사	5촌당 숙	약산면 사이 바다	1950. 10. 8. 완도군 약산면 장용리 989	崔圭七, 30, 10.8, 약산면	○	음 8. 22.	(장흥 으로 떠나는 모습 목격) 최명숙, 최정순, 최대용, 최재규, ○○○ (전문)	확인
	19 (33)	최근호 (崔謹鎬 남, 17)	학생	6촌오 빠		1950. 10. 8. 완도군 약산면 장용리 989	崔謹鎬, 21, 10.8, 약산면	○	음 8. 22.		확인
마- 9303 (최대용)	20 (34)	최경호 (남, 16)	학생	삼촌		1952. 6. 5. 완도군 약산면 관산리 573	崔敬鎬, 37, 10.8, 약산면	○	음 8. 22.		확인
마- 9304 (최대용)	21 (35)	최철호 (남, 15)	학생	삼촌		1952. 9. 15. 완도군 약산면 관산리 573	崔喆浩, 27, 10.8, 약산면	○	음 8. 22.		확인
마- 9313 (최규향)	22 (36)	최규실 (崔圭實 남, 18)	농업	형		1950. 10. 3. 완도군 약산면 관산리 786	崔圭實, 29, 9.25, 고금면 농상리	○	음 8. 22.		확인
마- 6261 (최정순)	23 (37)	황연례 (黃研禮 여, 43)	가사	어머니		1950. 9. 27. 완도군 약산면 장용리 989	黃連愛, 46, 9.16, 화룡리	×	음 8. 22.		확인
	24 (38)	최원호 (崔元鎬 남, 19)	학생	첫째오빠		1950. 9. 27.완도군 약산면 장용리 989	崔元鎬, 23, 10.8, 약산면	○	음 8. 22.		확인
	25 (39)	최인호 (남, 14)	학생	셋째오빠		1950. 9. 27.완도군 약산면 장용리 989	崔仁鎬, 16, 10.8, 강진 실리	○	음 8. 22.		확인
	26 (40)	최정숙 (崔貞淑 여, 5)	어린이	여동생		1950. 9. 27. 완도군 약산면 장용리 989	崔貞淑, 6, 10.8, 약산면	×	음 8. 22.		확인
	27 (41)	차호기 (남, 20세 가량)	학생	집사 아들		미확보	×	○	미상		확인

제 3 권

사건 번호 (신청인)	연번 (전체 연번)	진실규명대상자				문헌자료		진술조사			희생 사실 확인 결과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직업 및 주요 경력	신청인 과의 관계	희생일 및 희생장소	제적등본 (사망일, 사망장소)	6·25사 변 파살자 명부 등	사신 수습 여부	제사 일	진술자 (사건과 의 관계)	
금당면											
마- 167 (송동열)	1 (42)	송태원 (宋太元 남, 55)	농업	아버지	1950. 9. 10. (음 7. 28.) 금당면 차우리 목섬 앞바다	1965. 4. 22. 완도군 금당면 차우리 1107	宋泰元, 57, 9.12, 금당면 봉동리	×	음 7. 27.	송동열, ○○○, ○○○ (연행과 정 목격) ○○○ (전문)	확인
마- 5741 (전종보)	2 (43)	전순규 (全順圭 남, 27)	어업 대한청 년단원	아버지	1950. 9. 16. (음 8. 5.) 금당면 차우리 자택 부근 길거리	1952. 8. 24. 완도군 금일면 차우리 79-2	金順圭, 29, 9.16, 장흥군 대덕면	○	음 8. 4.	○○○ (연행과 정 목격, 사신 수습) 전종보, ○○○, ○○○ (전문)	확인
마- 3704 (김홍진)	3 (44)	김영배 (金永培 남, 26) 이명: 김천두	농업	작은 아버지	1950. 9. 19. (음 8. 8.) 금당면 가학리 길거리	미확보	×	○	미상	김홍진, ○○○, ○○○, ○○○, ○○○ (전문)	확인
마- 5746 (송기정)	4 (45)	송일섭 (宋日燮 남, 29)	농업 대한청 년단원	아버지	1950. 9. 27. (음 8. 16.) 금당면 봉동리 바닷가	1957. 9. 5. 완도군 금일면 차우리 110	宋日燮, 31, 9.26, 금당면 봉동리	○	음 8. 15.	○○○ (사신 수습) 송기정, ○○○, ○○○ (전문)	확인
금일읍											
마- 944 (방상현)	1 (46)	방정순 (方貞淳 남, 47)	농업 어업	아버지	1950. 9. 17. (음 8. 6.) 금일읍 화목리 차끝 앞바다	1960. 5. 8. 완도군 금일읍 신구리 948	×	○	음 8. 5.	방상현 (연행과 정 목격) ○○○ (사신 목격) ○○○, ○○○, ○○○, 김성배, ○○○, ○○○, ○○○ (전문)	확인

제 1 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사건 번호 (신청인)	연번 (전체 연번)	진실규명대상자				문헌자료		진술조사			희생 사실 확인 결과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직업 및 주요 경력	신청인 과의 관계	희생일 및 희생장소	제적등본 (사망일, 사망장소)	6·25사 변 파살자 명부 등	사신 수습 여부	제사 일	진술자 (사건과 의 관계)	
마- 2413 (이계성)	2 (47)	김종준 (金鍾準 남, 47)	농업	장인		1950. 9. 6. 완도군 금일읍 화목리	金鍾準, 49. 9.25, 금일읍	○	음 8. 5.	○○○ (사신 수습) ○○○ (희생과 정 인지, 전문) 이계성, ○○○, 방상현, ○○○ (전문)	확인
마- 2415 (구종성)	3 (48)	구기표 (具奇表 남, 46) 이명: 구판동	농업	할아버 지		1962. 2. 5. 완도군 금일면 월송리 701	×	○	음 8. 5.	○○○ (사신 목격) 구종성, 이계성, ○○○ (전문)	확인
마- 10716 (천부기)	4 (49)	천병탁 (千炳卓 남, 29)	농업 상업	큰아버지		1953. 2. 19. 완도군 금일면 충동리 175	×	○	음 8. 5.	○○○ (연행과 정 목격) 천부기, 이계성, ○○○, ○○○, 김성배 (전문)	확인
마- 10741 (김성배)	5 (50)	김중식 (金重植 남, 31)	공무원	아버지		1969. 4. 29. 완도군 금일면 충동리 55	×	○	음 8. 5.	○○○ (희생과 정 인지) 김성배, 이계성, ○○○, ○○○ (전문)	확인
마- 2412 (이계성)	6 (51)	한동섭 (韓東燮 남, 46)	농업	妻 친척	1950. 9. 18. (음 8. 7.) 금일읍 화목리 차골 앞바다	미신고	×	×	미상	한초임 (연행과 정 목격) ○○○ (사신처 리) 이계성, ○○○, ○○○, ○○○, ○○○ (전문)	확인

제 3 권

사건 번호 (신청인)	연번 (전체 연번)	진실규명대상자				문헌자료		진술조사			희생 사실 확인 결과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직업 및 주요 경력	신청인 과의 관계	희생일 및 희생장소	제적등본 (사망일, 사망장소)	6·25사 변 파살자 명부 등	사신 수습 여부	제사 일	진술자 (사건과 의 관계)	
마- 7892 (한초임)	7 (52)	한동용 (韓東用 남, 35)	농업	아버지	1950. 9. 24. (음 8. 13.) 금일읍 화목리 치끝 앞바다	1968. 9. 17. 완도군 금일면 월송리 820	×	○	음 8. 13.	한초임 (연행과 정 목격, 시신목 격) ○○○, ○○○, 이계성, ○○○ (전문)	확인
마- 946 (정안석)	8 (53)	정현우 (鄭鉉佑 남, 29)	어업	아버지	1950. 9. 20. (음 8. 9.) 금일읍 화목리 금일읍사무소 앞 광장	1956. 8. 23. 완도군 금일면 동백리 574	×	○	음 8. 9.	○○○, ○○○ (희생과 정 목격) ○○○, ○○○ (희생과 정 인지) 정안석, ○○○, ○○○, 이계성 (전문)	확인
마- 2411 (이계성)	9 (54)	김종명 (金鍾鳴 남, 39)	어업조 합 직원	처삼촌	1950. 9. 22. (음 8. 11.) 금일읍 일정리 앞바다	1961. 7. 7. 완도군 금일읍 화목리 206	金鍾明, 37, 9.16, 약산면 해상	×	음 8. 11.	이계성, ○○○, ○○○, ○○○, ○○○ (전문)	확인
소안면											
마- 3865 (김상배)	1 (55)	김복홍 (金福弘 남, 36)	농업	아버지	1949. 4. 15. (음 3. 17.) 소안면 황간리와 노화읍 사이 바다	1948. 3. 17. 완도군 소안면 황간리 부락 앞 해상	×	×	음 3. 16.	김상배, 김재봉, 윤선희, 이영애, 김동연, ○○○, ○○○, ○○○ (전문)	확인
마- 3866 (김재봉)	2 (56)	김민채 (金敏彩 남, 33)	농업	아버지		1948. 3. 17. 완도군 소안면 황간리 부락 앞 해상	×	×	음 3. 16.		확인
마- 3867 (윤선희)	3 (57)	김용관 (金龍官 남, 20)	농업	시아버지		1948. 4. 14. 완도군 소안면 황간리 西方百來突 海上	×	×	음 3. 16.		확인

제 1 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사건 번호 (신청인)	연번 (전체 연번)	진실규명대상자				문헌자료		진술조사			희생 사실 확인 결과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직업 및 주요 경력	신청인 과의 관계	희생일 및 희생장소	제적등본 (사망일, 사망장소)	6·25사 변 파살자 명부 등	사신 수습 여부	제사 일	진술자 (사건과 의 관계)	
마- 3869 (이영애)	4 (58)	장남동 (張南同 남, 32)	농업	시작은 아버지		1948. 3. 17. 완도군 소안면 황간리 부락前 海上	×	×	음 3. 16.		확인
마- 3872 (정복자)	5 (59)	김철구 (金哲九 남, 58)	이장	시아버지	1950. 8. 14. (음 7. 1.) 소안면 황간리 앞바다	1950. 8. 13. 완도군 소안면 황간리 부락前 해상	金哲九, 67, 8.13, 소안면 황간리	×	음 6. 30.	정복자, 김동연, ○○○, ○○○ (전문)	확인
	6 (60)	김용재 (金龍宰 남, 22)	농업	시아주 버니	1951. 4. 22. (음 3. 17.) 자택	1954. 11. 10. 완도군 소안면 황간리 336	×	○	음 3. 16.		확인
마- 10737 (김광식)	7 (61)	김석노 (金石老 남, 49)	어업	아버지	1950. 8. 14. (음 7. 1.) 소안면 황간리 앞바다	1950. 8. 20. 완도군 소안면 황간리 부락前 해상	金石花, 52, 8.13, 소안면 황간리	×	음 6. 30.	김광식, 김동연, ○○○, ○○○ (전문)	확인
마- 3857 (김현수)	8 (62)	김석만 (金石萬 남, 22)	배 기관장	형	1950. 9월 말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부둣가	1950. 7. 20. 완도군 소안면 아월리 733	×	×	지내 지 않음	김현수 (연행과 정 목적) ○○○, ○○○ (전문)	추정
노화읍											
마- 7133 (황종국)	1 (63)	황준봉 (黃俊鳳 남, 28)	농업 대한청 년단원	아버지	1950. 8. 10. (음 6. 27.) 노화읍 이포리 길거리	1950. 8. 10. 완도군 노화면 도청리 471	×	○	음 6. 30.	황종국, ○○○, ○○○ (전문)	확인
마- 4382 (양율이)	2 (64)	서창호 (敍昌昊 남, 34)	대한청 년단원	장인	1950. 8. 11. (음 6. 28.) 노화읍 이포리 부둣가	1950. 8. 11. 완도군 노화면 이포리 부두	× / 순국 명부— 徐昌昊, 1917.1.11 노화면 도근리, 노화면 한청부 단장	×	양 8. 11. (추도 일)	○○○ (희생과 정 목적) 양율이, ○○○, ○○○, ○○○ (전문)	확인
마- 348-1 (손영운)	3 (65)	고종엽 (高宗葉 여, 41)	가사	어머니	1950. 8. 11. (음 6. 28.) 노화읍과 소안면 사이 바다	1950. 8. 15. 완도군 노화면 동천리 內 泉九味 前 連邊	高宗業, 43, 8.13, 소안면 황간리 앞바다	×	음 6. 28.	손영운, ○○○, ○○○ (전문)	확인

제 3 권

사건 번호 (신청인)	연번 (전체 연번)	진실규명대상자				문헌자료		진술조사			희생 사실 확인 결과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직업 및 주요 경력	신청인 과의 관계	희생일 및 희생장소	제적등본 (사망일, 사망장소)	6·25사 변 파살자 명부 등	사신 수습 여부	제사 일	진술자 (사건과 의 관계)	
마- 348 (손영운)	4 (66)	손남석 (孫南錫 남, 40)	농업, 어업, 해태조 합 직원	아버지	1950. 8. 19. (음 7. 6.) 해남군 송지면 월송리 아산	1950. 8. 20. 해남군 송지면 산정리 서제山中	×	×	음 6. 28.	손영운, ○○○, ○○○, ○○○, ○○○ (전문)	확인
마- 243 (김춘태)	5 (67)	김경희 (金京希 남, 31) 이명: 김덕이	경찰	아버지		1950. 7. 20. 완도군 노화면 예송리 325	×	○	음 7. 20.	○○○, ○○○ (연행과 정 목격) 김춘태, ○○○, ○○○ (전문)	확인

〈표 11〉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의 인적사항 및 희생사실 확인사항

관련 사건	연번 (전체 연번)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문헌자료		진술조사			희생 사실 확인 결과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직업 및 주요 경력	희생일 및 희생장소	제적등본 (사망일, 사망장소)	6·25사변 피살자명부 (성명, 나이, 피살연월일, 피살장소)	사신 수습 여부	제사 일	진술자 (사건과의 관계)	
완도읍										
완도읍 군내리 완도내무서 희생사건	1 (1)	조성삼 (趙成三, 남, 31)	농업 대한 청년 단원	1950. 9. 30. (음 8. 19.) 완도읍 군내리 주도 앞바다	1950. 8. 10. 전남 완도군 신지면 월양리 97	趙成三, 30, 8.16, 신상리	×	음 8. 18.	○○○, ○○○, ○○○, ○○○ (전문)	확인
고금면										
고금면 덕동리 덕동분주소 희생사건	1 (2)	이찬언 (李燦彦, 남, 47)	농업	1950. 9. 17. (음 8. 6.) 고금면 덕동리 앞바다	1954. 7. 26. 완도군 고금면 덕동리 308	李燦彦, 49, 9.18, 덕동 남산	○	음 8. 5.	○○○, ○○○, ○○○, ○○○, ○○○ (전문)	확인
	2 (3)	최몽심 (崔夢深, 여, 42)	농업 가사	1950. 9. 30. (음 8. 19.) 고금면 덕동리 앞바다	미신고	×	×	음 8. 18.		추정

제 1 부 제1소위원회 사건(2)

관련 사건	연번 (전체 연번)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문헌자료		진술조사			희생 사실 확인 결과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직업 및 주요 경력	희생일 및 희생장소	제적등본 (사망일, 사망장소)	6·25사변 피살자명부 (성명, 나이, 피살연월일, 피살장소)	시신 수습 여부	제사 일	진술자 (사건과의 관계)	

약산면

약산면 장용리 약산분주소 희생사건	1 (4)	김영두 (金瑛斗, 남, 47)	선주	1950. 9. 26. (음 8. 15.) 약산면 장용리 대죽도 앞바다	195□. 8. 16. 전남 완도군 약산면 장용리 565의1	金永斗, 47, 9.21, 장흥군 바다	○	음 8. 14.	○○○ (전문)	확인
	2 (5)	정억천 (鄭億千, 남, 37)	농어 업 이장		1950. 9. 14. 전남 완도군 약산면 장용리 605	鄭億千, 37, 9.14, 장흥군 바다	×	음 8. 14.	○○○, ○○○ (전문)	확인
	3 (6)	김인옥 (金仁玉, 남, 34)	대한 청년 단원	1950. 9. 29. (음 8. 18.) 약산면 장용리 대죽도 앞바다	1950. 9. 17. 전남 완도군 약산면 장용리 640	金仁玉, 35, 9.21, 장흥 해중	○	음 8. 17.	○○○, ○○○ (전문)	확인
	4 (7)	정간인 (鄭幹仁, 남, 25) 이명: 정한용	약산 면사 무소 직원		1956. 9. 30. 전남 완도군 약산면 장용리 634	鄭漢用, 29, 9.21, 장흥군 바다	○	음 8. 17.	○○○, ○○○ (전문)	확인

금일읍

금일읍 화목리 금일분주소 희생사건	1 (8)	조복래 (趙福來, 남, 30)	농 어업	1950. 9. 17. (음 8. 6.) 금일읍 화목리 치곶 앞바다	미신고	趙福來, 31, 9.15, 금일읍 화목리	○	미상	○○○ (희생과정 인지) ○○○, ○○○ (전문)	확인
	2 (9)	이준옥 (李俊玉, 남, 43)	농업 금일 읍장 역임		1952. 4. 20. 완도읍 금일읍 충동리 372	李俊玉, 43, 9.21, 장흥군 바다	○	음 8. 5.	○○○ (감금목격) ○○○ (연행목격, 시신수습) ○○○ (전문)	확인
	3 (10)	서연환 (徐連煥, 남, 40)	농업 이장		미신고	徐連煥, 38, 10.2, 금일읍 화목리	×	음 8. 5.	○○○, ○○○, ○○○ (전문)	확인

제 3 권

관련 사건	연번 (전체 연번)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문헌자료		진술조사			희생 사실 확인 결과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직업 및 주요 경력	희생일 및 희생장소	제적등본 (사망일, 사망장소)	6·25사변 피살자명부 (성명, 나이, 피살연월일, 피살장소)	사신 수습 여부	제사 일	진술자 (사건과의 관계)	
금일읍 화목리 금일분주소 희생사건	4 (11)	서응환 (徐應煥, 남, 31)	농업 대한 청년 단원		미신고	×	○	음 8. 5.	○○○ (사신수습)	확인
	5 (12)	신수일 (申洙壹, 남, 47)	어업		1951. 10. 20. 전남 완도군 금일읍 사동리 159	×	×	음 8. 5.	○○○, ○○○ (전문)	확인
	6 (13)	김서호 (金瑞浩, 남, 40)	농업 어업		1950. 8. 20. 전남 완도군 금일읍 충동리 534	金瑞浩, 40, 9.16, 금일읍 감목리	○	음 8. 5.	○○○, ○○○, ○○○ (전문)	확인
	7 (14)	박사은 (朴仕銀, 남, 43)	교사		미신고	朴仕銀, 42, 9.2, 금일읍 감목리	×	음 8. 5.	○○○, ○○○, ○○○ (전문)	확인
	8 (15)	김필선 (金必先, 남, 39)	경찰		1950. 9. 7. 전남 완도군 금일읍 화목리 99	×	○	음 8. 5.	○○○ (감금목격) ○○○ (전문)	확인
	9 (16)	오귀환 (남, 30대)	어업		미확보	吳基煥, 41, 9.19, 덕동 남산	×	음 8. 5.	○○○, ○○○ (전문)	확인
	10 (17)	조현봉 (趙顯鳳, 남, 31) 이명: 조현철	농어 업	1950. 9. 18. (음 8. 7.) 금일읍 화목리 치끝 앞바다	1950. 9. 9. 전남 완도군 금일읍 화목리 219	趙鉉鳳, 32, 10.2, 금일읍 화목리	○	음 8. 6.	○○○ (희생과정 인지) ○○○, ○○○, ○○○ (전문)	확인
	11 (18)	김종국 (金鍾國, 남, 43)	농업		1950.10.15. 전남 완도군 금일읍 화목리 197	金宗國, 49, 9.16, 약산면 해상	○	음 8. 6.	○○○ (희생과정 인지) ○○○, ○○○ (전문)	확인

제 1 부 제1소위원회 사건(2)

관련 사건	연번 (전체 연번)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문헌자료		진술조사			희생 사실 확인 결과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직업 및 주요 경력	희생일 및 희생장소	제적등본 (사망일, 사망장소)	6·25사변 피살자명부 (성명, 나이, 피살연월일, 피살장소)	사신 수습 여부	제사 일	진술자 (사건과의 관계)	
금일읍 화목리 금일분주소 희생사건	12 (19)	이태우 (李泰雨, 남, 32)	농업	1950. 9. 19. (음 8. 8.) 금일읍 화목리 치끝 앞바다	1969. 5. 11. 전남 완도군 금일읍 동백리 355	×	○	미상	○○○ (희생과정 인지) ○○○, ○○○ (전문)	확인
	13 (20)	김경호 (金敬浩, 남, 46)	농업 어업		미신고	金敬浩, 46, 9.16, 금일읍 감목리	×	음 8. 6.	○○○, ○○○ (전문)	확인
	14 (21)	김정환 (金汀煥, 남, 33) 이명: 김광호	어업		1950. 9. 6. 전남 완도군 금일읍 충동리 619	金光浩, 33, 9.16, 금일읍 화목리	○	음 8. 7.	○○○, ○○○, ○○○, ○○○, ○○○, ○○○, 천부기 (전문)	확인
	15 (22)	김양호 (金陽浩, 남, 24)	농업 어업		1950. 5. 5. 전남 완도군 금일읍 충동리 534	金良浩, 36, 9.16, 금일읍 감목리	○	음 8. 7.	○○○, ○○○, ○○○ (전문)	확인
금일읍 일정리 김종명 희생사건	16 (23)	김종훈 (金鍾勳, 남, 47) 이명: 김종관	농업	1950. 9. 22. (음 8. 11.) 금일읍 일정리 앞바다	1956. 12. 6. 전남 완도군 금일읍 화목리 220	金鍾勳, 50, 9.23, 약산면 해상	×	음 8. 11.	○○○, ○○○, ○○○, ○○○, 이계성, ○○○ (전문)	확인
소안면										
소안면 황간리 김복홍 등 5명 희생사건	1 (24)	박일섭 (朴日燮, 남, 33)	농업	1949. 4. 15. (음 3. 17.), 소안면 황간리 와 노화읍 사이 바다	미신고	×	×	미상	○○○, 이영애, ○○○ (전문)	확인
노화읍										
노화읍 등산리 천종남 희생사건	1 (25)	천종남 (千鍾南, 남, 38)	금융 조합 이사	1950. 8. 14. (음 7. 1.) 노화읍 등산리와 보길면 사이 바다	1951. 7. 16. 전남 완도군 노화면 등산리 979	千鍾南, 40, 9.16, 보길도 앞	○	음 6. 30.	○○○, ○○○, ○○○ (전문)	확인

제 3 권

관련 사건	연번 (전체 연번)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문헌자료		진술조사			희생 사실 확인 결과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직업 및 주요 경력	희생일 및 희생장소	제적등본 (사망일, 사망장소)	6·25사변 피살자명부 (성명, 나이, 피살연월일, 피살장소)	사신 수습 여부	제사 일	진술자 (사건과의 관계)	
노화읍 이포리 농협창고 희생사건	2 (26)	천기옥 (千基玉, 남, 54)	농업	1950. 8. 19. (음 7. 6.), 해남군 송지면 월송리 야산	1950. 5. 15. 전남 완도군 노화면 등산리 979	千基玉, 56, 9.16, 노화읍 당상리	○	음 7. 5.	○○○, ○○○, ○○○ (전문)	확인

5. 가해주체 및 가해이유

가. 가해주체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된 사건 57건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미신청사건 1건의 가해주체는 인민군과 지방좌익이다. 이중 지방좌익에 의해 발생한 희생사건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완도지역이 인민군에 의한 점령기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았고, 또한 인민군은 완도지역 각 읍·면에 진주하였다가 바로 떠나버려 실질적으로 각 지역을 지배했던 것은 지방좌익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민군에 의해 발생한 희생사건은 크게 인민군이 완도지역 각 읍·면으로 진주하던 시기에 발생한 사건과 완도지역을 퇴각하던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나뉜다. 희생자들은 각자의 거주지 부근에서 야경을 서고 있던 중 완도지역으로 진주해오던 인민군이 쏜 총에 맞아 희생당하거나, 완도내무서에 감금되어 있다가 퇴각하는 인민군에 의해 완도읍 군내리 주도 앞바다에 수장되어 희생당하였다.

지방좌익에 의해 발생한 희생사건은 완도지역 대부분의 읍·면에서 발생하였다. 1950. 9. 14.을 전후하여 인민군이 완도지역에 진주하였고, 이후 완도지역은 소수의 인민군과 해방이후부터 활동해오던 각 읍·면 지방좌익의 점령 하에 놓이게 되었다. 각 지역의 실정을 자세히 알고 있던 지방좌익은 분주소원, 자위대원 등의 신분으로 활동하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지배하였다. 이들은 주로 과거 우익활동에 참여했던 인물들을 분주소에 감금시켰고 이후 인근 바다에 수장시켜 사살하였다. 그러나 조사결과 지방좌익이 정확히 누구인지 또 그들이 어떤 신분으로 활동하였는지에 대해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는 당시 지방좌익이 분주소원, 자위대원 중 어느 한 신분으로만 활동하지 않았고, 현재를

살고 있는 진술인들이 지방좌익의 당시 신원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혹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술하기를 꺼려하는 점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결정서에서는 가해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인민군, 지방좌익 등으로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나. 가해이유

희생자들은 전쟁이라는 시대상황 속에서 하나의 특정한 이유로 희생당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희생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희생자들이 희생당한 이유로 흔히 ‘우익이라는 이유’를 꼽는다. 그러나 진실규명신청사건을 조사한 결과, 경찰, 공무원, 대한청년단원 등 우익이라는 이유 외에도 우익가족이라는 이유, 당시 마을에서 부유한 편에 속한다는 이유, 기독교신자라는 이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완도지역은 일제시대 때부터 마을주민 간에 빈부격차가 컸고, 일제시대 때 항일독립운동에 참여한 인물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해방 이후 항일독립운동 경력자들과 빈농들이 좌익활동을 주도적으로 펼치는데 영향을 주었다. 그로 인해 완도지역에서는 해방 이후 좌익활동이 강력하게 나타났고 그를 저지하고자 하는 우익과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좌우갈등,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된 개인감정은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희생사건을 촉발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다음의 <표 12>는 각 사건별 가해주체 및 가해이유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12> 사건별 가해주체 및 가해이유

연 번	사건명	발생시기	희생자	가해주체	가해이유
군외면					
1	군외면 황진리 이원춘 희생사건	1950. 9. 14.	이원춘	인민군	야경서던 중 총에 맞아 희생
완도읍					
2	완도읍 군내리 완도내 무서 희생사건	1950. 9. 30.	최윤신, 김복길, 최경춘, 황세봉, 황래봉, 임남선, 김길순, 김경석, 김경안, 김국흙, 조성삼	인민군, 지방좌익	우익이라는 이유
고금면					
3	고금면 청학리 박태규 희생사건	1950. 9. 5.	박태규	인민군	야경서던 중 총에 맞아 희생

제 3 권

연 번	사건명	발생시기	희생자	가해주체	가해이유
4	고금면 가교리 황복윤 희생사건	1950. 9. 15.	황복윤	인민군	야경서던 중 총에 맞아 희생
5	고금면 덕동리 덕동분 주소 희생사건	1950. 9. 17~30.	오병석, 이찬언, 최몽심	고금면 지방좌익	경찰이라는 이유, 부유하다는 이유
약산면					
6	약산면 득암리 최윤열 희생사건	1948. 5. 9.	최윤열	약산면 지방좌익	부유하다는 이유
7	약산면 장용리 약산분 주소 희생사건	1950. 9. 19~30.	최규린, 송복윤, 정평균, 윤세창, 최응열, 최병태, 최병호, 차상근, 오병천, 이옥룡, 최병원, 김영두, 정억천, 김인옥, 정간인	약산면 지방좌익	대한청년단원, 경 찰, 공무원, 기독교 신자, 이장이라는 이유, 부유하다는 이유
8	약산면 관산리 송복신, 송정순 희생사건	1950. 10. 4.	송복신, 송정순	약산면 지방좌익	대한청년단원,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
9	약산면 관산리 김옥자, 김태정 희생사건	1950. 10. 4.	김옥자, 김태정	약산면 지방좌익	경찰가족이라는 이유
10	약산면 관산리 최규승 일가 희생사건	1950. 10. 4.	최규승, 최규칠, 최근호, 최경호, 최철호, 최규실, 황연례, 최원호, 최인호, 최정숙, 차호기	약산면 지방좌익	부유하다는 이유, 공무원 및 그 가족 이라는 이유
금당면					
11	금당면 차우리 송태원 희생사건	1950. 9. 10.	송태원	금당면 지방좌익	우익이라는 이유, 부유하다는 이유
12	금당면 차우리 전순규 희생사건	1950. 9. 16.	전순규	금당면 지방좌익	대한청년단원이라는 이유
13	금당면 가학리 김영배 희생사건	1950. 9. 19.	김영배	금당면 지방좌익	우익이라는 이유
14	금당면 봉동리 송일섭 희생사건	1950. 9. 27.	송일섭	금당면 지방좌익	대한청년단원, 의경 이라는 이유
금일읍					
15	금일읍 화목리 금일분 주소 희생사건	1950. 9.17.~24.	방정순, 김종준, 구기표, 천병탁, 김중식, 조복래, 이준옥, 서연환, 서응환, 신수일, 김서호, 박사은, 김필선, 오귀환, 한동섭, 조현봉, 김종국, 이태우, 김경호, 김정환, 김양호, 한동용	금일읍 지방좌익	우익이라는 이유, 부유하다는 이유
16	금일읍 화목리 정현우 희생사건	1950. 9. 20.	정현우	금일읍 지방좌익	경찰과 교섭했다는 이유

연 번	사건명	발생시기	희생자	가해주체	가해이유
17	금일읍 일정리 김종명 희생사건	1950. 9. 22.	김종명, 김종훈	금일읍 지방좌익	부유하다는 이유
소안면					
18	소안면 흥간리 김복홍 등 5명 희생사건	1949. 4. 15.	김복홍, 김민채, 김용관, 장남동, 박일섭	소안면 지방좌익	소안면 지서에 지방 좌익의 소재를 신고 하러 가던 중 희생
19	소안면 흥간리 앞바다 희생사건	1950. 8. 14.	김철구, 김용재, 김석노	소안면 지방좌익	우익이라는 이유
20	소안면 이월리 김석만 희생사건	1950. 9월 말	김석만	지방좌익	지방좌익과 배를 타 고 나갔다가 희생
노화읍					
21	노화읍 이포리 황준봉 희생사건	1950. 8. 10.	황준봉	인민군	대한청년단원이라는 이유
22	노화읍 이포리 서창호 희생사건	1950. 8. 11.	서창호	노화읍 지방좌익	대한청년단원이라는 이유
23	노화읍 동천리 고종엽 희생사건	1950. 8. 11.	고종엽	노화읍 지방좌익	부유하다는 이유
24	노화읍 등산리 천종남 희생사건	1950. 8. 14.	천종남	노화읍 지방좌익	금융조합 직원이라 는 이유
25	노화읍 이포리 농협창 고 희생사건	1950. 8. 19.	손남석, 김경희, 천기옥	노화읍 지방좌익	경찰이라는 이유 부유하다는 이유,

Ⅲ. 결론 및 권고사항

1. 결론

문헌자료와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해 1948. 5. 9.~1950. 10. 4.에 전남 완도군 군외면, 완도읍, 고금면, 약산면, 금당면, 금일읍, 소안면, 노화읍 등 8개 읍·면에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진실규명대상자 67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26명 등 총 93명이 희생당하였음을 확인 또는 추정하였다.

진실규명대상자 67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26명 등 전체 희생자 93명 중, 희생사실이 ‘확인’된 희생자는 진실규명대상자 66명,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25명 등 91명이고, 희생사실이 ‘추정’된 희생자는 진실규명대상자 1명,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

제 3 권

자 1명 등 2명이다.

희생사실이 확인된 진실규명대상자 66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25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진실규명대상자 66명

이원춘(李垣春, 마-871), 최윤신(崔允信, 마-935), 김복길(金福吉, 마-6120), 최경춘(崔慶春, 마-7277), 황래봉(黃來鳳, 마-7652), 황세봉(黃世鳳, 마-6762), 임남선(林南先, 마-7653), 김길순(金吉順, 마-7654), 김경석(金敬石, 마-10714), 김경안(金敬安, 마-10714), 김국흠(金局欽, 마-10714), 박태규(朴太圭, 마-3079), 황복윤(黃福允, 마-10727), 오병석(吳炳錫, 마-4197), 최윤열(崔允烈, 마-9300), 최규린(崔圭隣, 마-9302), 송복윤(宋福閔, 마-9312), 정평균(鄭平均, 마-772), 윤세창(尹世昌, 마-9314), 최응열(崔應烈, 마-8912), 최병태(崔炳台, 마-9307), 최병호(崔秉浩, 마-9309), 차상근(車相根, 마-9308), 오병천(吳炳千, 마-749), 이옥룡(李玉龍, 마-9306), 최병원(崔炳元, 마-6921), 송복신(宋福信, 마-9310), 송정순(宋貞順, 마-9311), 김옥자(金玉子, 마-9305), 김태정(金太正, 마-9315), 최규승(崔圭昇, 마-8135), 최규칠(崔圭七, 마-9300-1), 최근호(崔謹鎬, 마-9300-1), 최경호(마-9303), 최철호(마-9304), 최규실(崔圭實, 마-9313), 황연례(黃研禮, 마-6261), 최원호(崔元鎬, 마-6261), 최인호(마-6261), 최정숙(崔貞淑, 마-6261), 차호기(마-6261), 송태원(宋太元, 마-167), 전순규(全順圭, 마-5741), 김영배(金永培, 마-3704), 송일섭(宋日燮, 마-5746), 방정순(方貞淳, 마-944), 김종준(金鍾準, 마-2413), 구기표(具奇表, 마-2415), 천병탁(千炳卓, 마-10716), 김중식(金重植, 마-10741), 한동섭(韓東燮, 마-2412), 한동용(韓東用, 마-7892), 정현우(鄭鉉佑, 마-946), 김종명(金鍾鳴, 마-2411), 김복홍(金福弘, 마-3865), 김민채(金敏彩, 마-3866), 김용관(金龍官, 마-3867), 장남동(張南同, 마-3869), 김철구(金哲九, 마-3872), 김용재(金龍宰, 마-3872), 김석노(金石老, 마-10737), 황준봉(黃俊鳳, 마-7133), 서창호(紆昌昊, 마-4382), 고종엽(高宗葉, 마-348-1), 손남석(孫南錫, 마-348), 김경희(金京希, 마-243)

○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25명

조성삼(趙成三), 이찬언(李燦彦), 김영두(金玲斗), 정억천(鄭億千), 김인옥(金仁玉), 정간인(鄭幹仁), 조복래(趙福來), 이준옥(李俊玉), 서연환(徐連煥), 서응환(徐應煥), 신수일(申洙壹), 김서호(金瑞浩), 박사은(朴仕銀), 김필선(金必先), 오귀환, 조현봉(趙顯鳳), 김종국(金鍾國), 이태우(李泰雨), 김경호(金敬浩), 김정환(金汀煥), 김양호(金陽浩), 김종훈(金鍾

勳), 박일섭(朴日燮), 천종남(千鍾南), 천기옥(千基玉)

희생사실이 추정된 진실규명대상자 1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1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진실규명대상자 김석만(金石萬, 마-3857)

○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최몽심(崔夢深)

희생사건의 가해주체는 인민군과 지방좌익이다. 인민군에 의한 희생사건은 인민군이 완도지역 각 읍·면으로 진주하던 시기에 군외면, 고금면, 노화읍에서 발생하였고, 인민군이 완도지역을 퇴각하던 1950. 9. 30.에 완도읍에서 발생하였다. 지방좌익에 의한 희생사건은 한국전쟁 이전부터 1950. 10월 초까지 완도지역 대부분의 읍·면에서 발생하였다.

희생자들은 주로 경찰, 공무원, 대한청년단원 등 우익이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 마을에서 부유한 편에 속한다는 이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희생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희생자들은 주로 20~40대의 남성이었으나 그 외에도 소수이기는 하나 여성을 포함하여 10~60대까지 전 연령대의 희생자가 존재하였다.

2. 권고사항

첫째, 유족들이 원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잘못 기재된 사망일시 및 사망장소에 대해 국가는 신속하게 정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들에 대한 위령사업을 지속적이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완도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는 각종 기관자료(완도군지 등)에 한국전쟁 당시의 지역사를 바르게 기술하고, 교육기관에서는 지역의 역사를 학생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